

금정산맥

'20~'21



부산학생산악연맹
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

산악인의 백자 선서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 평화, 사랑의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목차

발간사	4
축 사	5
특별기고-변방에서 자신의 길을 간 서성호	6
I. 코로나 시대와 등산	11
II. 2020 활동 내역	19
III. 장기산행 보고	20
IV. 2020 B.F.C 등산학교	29
V. 2021 B.F.C 등산학교	33
VI. 2021 B.F.C 동계등산학교	48
VII. 산악부 탐방-부경대학교	137
VIII. 산악 도서 영화 소개	143
IX. 2020 행사 사진	146
X. 2021 행사 사진	149
XI. 2020 단대별 활동	158

발간사



회장 조광제

사랑하는 부산학생산업연맹 회원 여러분!

2020년, 2021년 회장을 마무리하게 된 조광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던 두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팬데믹의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답답하지만 적으나마 두 해의 학산 활동을 묶어 금정산맥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사업들이 이뤄지지 않는 관계로 매년 포함되던 청소년 오지탐사대 참가기 나 국제캠프 참가기 및 소속대학 해외원정 보고가 없어 아쉬움이 있지만 국내 행사를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첫해에는 우리 학산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산악단체들이 뒹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 하계 등산학교와 연맹제 정도만 시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2021년에는 전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 방역지침을 충실히 지키면서 5개 대학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하계 등산학교와 7개 대학 17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동계 등산학교를 훌륭히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제53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대학부 우승, 준우승을 휩쓸어 부산연맹 종합우승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등산학교 교육생들의 생생한 참가기는 여러 회원님에게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또한, 순연되었던 영호남 합동 등반 또한 우리 학산 주관하에 금정산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사진으로나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금정산맥은 책자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고화질의 컬러 사진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쁜 와중에도 금정산맥 발간에 힘 써주신 이언화, 하태웅 부회장 이하 편집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임인년!

모든 부산학생산업연맹 회원 가족 여러분,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 사



부산광역시산악연맹

회장 최재우

금정산맥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이 격년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금정산맥은 우리 연맹 산하 단체인 부산학생산악연맹 2년간의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소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소속 대학산악부원들의 생동감 넘치는 활동상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발간에 애써 주신 부산학생산악연맹 조광제 회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우리 산악계에도 힘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많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부산광역시산악연맹의 젊은 피인 부산학생산악연맹은 신입생 모집부터 동계 등산학교까지 선배들의 전통을 훌륭히 이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제53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 부산학생산악연맹 소속 재학생들이 뽄뽄 뭉쳐 대통령기 종합우승에 기여한 것에 대해 연맹 회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산악연맹에서도 내년 히말라야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랑탕히말 골뎀피크 초등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1년여 기간 동안 원정대장을 비롯한 원정 대원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하여 최고의 팀워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원정에는 아쉽게도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원들이 참가하지 못하지만 향후 원정에는 주도적으로 참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회원들도 한뜻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설악의 단풍이 남녘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금정산도 아름답게 수놓아질 것입니다. 붉게 물든 금정산에서 다시 뵈게 되기를 희망하며 부산학생산악연맹(이 지금까지 하여 오신 것처럼 힘찬 미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별기고

변방에서 자신의 길을 간 서성호



오영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악회 97학번
(사)대한산악연맹 이사, 한국등산연구소 부소장

9년 전 이야기다.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3월 초 어느 이른 오후, 서성호(부경대 98, 1979.11.3.~2013.5.21.)와 나는 서울 종로의 칙칙한 뒷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다 허름한 식당 하나 찾아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젊은 남자 둘이서 서울 한복판에서 낚술 들이기란 우리 스스로도 조금은 생소했다. 그만큼 우리는 들떠 있었다. 다가오는 원정에 대해, 또 서로에 대해. 며칠 뒤에는 에베레스트로 떠난다. 부산에서 지내던 서성호는 마지막 준비에 합류하러 기차를 타고 상경한 참이었다. 나도 지난 1년을 네팔에서 지내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더욱이 우리 둘은 이전까지는 술은커녕 제대로 대화도 나눠 본 사이가 아니었다.

‘재작년에 원정 다녀온 뒤로 사람들이 다 물었어요. 14좌 남은 두 개인 K2와 브로드피크를 왜 가지 않느냐고. 저도 조금은 생각했죠. 그거 하면 세계 최연소 기록까지 되니까. 돈 대 준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8천 미터 14좌 완등이 얼마 남지 않았느냐는 내 물음에, 서성호는 준비된 듯 자신의 정리된 생각을 꺼낸다. 성호는 2011년 가을, 부산산악연맹의 8천 미터 14좌 프로젝트에 고정 대원으로 함께하면서 완등 마지막인 초오유까지 올랐다. 연맹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에게 14좌라면 아직 두 개가 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그만둔 거예요. 그걸 하면, 지금까지 14좌 완등 때문에 산에 간 것이라고 나 스스로마저 그렇게 여길까 봐.’

이를 꽤 씩씩하게 여기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확고했다.

서성호는 등반의 영웅주의를 배격했다. 이 2013년 에베레스트 원정은 김창호 대장의 8천 미터 14좌 마지막 여정이기도 했다. 캐러밴 도중, 서성호는 김창호에게 유일한 부탁을 한다. ‘이번에 14좌를 모두 등정하고 나면 형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성호는 ‘14좌’라는 타이틀이 가져오는 위세에

산에 가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여겼다.

‘거대한 변소, 에베레스트’.

당시 원정대에 동행한 임일진 촬영감독의 표현이다. 베이스캠프는 각종 ‘최초’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이들로 북적거렸다. 에베레스트는 모험 분야에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시스템이 침예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장이었다. 자아의 승리와 명성을 위해 최후의 보루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나서는, 인간의 욕망 끝자락까지 철저히 상업화된 현장이었다. 히말라야에서 변소와 안방의 이분법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 현실이었다. 그게 아닌 등반을 꿈꾸기란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서성호는 변소나 안방 둘 다 거부했다. 즉 상업주의만이 아니라 정형화된 소위 ‘순수 알피니즘’ 모두 거부했다. 김창호 대장과 안치영 대원, 나 셋은 서성호와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향해 오르고 있을 때였다. 서성호를 제외한 나머지 셋은 출라체, 타보체, 아마다블람 등등 양옆으로 가파르고 기괴하게 솟은 설산들을 올려다보며 ‘저기는 누가 올라갔지’, ‘저기는 아직 아무도 오르지 않았지’, ‘저기를 오르려면 이쪽 골짜기로 해서 저 능선에 올라선 뒤...’ 따위를 열을 올려 얘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순수 알피니스트’라고 여겼던 것이다. 반면 서성호는 조용히 있었다. 고봉 등정, 신루트, 초등 따위는 그의 관심 밖이었다.

물론 서성호는 등산을 더없이 진지하게 대했다. ‘산은 나이 들어 다녀도 충분해, 젊을 때는 앞가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에베레스트를 향해 오르던 길에 동행한 어느 중년 선배가 우리에게 던진 말이다. 그날 저녁, 함께 쓰던 롯지 방에서 잘 준비를 하면서 서성호에게 물었다. ‘아까 형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성호는 예의 한쪽 입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웃음으로 가볍게 말했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앞가림 먼저, 산은 그다음’이라는 조언은 사실 수도 없이 들어본 터였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등산으로부터 얻는 체험의 날 선 면모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생각해본다. 서성호는 힘들게 산에 다녔다. 2001년 군 복무 중에 부친이 질환으로 사망했다. 복학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나 선후배들과 함께 꾸준히 산에 다녔다. 2006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는 정규직 사원이 되었다. 선배로 많이 이끌어주고 나중에는 양아버지처럼 여겼던 홍보성 대장은 그에게 ‘앞으로 10년간은 산에 다닐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다시 산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뒤 14좌 중 12개를 성공했는데, 남은 2개 대신 에베레스트 무산소를



택했다. 왜? ‘에베레스트 무산소는 꼭 해 보고 싶었어요. 칸첸중가 갔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에베레스트는 얼마나 더 힘들까.’

서성호는 2006년 에베레스트를 이미 올랐다. 당시 함께 했던 김진태 선배에 관해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김 선배는 마라톤 서브스리를 달성한 인물로 서성호에 따르면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였다. 베이스캠프에서는 매일 달리기를 했다고 한다. 그는 그런 김 선배를 이기고 싶었지만 이길 수 없었다. 그다음 해에 서성호 앞에 ‘더 센 사람’이 나타났다. 김창호였다. 이기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꼬리 내렸죠. 그런데 2011년에는 여러 번 따라잡았어요.’

서성호에게 ‘가장 세다’라는 것은 중요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이었다. 그 체험의 새로움, 신비로움이 그를 산으로 유혹했다. 다만 내게는 서성호야말로 내가 알아 온 이들 중 가장 ‘센’ 사람 측에 속했다. 체력만이 아니라 일종의 ‘마음의 힘’이라고나 할까. 등반사에서 주목받는 등반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면 그런 비상한 힘이 느껴진다. 그 힘은 경쟁 승리를 위한 힘 그 이상이다.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산과 사람의 일들—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그 행동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자신의 어깨에 지고 간다는 인식과 자신감이다.

서성호는 자신이 그런 식으로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산에서는 항상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른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 애썼다. 8천 미터의 사우스콜 4캠프에서, 그 자신이 숨을 거두기 꼭 하루 전날,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출발하는 전푸르나(서울시립대 10)의 옷매무새를 챙겨주었던 일(《엑셀시오》 36호 참조)은 아마도 한국 고산등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2004년 데날리(매킨리)에서는 한국인 조난자 수색 중에 코에 동상을 얻었다. 그로 인해 이후로 히말라야 등반 중에 강추위에 노출되면 동창에 시달리곤 했는데, 그에 관해서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변명하려 들지도 않았다.

김창호는 그런 서성호를 일러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깊은 곳을 보았던 산악인’이라고 평했다. 베이스캠프에서는 포터나 키친스태프 같은 가장 신분이 낮은 현지 일꾼들을 친구처럼 대하곤 했다. 이런 태도는 ‘정이 많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국인 중에 현지인들에게 농담을 던질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제대로 받기까지 하는 이는 서성호가 유일했다. 거기엔 ‘많은 정’과는 전혀 다른 게 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신과 명성을 관리하는, 좋은 말로 ‘온화한 성품’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살지 않았다.

꼬박 하루가 지났는데도 서성호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은 채 아직도 ‘죽음의 지대’ 8천 미터 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셰르파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올라갔다. 어둠과 추위, 공포와 외로움 속에 완전히 탈진한 채 홀로 내려오는 그를 만난 것은 8300미터 지점이었다. 마침내 마주한 우리에게 안도가 찾아들었다. 그건 마치 설악산 릿지를 등반하다가 겨우 조난을 면하고 밤늦게 희미한 길을 찾아 내려오는 안식과도 같았다.

‘형님... 내려가면... 시워-언한 맥주 한 잔 합시다.’ 얼어붙어 어눌해진 목소리로 서성호는 난데없이 맥주 타령이었다. 그러자 한편 다급하기만 했던 내게도, 목을 넘기는 차가운 맥주 한 모금, 카아 하는 추임새 따위, 말이 필요 없을 통쾌한 눈빛들까지 상상이 가는 것이었다. 서성호의 에베레스트 무산소, 비현실적으로 강했던 그의 세계는 바로 그런 통쾌함에, 말하자면 고된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 숙초의 횃집에서 깊어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누는 술잔 속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었던 것이다. ‘등산의 끝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은 따라서, 돌아와서 그렇게 함께 살아있었다는 통쾌한 체험을 나누면서 다져가는 우정이야말로 등산의 체험에 솔직해지고 또 삶의 전반에 걸쳐 살아있게 하는 것, 등산으로 지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다.

서성호는 당시 자신이 각기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학생산악연맹, 부산산악연맹에서 할 일이 많다는 말을 내게 여러 번 했다. 그가 에베레스트를 살아 내려왔다면 지금 우리는 조금은 다른 후배들을 보고 있을 것이었다. 부산

지역 산악계는 학생 산악인의 패기를 인정하고 높이 사는 전통이 1950년대부터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성호 역시 그런 부산의 전통을 잇는 가교였을 것이다. 작가 신영복 선생은 저서 《담론》에서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다. 부산이라 서라기보다 영웅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서성호는 변방으로 남았다. 주류를 거부함으로써 등산의 날 선 체험을 살려두고자 했다. 그는 갔지만 그의 행적은 주위에 또 내게도 남았다. 변소와 안방의 이분법을 단호히 거부했던 그를 떠올릴 때마다, 나도 등산과 삶에 담긴 신비로움을 다시 더듬어 찾게 된다.

I. 코로나 시대와 등산

등산의 재발견, 코로나 시대의 등산 트렌드 변화

1] 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실내 활동보다 야외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면서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또한 최근 SNS 상에서는 각종 취미여가활동에 입문한 초보자들을 지칭하는 ‘○린이’¹⁾ 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으며, 대표적 SNS인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타그램’²⁾ 이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본인의 활동에 대해 기록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쇼핑몰인 G마켓의 2020년 상반기 기준 20~30대 고객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산, 캠핑, 골프 등 그 동안 ‘아재 취미’로 일컬어지던 분야의 관련 용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³⁾
- 동기간 40~50대 중장년층의 판매 증가율은 13%로 나타남 - 20~30대 등산용품 판매량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여성 등산의류가 103%, 남성 등산 의류와 등산화/트레킹화가 각각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대의 등산용품 구매가 87% 급증하는 등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SNS에서 ‘등린이’, ‘산린이’, 등 등산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음

○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들어 북한산(수도권), 계룡산(대전), 치악산(원주) 등 도심권 국립공원 3 곳의 탐방객 수가 전년 대비 평균 약 21% 증가하였음⁴⁾

- 북한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약 341만 명, 계룡산 약 104만 명, 치악산 약 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본고에서는 이렇듯 취미여가활동 중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의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등산과 관련된 각종 통계와 검색량 분석 등을 통해 등산과 관련된 현황, 그리고 등산이 여가활동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추론해보고자 함

- 1) ○린이 : 특정 활동 + 어린이의 합성어. 특정 활동에 입문한 초보자를 지칭하는 SNS 용어 (예시 : 등린이 = 등산 + 어린이, 골린이 = 골프 + 어린이)
- 2) ○○스타그램 : 특정 활동 + 인스타그램의 합성어. 주로 해쉬태그로서 게시물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활용되고 있음 (예시 : 일상스타그램(일상 공유), 먹스타그램 (음식), 운동스타그램(운동))
- 3) 파이낸셜뉴스(2020.07.21.), '등산·캠핑에 빠진 MZ세대'... G마켓, 2030세대 '등산·캠핑·골프' 소비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10914067501>)
- 4) 북한산 등 도심 국립공원 3곳, 탐방객 수 증가(2020.07.29.), 국립공원공단 보도자료.

2] 등산 관련 통계 현황

□ 산악형 국립공원 탐방객 현황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자 환경부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음

－ 전국 22개 국립공원은 유형에 따라 산악형(18개), 해상·해안 형(3개), 사적형(1개) 공원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 산악형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17년 전체 약 3,377.3만 명, 2018년 약 3,145.9만 명, 2019년 약 3,058.1만 명 등으로 점차적으로 감소세에 있음

○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객 수가 2019년 상반기 대비 약 7.7%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도시에 근접한 산악형 국립공원의 경우 탐방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

－ 치악산(23.8%), 북한산(23.5%), 계룡산(15.6%) 등의 도심권 국립공원에서 증가하였으며, 지리산도 4.8% 증가하였음

<표 1> 산악형국립공원탐방객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19 상반기	2020 상반기 (전년대비 증감률)
지리산	3,067	3,309	3,005	1,170	1,226(4.8)
계룡산	1,722	1,818	1,950	901	1,042(15.6)
설악산	3,694	3,241	2,868	1,070	743(-30.6)
속리산	1,349	1,245	1,286	506	386(-23.6)
한라산	1,001	892	848	444	354(-20.4)
내장산	2,102	1,949	1,908	547	496
가야산	860	673	655	266	193
덕유산	1,732	1,501	1,223	501	427
오대산	1,511	1,399	1,361	548	501
주왕산	1,312	1,155	1,065	219	138
치악산	671	738	759	329	407
월악산	1,056	1,015	1,001	430	383
북한산	5,955	5,519	5,575	2,765	3,415
소백산	1,224	1,194	1,158	570	463
월출산	508	409	494	337	172
변산반도	1,897	1,579	1,594	795	562
무등산	3,514	3,144	3,156	1,660	1,191
태백산	597	680	676	443	359
합계	33,773	31,459	30,581	13,501	12,457

□ 국민여가활동조사 - 등산 관련 주요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등산을 취미오락 활동의 범주에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경우 등산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산에 오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이 일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즐거움을 찾는 활동

○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등산은 우리 국민의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상위 10위 내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왔으며, 신체를 활용하는 야외활동으로서는 ‘산책 및 걷기’와 함께 꾸준히 등장하고 있음

○ 이 외에도,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등산과 관련 한 주요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으로서 등산의 선호도는 9.0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남성, 50~60대 연령대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동호회 활동으로서 동호회 활동자의 참여 비중은 등산이 12.1%로 나타났으며, 주로 남성, 40~60대 연령대에서 활동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근로시간 단축 실시에 따른 여가활동(1+2+3순위)로서 등산에 대한 참여 비중은 9.7%로 나타났으며, 역시 남성과 40~60대 연령대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2>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복수응답)
(상위10개: 1+2+3순위)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1	TV시청(26.5)	TV시청(19.2)	TV시청(22.1)
2	친구만남/동호회(18.1)	쇼핑/외식(18.5)	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소개팅(21.4)
3	산책 및 걷기(17.9)	영화관람(18.1)	쇼핑/외식(18.7)
4	쇼핑/외식(17.0)	친구만남/동호회(17.7)	영화관람(18.1)
5	인터넷검색(15.9)	산책 및 걷기(14.7)	산책 및 걷기(17.9)
6	영화관람(13.5)	등산(10.8)	인터넷검색(11.1)
7	음주(12.0)	음주(10.5)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10.1)
8	등산(11.2)	인터넷검색/채팅/1인 미디어제작/SNS(10.2)	음주(9.2)
9	잡담/통화하기(10.1)	게임(9.6)	등산(9.0)
10	목욕/사우나/찜질방(8.6)	잡담/통화하기(9.1)	잡담/통화하기(8.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 결과(스포츠·레저용품)

○ 통계청은 매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 대한 자료를 ‘PC기반 인터넷 쇼핑 거래액’과 ‘모바일기반 인터넷쇼핑 거래액’을 포괄하여 제공하고 있음

－ 해당 조사 통계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제별통계」의 “도소매·서비스” 부문에 해당함

○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23개의 상품군 중 등산과 관련된 상품군은 ‘스포츠·레저용품’ 군임 - 스포츠·레저용품 상품군 포함 항목 : 운동용품, 레저용품, 등산화, 등산배낭 등

○ 스포츠·레저용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살펴보면, 2019년 거래액은 약 4조 1,88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2.1% 증가한 수치이며, 연도별 거래액 역시 지난 3년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의 경우 8월까지의 스포츠·레저용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3조 3,129억 원으로 2019년 1월~8월 거래액 대비 약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기별 거래액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하여 1분기를 제외하고 전년도 거래액 증가 비율을 웃돌고 있음

□ 등산 관련 통계 요약

○ 산악형 국립공원 탐방객을 기준으로, 등산에 참여하는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2020년 상반기 기준 도심권 국립공원의 탐방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도심권이 아닌 국립공원 탐방객은 지리산을 제외하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등산은 우리나라 국민이 즐기는 대표적인 실외여가활동이며, 주로 남성과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임

○ 등산과 관련된 용품이 포함된 스포츠·레저용품 상품군은 온라인에서의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 비중이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3] 등산 관련 트렌드 분석

□ 분석 개요

○ ‘등산’에 대한 트렌드와 관심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포털 사이트의 ‘등산’ 키워드 검색량 데이터와 등산 분야에 대한 클릭량 데이터⁵⁾ 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0월 11일 까지 만 3년 임

－ 클릭량 데이터의 경우, 네이버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라 등산과 관련된 쇼핑 항목 관련 클릭량을 의미하며, 이는 대중의 등산 관련 소비 니즈 추이를 파악하는데 있어 유효한 항목이라고 판단하여 본 분석에 포함하였음

○ 모든 데이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네이버 데이터랩]⁶⁾을 활용해 일별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데이터는 조회 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 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검색량의 변화 흐름 파악에 용이함

○ 본 분석에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최근 3년 간 등산에 대한 검색량의 변화 추이, 그리고 ‘등산’ 관련 클릭량의 3개년 연도별 흐름 비교 등을 통해 등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와 트렌드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 q 등산 키워드 검색량 변화 추이

○ 2017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의 ‘등산’ 키워드 검색량 데이터 검토 결과([그림 1] 참조), 2020년 4월 26일의 검색량이 100.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검색량을 나타낸 날은 2018년 6월 30일 (12.48)로 나타남

○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야외활동이 용이한 봄과 가을에 검색량이 상승하며, 휴가철 및 야외활동이 적은 여름과 겨울에는 검색량이 저조한 경향을 보임

○ 2019년의 경우 ‘등산’에 대한 봄과 가을 기간에도 검색량이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특징을 보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발병 이후 봄과 가을 기간의 ‘등산’ 검색량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네이버의 경우, 등산 부문을 [스포츠/레저]의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산의 하위 항목으로는 등산화, 등산의류, 등산 가방, 등산장비, 등산잡화, 기타 등산장비 등이 있음

6) 네이버데이터랩.

<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Search.naver>

□ 등산 분야 클릭량 변화 추이

- 2017년 10월 12월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의 ‘등산’ 분야의 쇼핑 항목 관련 클릭량 데이터를 3개년으로 구분 하여 각각 1년 동안의 소비자의 클릭량 변화 추이를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그림2]와 같음⁷⁾⁸⁾
- 각 연도의 10월 12일을 기점으로 살펴보면, 등산과 관련 한 클릭량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모두 가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과 겨울 초입인 11월-12월 경 최고점 인 100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7-2018, 2019-2020 모두 11월 19일, 2018-2019는 12월 9일), 12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한 하락, 8월 이후 증가하는 흐름을 공통적으로 보임
 - 각 기간 별 최고점(100) 시점은 2017-2018과 2019-2020의 경우 11월 19일, 2018-2019의 경우 12월 9일로 나타남
 - 최저점 시점은 2017-2018은 6월 말에서 8월 초, 2018-2019 의 경우 2월과 3월, 2019-2020에는 8월 중순 전후로 나타남
- 3개 기간별 흐름을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변화 추세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 을 알 수 있음
 - 2018-2019 기간의 경우 등산 관련 클릭량의 최고점 시점이 다소 늦은 시기에 나타났으며, 최저점의 시점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나타남
 - 2017-2018 → 2018-2019 → 2019-2020으로 갈수록 상반기, 특히 봄 기간(5월 5일 전후)의 등산 관련 클릭량이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분석 결과 요약

- 2017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0월 11일 까지의 등산 관련 검색량의 경우 봄과 가을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코로나19 발병 이후 등산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의 등산 관련 클릭량의 경우 기온이 하락하는 늦가을과 초겨울 시기에 급증하는 형태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봄기간의 클릭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비중 이 증가하는 추세임

□ 코로나19 이후 등산에 대한 관심 증대

- 산악형 국립공원 탐방객이 지난 3년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2020년 상반기의 경우 북한산, 치악산, 계룡산, 지리산을 제외하고 모두 탐방객이 줄어들었으나, 전년 대비 2020년의 등산에 대한 검색량은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의 급감 및 실내 여가활동의 제약 등으로 인해 대체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에 실외 여가활동으로서 만족도가 높았던 등산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과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흐름은 도심에서 가까운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객수 증가, 등산 관련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q 등산 관련 소비재의 확산 추세

○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서 등산용품에 포함하고 있는 스포츠·레저용품 부문의 온라인 거래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본고 서두에서 언급한 G마켓의 20-30대 고객 판매 데이터에서 등산 관련 용품의 거래량 증가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

○ 또한 기존에 등산 관련 클릭량이 각 연도의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2020년으로 갈수록 상반기(봄철) 기간의 클릭량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등산과 관련한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여지가 있음

□ 등산, 중장년층의 여가에서 전 국민의 여가로 변화 가능성

○ 그동안 등산은 주로 남성, 그리고 40~60대의 연령대에서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여겨져 왔으며, 중장년층이 즐기는 어른들의 활동으로서 젊은 층에서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여가활동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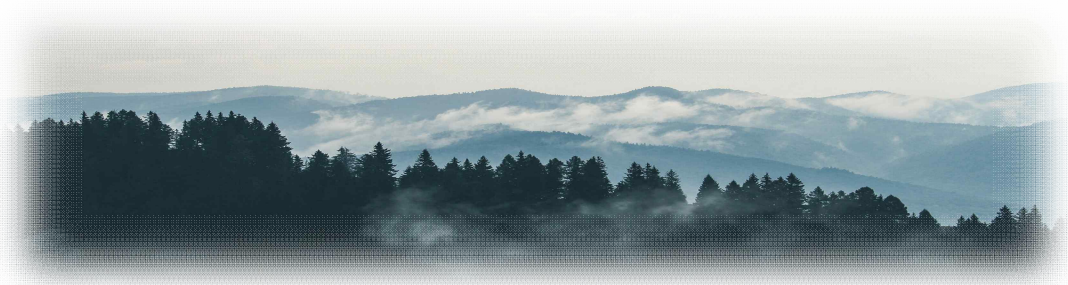
○ 그러나 20-30대의 등산 관련 소비재 구매량 증가, SNS 상의 등산 관련 인증 및 게시물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외 여가활동 및 운동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젊은 층의 등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증대 되는 상황에서 등산은 중장년층의 여가활동에서 전 국민의 여가활동으로서 이미지가 변화할 수 있으며, 개별 활동과 밀집도가 낮은 활동을 선호하게 될수록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 될 수 있음

출처 : 권태일, 김영준(2020). 등산의 재발견, 코로나 시대의 등산 트렌드 변화. 트렌드검색포스트 제24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Ⅱ. 2020 활동 내역

일시	행사명	세부 내용
03 / 31	회장선출	온라인
05 / 07	이사회	대통령기 등산대회 거벽등반 훈련 영호남 합동 산행
05 / 22	정기총회	
06 / 26	연맹조직도 구성	
07 / 02	이사회	재학생 현황 행사일정 및 집행 논의
8/5 - 8/9	연맹하계합동훈련	
09 / 13	이사회	빅월 페스티벌 대통령기 등산대회 ▶ <u>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u> <u>강화로 인해 행사 취소</u>
10 / 08	이사회	연맹제 등산학교 추진
11 / 01	연맹제	
10/31 - 11/15	등산학교	



Ⅲ. 장기산행 보고

부산학생산악연맹 2020 하계 합동 산행 보고서



2020.08.05 - 2020.08.09
영남알프스 일대

1. 등반개요

- 1) 명칭: 2020년 부산학생산악연맹 합동 하계 장기등반
- 2) 대상지: 영남알프스
- 3) 기간: 2020년 8월 5일(수) ~ 08월 9일(일) (4박 5일)
- 4) 목적
 - 장기 산행에 대한 적응력 향상
 - 등반 실력 향상 및 피치 등반 시스템 이해
 -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배양
 - 등산학교 강사 교육

2. 참여대원 명단

■ 재학생 명단

번호	학교 / 학번	이름	비고
1	부산대학교 / 16학번	박동구	
2	동의대학교 / 14학번	이창욱	부분 참여(8/7-8/8)
3	부산대학교 / 16학번	이두영	
4	동아대학교 / 16학번	박상준	부분 참여(8/7-8/8)
5	동의대학교 / 16학번	최지현	부분 참여(8/7-8/8)
6	동아대학교 / 17학번	강동욱	부분 참여(8/7-8/8)
7	부산대학교 / 18학번	손창균	부분 참여(8/5-8/8)
8	부산대학교 / 19학번	서예은	

3. 운행 보고

■ 상세 일정

날짜	일 정	장소	비고
8/4(화)	패킹, 개인/공동 장비 점검	부산대학교	
8/5(수)	석남사-능동산-배내고개		
8/6(목)	배내고개-배내봉-간월산-간월재		
8/7(금)	석남사-능동산-샘물상회		
8/8(토)	샘물상회-천황산-표충사		하산

암벽등반을 고려하였으나 출발 당일부터 비가 한 주간 올 것이라 예보되어 우중 슬랩 등반은 무리라 생각하여 등반장비를 챙기지 않고 출발하였다. 출

발할 때부터 구름은 짙고 비가 약간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였다.

8월 5일 운행도중 비는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였지만 많이 쏟아지지 않아서 등산화가 젖지 않을 정도였다. 능동산을 도착하고 쇠점골 약수터에서 저녁식사를 먹고 배내고개로 내려오니 저녁 9시쯤 되었다. 바로 배내봉으로 올라갔었으나 저녁 11시 경 대원들이 간월재까지 못 갈 것으로 판단되어 배내고개로 다시 하산하여 막영하였다.

8월 6일 간월산에 도착하였을 시 비는 약간 내렸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상에 오래 있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빠르게 간월재로 넘어갔다. 간월재에서 수강신청을 실시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어 대원들의 체력 소모가 심하여 그대로 하산하였다.

8월 7일 석남사까지 걸어간 뒤 후발대 조와 만난 뒤 산행 시작하였다. 석남사에서 능동산, 가지산 갈림길에 올라간 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체온이 뺏기지 않도록 쉬지 않고 샘물상회까지 갔다. 체온을 올리고 쉼 겸 샘물상회에서 매식을 하였다. 샘물상회 주인이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걱정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정찰조를 나눠서 해당 위치를 확인하고 다 같이 간 뒤 거기서 막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막영 위치는 폐가 옆의 소 축사로 쓰이던 곳으로 일부분의 천장은 날라가서 없었으며 문짝도 바람에 뜯겨 굉장한 소음을 유발하였다.

텐트를 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다음 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해당 날 1시간 간격으로 산사태 관련 재난 문자와 호우 정보,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일부 낙동강, 섬진강 유역 침수되어 하산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8일 하산준비를 하고 출발하였다. 등산로 모두 다 침수되어 평균적으로 8cm 정도의 깊이가 되었고 깊은 곳은 20cm 정도의 깊이였다. 샘물상회에서 천황재로 가는 길이 침수되고 계곡이 형성되어 막혀서 샘물상회로 돌아간 다음 천황산까지 올라간 뒤 표충사 방향으로 하산하였다. 이 곳 또한

등산로 모두 침수되어 있었고 10cm 정도 깊이를 형성하였다.

산행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은 장시간 우중 산행을 하여 등산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 외에는 없었다.



[우중 산행 - 천황산 정상에서]

4. 식량 보고

날짜	아침	점심	저녁
8/5(수)			비빔면
8/6(목)	즉석국	라면	매식
8/7(금)	고추장 참치마요 비빔밥	주먹밥	카레
8/8(토)	수프	라면	

* 쌀 : 150g * 4끼 = 600g, 1인당 600g 준비

* 밑반찬 : 개인당 1개 이상 준비 할 것 (김치 제외)

- 이번 산행은 계획보다 일찍 하산하여 많이 남았다. 음식들의 경우 여름 특성상 빠르게 상할 것을 고려하여 출발 당일 NC 백화점에서 구매하였다.

5. 장비 보고

1) 개인 장비

구분	품 명	내용	단위	수량	비 고
운 행 구	배 낭	75L 이상	ea	1	배낭 커버 포함
	어택 or 냅색		ea	1	배낭 커버 포함
	헤드 랜턴		ea	1	
	시계		ea	1	선택
	호루라기		ea	1	선택
	수통		ea	1	
	장갑		pair	1	선택
	스틱		pair	1	선택
	등산화		pair	1	
	샌들 or 슬리퍼		pair	1	선택
	매트리스		ea	1	
	우의		ea	1	
	우산		ea	1	선택
	침낭	하계용	ea	1	
의 류	모자		ea	1	
	보온 의류	윈드재킷, 경량자켓 고어자켓 등	ea	1	가능한 방수 되는 것으로
	상, 하의	긴 것, 짧은 것	ea	자율	여벌 최소 1벌 이상
	버프	(반다나, 스카프) 팔 토시	ea	1	선택
	이너웨어	기능성소재	ea	3	
	양말		ea	3	
기 타	세면도구	칫솔, 수건 등등	ea	1	
	신분증		ea	1	
	개인 기록구		ea	1	
	개인 식기	시에라컵			
	개인 수저		ea	1	
	물티슈			1	
	휴지	두루마리		1	
	선크림			1	
	지퍼백, 비닐봉지	각종 물품 방수용		1	
	선글라스			1	선택 (확보시 유용)
	보조백		ea	1	
	칼, 라이터			1	

2) 공동 장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막 영 구	텐 트	4인용 이상	set	2	팩
	LED등		ea	2	
	그라운드시트	비닐, 방수시트	ea	2	
취 사 구	코 펠	5~6 인용+프라이팬	set	2	프라이팬 부족
	가스 버너		ea	4	
	바람막이		ea	4	
	조미료	소금, 후추, 다시다	ea	2	
	가위, 칼, 집게		ea	2	
	수세미		ea	2	
등 반 구	슬 링		ea	다수	길이 다양하게
	자일	60m	ea	4	
	쿼드로		ea	25	
	카라비너		ea	10	
	너트		set	다수	
	캠		set	다수	
운 행 구	카고 백		ea	1	
	지도, 케이스			1	
	나침반			2	
수 선 구	덕 테이프		ea	1	
	실, 바늘		ea	1	
	잡끈			다수	
기 타	부 기		ea		
	계획서		ea	1	
	지퍼백		ea	다수	
	라이터		ea	5	개인에게 분배
	방충제	모기향 등		다수	
	아미나이프			1	
	건전지			다수	
	쓰레기 봉투		ea	다수	

6. 의료 보고

용도	상품명	수량
진통제, 항염증제	타이레놀	1B
소화제		1개
감기약		1개
변비약		1개
지사제		1개
항생제	후시딘	1개
근육통 소염/진통제	쿨파스	1개
소독제	포비돈 요오드	1개
상처부위의 드레싱	멸균거즈	2포
상처부위의 드레싱	반창고	다수
상처부위의 드레싱	가위	1개
상처부위의 드레싱	핀셋	1개
상처부위의 드레싱	알코올 솜	다수
상처부위의 지혈	붕대	다수
근골격지지, 상처보호	압박붕대	다수
상처부위의 지지	삼각전	4개
해충 기피제	모스키도밀크	3개

- 다치지 않아 의료 용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다. 같이 간 대원 중 이전 사고로 무릎을 아파하여 해당 부위 파스 뿌려서 조치하였다.

7. 회계 보고

날짜	분류	내용	수입	지출
08-04	지원금	83박민호 선배님 지원금	100,000	
08-04	지원금	82조광제 선배님 지원금	100,000	
08-05	선발대	비엔나소세지, 고추장, 된장국, 미역국, 마요네즈, 짜파게티, 립톤아이스티, 김가루, 망고구미, 부탄가스, ABC초코렛, 연양갱, 치즈앤미트스키니, 카레여왕, 트웬스, 너구리, 초코바, 마가레트, 스팸, 비빔면, 참치, 깐양파, 세척당근, 북어국, 		103,470
08-05	선발대	NC백화점 홍대쌀국수 4인		20,100
08-05	선발대	노포-연양 4인		15,200
08-05	후발대	쫄면, 후레쉬베리, 티오레몬스틱, 양갱, 자두캔디, 카누, 대파, 비빔면, 양파, 베이컨, 청량초, 두부, 감자, 애호박, 단백질바, 깐마늘, 파슬리, 스파게티면, 양송이소프, 아리비아따 소스, 다담우렁강된장, 새송이버섯, 새콤달콤		57,980
08-06	선발대	오븐에구운닭 4인		52,800
08-06	선발대	코코 모델		80,000
08-06	후발대	척아이롤, 오리바베큐, 휴지, 종량제봉투		44,810
08-06	후발대	영일캠핑, 깐양파, 다진마늘, 동원/쫄깃골뱅, 오뚜기옛날국수, 지오이		36,320
08-07	후발대	노포-연양 4인		15,200
08-08	합류	샘물상회 7인		48,000
08-08	합류	표충사-밀양버스터미널 7인		24,500
08-08	합류	밀양버스터미널-부산 7인		30,000
08-09	선발대 	선발대 인원 지출	271,570	
08-09	후발대	후발대 인원 지출	154,310	
08-09	합류	합류 인원 지출	102,500	
08-09	지원금	지원금 분배 (총 참석자 8인)		200,000
		합 계	728,380	728,380

8. 총평

이번 합동산행 전반적인 부분에서 비라는 변수가 큰 작용을 하였다. 비로 인해 계획대로 실행하였던 것이 얼마 없었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단체로 장기 산행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코로나 19로 인해 1학기 때 각 단대 별 신입생을 얼마 받지 못하였고 산행이 대체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산행에 참석하는 신입생은 없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2학기가 진행될 것인데 해당 학기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와 또한 앞으로의 과제인 동계 합동 장기산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든다. 그 외에도 현재 막영지가 아닌 곳에서의 막영에 대한 단속이 매우 극심하다. 앞으로 막영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화될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유난히 많이 내렸던 비가 운행을 어렵게 하였지만 그만큼 이번 산행을 더욱 기억에 남게 할 것이다. 비록 이번 산행에서 신입생이 없어 후배를 양성하는 장이 아니었지만 기존 부산학생산악연맹원들끼리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동기들과 이렇게 산행했던 것이 16년도 동계 장기산행 이후 처음이었지만 마치 어제 같이 산행한 것과 같은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낄 수 있었다.

- 부산대학교 16학번 박동구 -

“이번 하계 산행에서 마지막까지 신경써주신 회장님, 고문단, 부회장, 이사님들, 같이 산행 간 YB 선후배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V. B.F.C20 B.S.A.A Fun Climbing School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10/31(토) 연맹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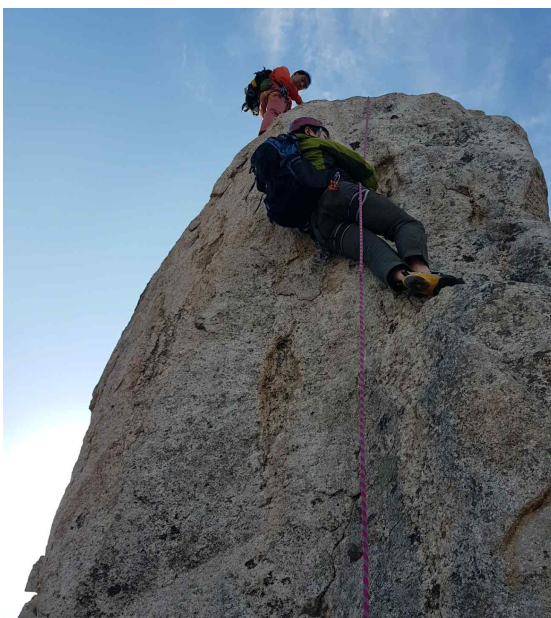
11/01(일) 금정산, 연맹제, 준행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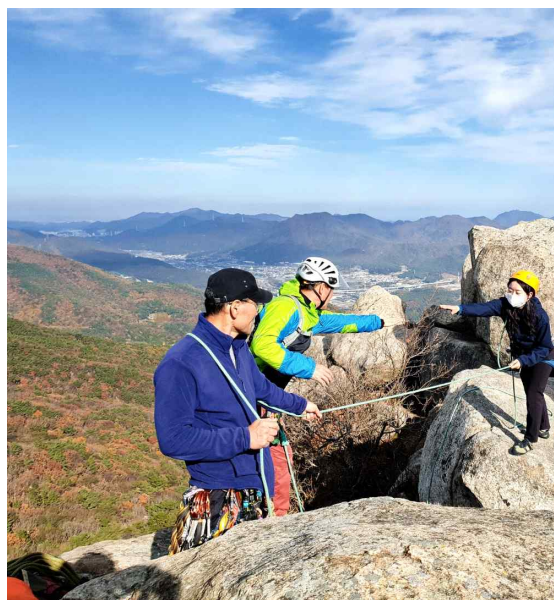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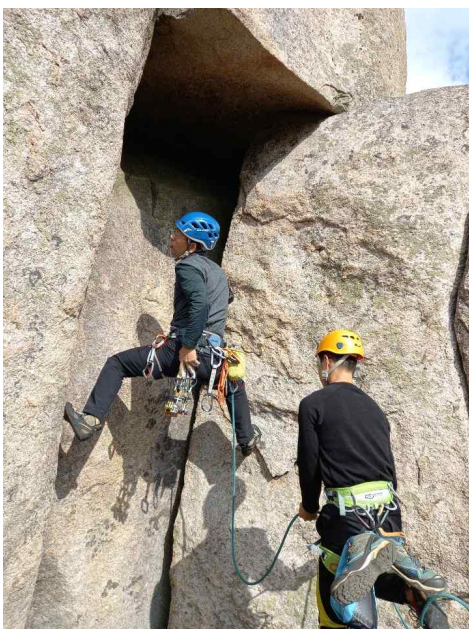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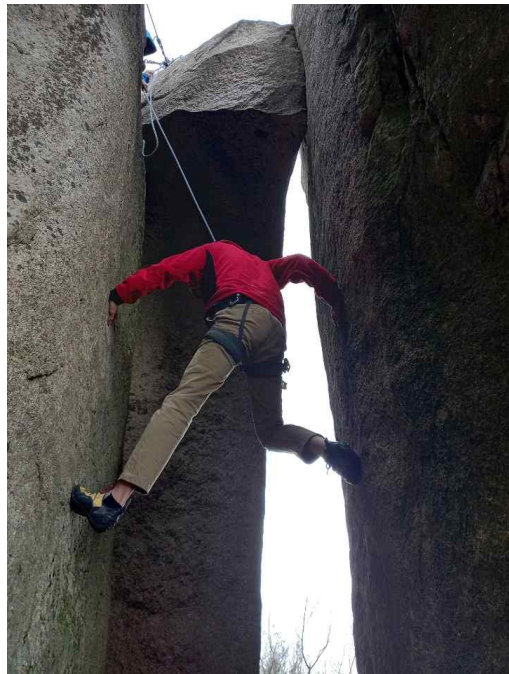
11/07(토) 실내암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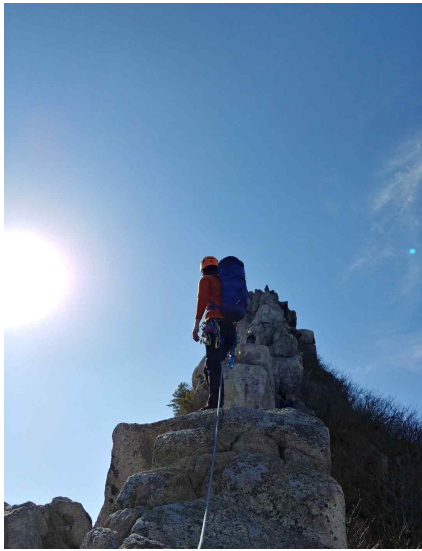
11/08(일) 승학산(암벽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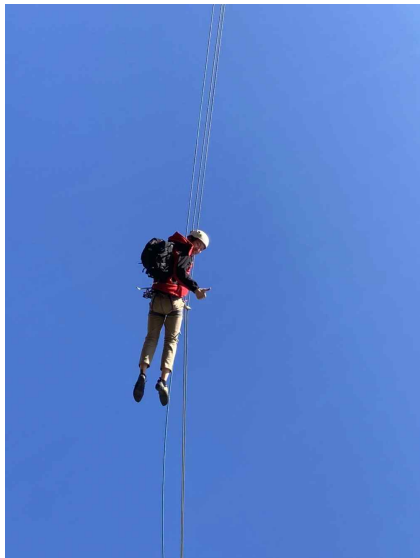
11/14(토) 금정산(나비암)

11/15(일) 금정산(무명릿지)









V. B.F.C21 B.S.A.A Fun Climbing School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

부산학생산악연맹(BSAA) 등산학교 교육생 모집 안내

53년 전통의 부산지역 17개 대학산악부의 연합체인 부산학생산악연맹에서 미래 산악지도자로 성장할 젊고 패기 있는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산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기 교육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 하고자 개강하는 등산, 암벽 교육입니다.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는 많은 경험과 실전을 거친 선배들로 구성된 우수한 강사진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 사업명 : 부산학생산악연맹 부설 등산학교

2. 주최/주관: 부산학생산악연맹(Busan Student Alpine Association)

3. 교육기간

- 기 간 : 2021년 9월 27일(월) ~ 10월 4일(월)

- 이론교육 : 9월 27일(월)(3시간), 10월 1일(금)(3시간)(비대면 zoom 영상강의)

- 실기교육 : 2021년 10월 2일 ~ 4일 **[3일간]**

4. 모집대상

- 부산경남지역 대학 재학생

5. 모집마감

- 2021년 9월 24일(금)

6. 수강료

• 20,000원 (교육생 티셔츠, 교재, 보험료 포함)

• 교육비 납부계좌 : 부산은행 101-2055-4516-03 부산학생산악연맹

7. 입교식 및 수료식

• 입교식 :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입교식 일정은 없으며, 사전미팅 또는 첫 주차 교육 중에 간단하게 진행.

• 수료식 : 2021년 10월 4일(월) 오후 3시 예정(장소 추후 공지)

8. 코로나19 방역 관련하여

- 실기교육 72시간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문자)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 교육 참여 가능.

- 이론교육은 비대면 zoom 강의 및 야외에서의 이론교육으로 대체

- 실기 교육 전 체온 체크 후 37.4° 이상의 경우 교육에서 제외.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교육 참여를 하지 마시고,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열제 등을 복용하시거나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교육을 참가하셔서 교육 진행에 문제가 발생 했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모든 대면 교육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권장 마스크(kf-ad, kf-80, kf-94, kn-95)

착용 및 수시

손소독(손 소독제는 교육 장소에 상시 비치하겠습니다)

9. 문의

* 책임강사 소진호(010-3567-7224)/

기획이사 이승용(010-9047-3948)/

학감 하태웅(010-9637-8848)

1. 등반개요

- 1) 명 칭: 부산학생산악연맹 등산학교(B.F.C21)
- 2) 대상지: 금정산 일원
- 3) 일 시: 2021년 9월 27일(월) ~ 10월 4일(월)
비대면 이론교육(9월 27일, 10월 1일 : 19:00 ~ 22:00)
- 4) 목 적: ① 단결·인내·안전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② 대학 산악부원으로서의 암벽등반에 대한 올바른 등반지식과 기술을 연마
③ OB·YB 합동 등반을 통한 학산 선후배간의 기술 교류

1-1. 이론교육

날짜	교육과목	교육내용	진행	시간	준비물
9/27(월)	오리엔테이션	조편성		60분	교재 필기구
		교육에 필요한 장비 소개			
		매듭법			
	등산의 기초	계획 세우기		120분	교재 필기구
		배낭꾸리기 및 매는법			
		알파인스틱 사용법			
		등산장비 선택			
		등산식량			
		등산장비 선택			
		막영법			
		체온관리			
10/01(금)	등반의 기초	보행법		120분	교재 필기구
		확보의 의미와 종류/방법			
		확보물의 발달, 종류, 설치 방법			
	LNT	안전한 하강과 백업 방법		60분	교재 필기구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상생 흔적 남기지 않기			

1-2. 실기교육

날짜	교육내용	교육장소	집결시간	집결장소
10/02(토)	기초 암벽	금정산 준행암	8:00	금정산 북문
	매듭법			
	장비착용법			
	선/후등자 확보법			
	안전한 하강과 백업 방법			
	슬랩등반 교육			
10/03(일)	암릉 종합등반	금정산 무명암	8:00	금정산 동문
	멀티 등반			
	티롤리안 브릿지			
10/04(월)	직벽등반	금정산 대륙암	8:00	금정산 대륙암
	선/후등자 확보법			
	등강 기술 교육			

*교육생 개인 장비 준비물

- 등산화, 암벽화(신었을 때 발이 편한 사이즈), 안전벨트, 헬멧,
개인 확보줄(PAS, 데이지 체인)
- 코드슬링 8mm (2m), 카라비너(일반 1개, 잠금 4개)
- 복장(간편한 의류, 방수/방풍의 상/하, 보온의류, 여벌옷)
- 하강기(튜브형 권장, ATC 가이드, 리버소4)

2. 참가명단

2-1. 교육생 명단

순번	소속학교	학번	이름	성별	연락처
1	동의과학대	20	김태균	남	010-7289-1242
2	부산교육대	21	류희준	남	010-8423-8084
3	부산대	21	김건희	여	010-5674-3153
4	부산대	20	김도연	남	010-5537-6825
5	부산대	21	도민식	남	010-5213-1873
6	동의과학대	20	손지훈	남	010-3127-4931
7	동아대	20	조현범	남	010-6652-3913
8	부산대	21	서창준	남	010-8575-9496
9	부산대	21	이의지	여	010-3825-4398
10	부산대	21	김해성	남	010-8390-9801
11	부산대	21	짜리	여	010-2199-7347
12	부경대	21	손민주	여	010-3458-8983
13	부경대	21	이정효	남	010-5050-5774
14	부경대	21	장세민	남	010-5048-4787
15	부경대	21	박기범	남	010-8203-1690
16	부경대	21	한서희	여	010-7726-1656
17	부산대	21	홍희진	여	010-4151-1374
18	부산대	21	이효선	여	010-5335-4814
19	부경대	21	박사랑	여	010-5102-1633
20	부산대	21	Preben	남	010-5942-4668
21	부산대	21	Niklas	남	010-6494-6342
22	부산대	21	김가현	여	010-5314-3984
23	부산대	21	조현아	여	010-5285-3817

2-2. 임원 및 강사 명단

직위	이름	연락처	직위	이름	연락처
교장	조광제	010-2814-4307	학감	하태웅	010-9637-8848
책임강사	소진호	010-3567-7224	강사	윤용철	010-6789-5104
강사	김현우	010-2764-2552		황원정	010-4164-1106
	조형래	010-2458-1307		강동중	010-3163-3624
	민인덕	010-4933-4440		손창균	010-8577-9131
	박종홍	010-4210-2061		백종은	010-4031-7554
	류정현	010-3778-0578		한진석	010-9635-8464
총무	김병진	010-7227-2678	기획	이승용	010-9047-3948

3. 회계 보고

구분	적요	수입	지출
회비	교육생 총 23명 x 20,000	460,000	
찬조금	서성호기념사업회	1,000,000	
	정지택고문	300,000	
	최태식(과기대80)	500,000	
	학산 골프회	500,000	
	조광제회장	363,000	
	박민호부회장	100,000	
	유영근동대회장	100,000	
	정금이고문	300,000	
합 계		3,623,000	

물품구입	코드슬링 구입		53,900
	현수막, 스티커(천화동명)		55,000
	문구류		12,500
	소 계		121,400
식대	강사모임 식대		92,630
	강사예비모임 식대		55,000
	강사뒷풀이 (10/2. 땡초집)		214,000
	강사뒷풀이 (10/3, 초원산장)		363,000
	수료식 저녁 식대		667,700
	소 계		1,392,330
상품구입	교육생 상품(OK mall)		517,390
	교육생 상품(쿠팡)		215,000
	책임강사상품권 (10만원)		760,000
	모다아울렛(티셔츠)		100,000
	소 계		1,592,390
합 계		3,623,000	3,106,120

*물품찬조 - 하태웅 햄버거 20개

4. 총평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등산학교는 개최하지 못했다. 회장님의 임기 2년차인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로 엄두가 안 났다. 많은 고민 끝에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어떻게든 등산학교를 개최하고 싶었다. 몇 년씩 학감으로 수고하셨던 선배님들께 부탁드려봤으나 힘들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긴급 임원진 회의 끝에 내가 학감을 맡아 진행을하기로 하였다. 교육신청을 받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출발이 좋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4단계까지 가는 상황이 반복되어 2번의 연기 끝에 최초 신청했던 교육생들도 혼란이 오고 신청과 취소가 반복되었다. 결정을 해야만 했다. 장고 끝에 5명 이상이면 무조건 열기로 결심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했다. 회장님의 결단으로 통과가 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갔다. 이전 경험이 축적된 김병진 이사, 이승용 이사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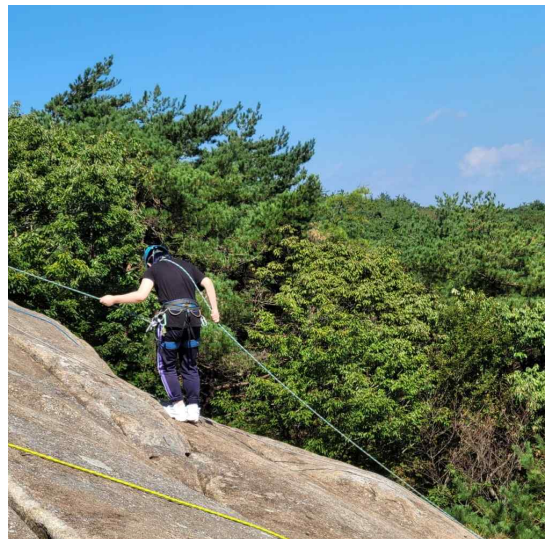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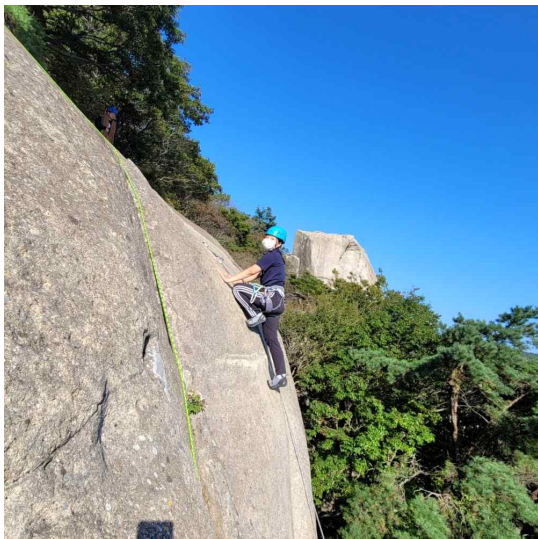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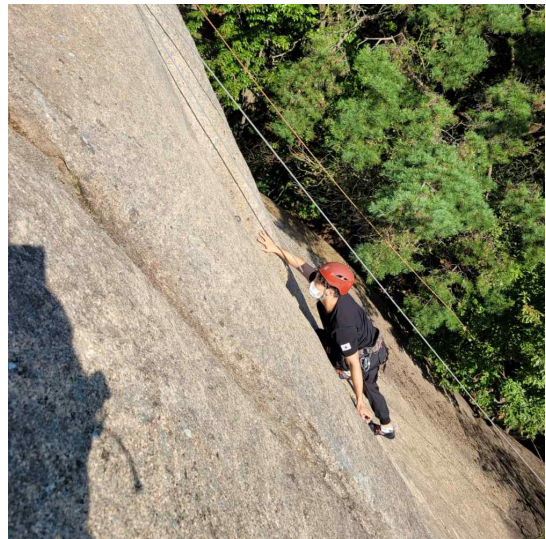
실전 등반에서 많이 떨어진 내가 교육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책임강사 선정에 공을 들였다. 예전부터 부산연맹 교육을 받을 때 인상 깊었던 부경대 소진호 후배가 떠올라 부탁을 했다. 진호가 늦둥이들이 있어 일과 가정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장 바쁠 나이대 인 것이다. 그래도 흔쾌히 책임강사를 맡아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책임강사를 맡은 진호가 종홍이와 등반을 꾸준히 다니고 있는 후배들을 모아 강사진을 꾸렸다. 강사들 손발을 맞추기 위해 예비트레이닝을 하고 온라인 강의 자료도 만들고 강의도 하면서 등산학교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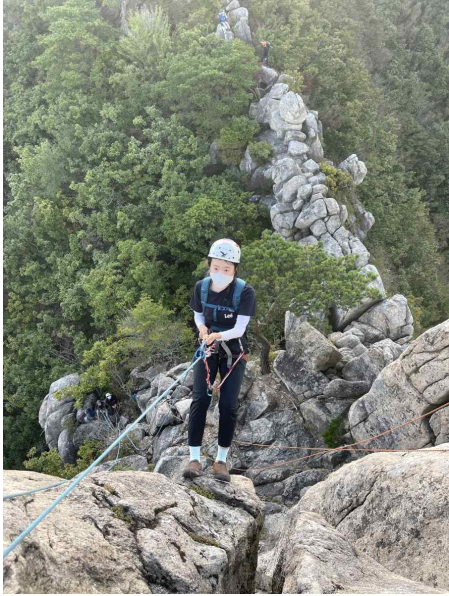
3일간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는 등산학교는 처음 시도해 보았다. 금정산을 매일매일 새벽잠 설치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교육생들의 열의는 뜨거웠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등반 열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강사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후배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순간 정말 감동했다.

학감으로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등산학교를 마침에 감사드리며, 항상 후배들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주시는 고문님, 회장님, 선·후배님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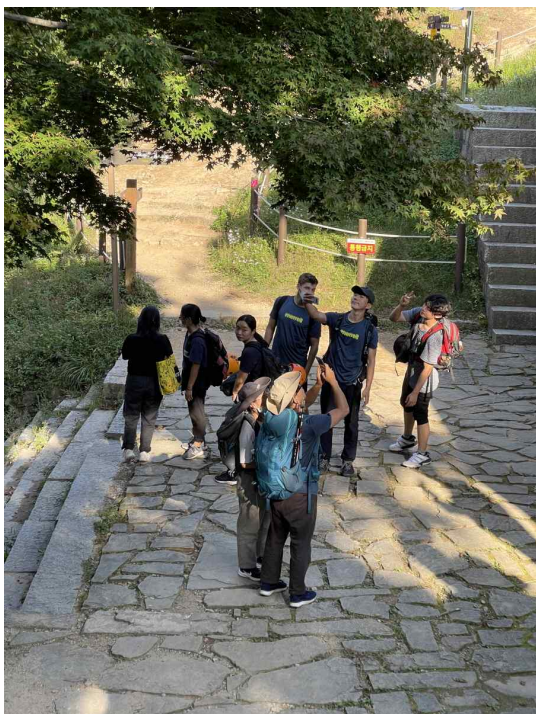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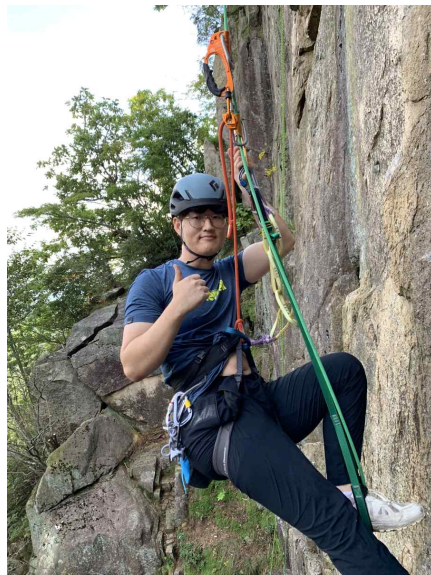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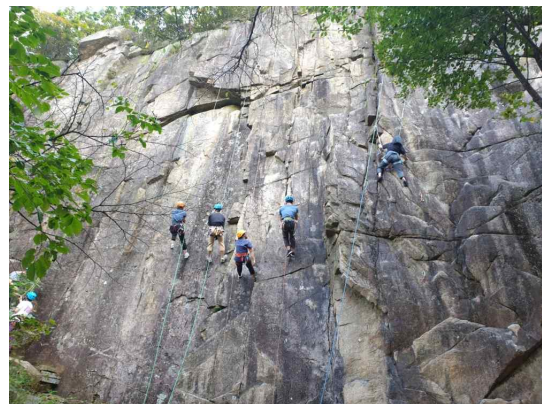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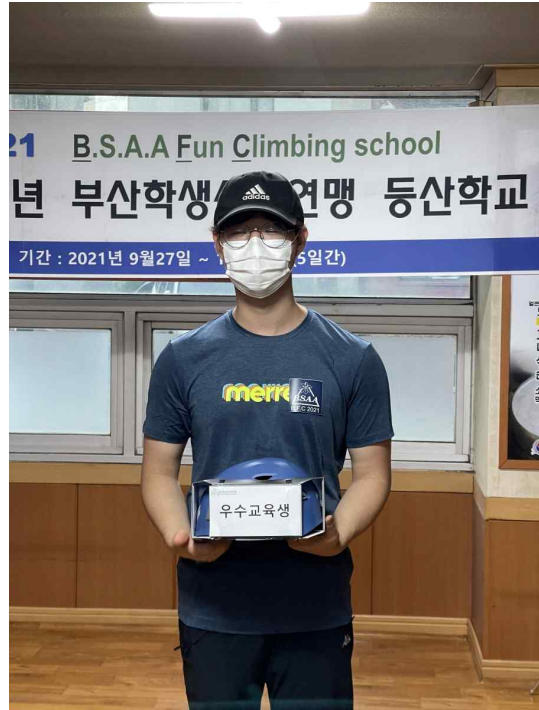












VI. B.F.C 21 B.S.A.A Fun Climbing School

부산학생산악연맹 동계등산학교



1. 등반개요

- 1) 명 칭: 부산학생산악연맹 동계등산학교(BFC21)
- 2) 대상지: 전북 완주군 병풍바위 빙벽장
- 3) 일 시: 2022년 1월 16일 ~ 22일(6박 7일)
- 4) 목 적: ① 단결·인내·안전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② 빙벽등반에 대한 올바른 등반지식과 기술을 연마
 ③ 적설 등반을 통해 흰 산에 대한 열망 및
 대학 산악부원으로서의 자긍심 공유
 ④ OB·YB 합동 등반을 통한 학산 선후배간의 기술 교류

2. 참가명단

2-1. 교육생 명단

순번	이름	소속	학번	성별	혈액형	연락처
1	강혁준	한국해양대	21	남	AB	010-2899-0751
2	김나영	한국해양대	21	여	A	010-8725-1529
3	신우현	한국해양대	21	남	A	010-5801-5006
4	전현민	한국해양대	21	남	AB	010-6671-3675
5	이의지	부산대	21	여	O	010-3825-4398
6	김도연	부산대	20	남	B	010-5537-6825
7	도민식	부산대	21	남	A	010-5213-1873
8	홍희진	부산대	16	여	A	010-4151-1374
9	이호선	부산대	21	여	B	010-5335-4814
10	문정현	부산대	21	여	A	010-9931-2319
11	김민재	동아대	17	남	A	010-3558-4588
12	조현세	동아대	18	남	A	010-4242-5876
13	이호선	동아대	19	남	A	010-9896-6727
14	조동기	동의대	17	남	O	010-5114-8852
15	한준우	동주대	17	남	O	010-5291-0392
16	황선재	경성대	16	남	B	010-8509-3815
17	하늘	인제대		남	AB	010-9637-0380

2-2. 임원 및 강사 명단

직위	이름	연락처
교장	조광제	010-2814-4307
학감	하태웅	010-9637-8848
책임강사	김지성	010-3579-3392
강사	백광운	010-7475-4414
강사	이동열	010-4730-6729
강사	최민수	010-3401-4431
기획	김병진	010-7227-2678
총무	이승용	010-9047-3948

3. 운행보고

3-1. 1차 예비트레이닝

1)일 시: 2022년 1월 2일(일)

2)대상지: 밀양 석골사 천상폭

3)참 석: 강사 - 하태웅 학감, 김지성 책임강사, 백광운 강사, 이동열 강사
김병진 기획이사, 이승용 총무이사

교육생 - 김나영, 김도연, 김민재, 신우현, 이의지, 이효선,
전현민, 조현세, 홍희진, 하늘

4)교육내용: 1) 교육생 장비체크 및 착용법

2) 각 대학 보유 장비 점검

3) 스윙 및 프론트 포인팅

5)학감총평)책임강사의 의견에 따라 동계 예비트레이닝을 준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주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교육생 빙벽화가 제각각이었으며, 아이젠 장착이 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동계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다. 천상폭이 기초교육하기에는 좋았으나 어프로치가 너무 길어 교육시간이 살짝 아쉬웠다. 다음번에는 1박 2일 비박을 하여 교육해도 좋을 듯싶다.

책임강사총평) 먼저 예비트레이닝을 하고 싶었던 이유

- ① 동계 참석자들의 성향 및 능력을 미리 보고 싶었음
- ② 동계 장비의 적정성 준비부분을 미리 체크해봄
- ③ 기본적인 교육(프랑스, 독일 기술)을 해서 짧은 동계를 기본교육에서 한 단계 발전한 본 교육을 바로 시작했으면 했음

위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했으나 일부 참석자들의 불참으로 대원 간 교육의 불일치가 동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안타까웠다. 하지만, 장비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참여자들의 성향 파악과 기본 교육은 본 동계를 더욱 알차게 시작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어 좋았다고 생각한다.

4) 예비트레이닝 참가기

부산대 21학번 이효선

본격적인 동계 등산학교를 가기 전 빙벽 기초를 다듬고자 예비 트레이닝에 참가하였습니다. 오전 6시에 부실에서 모이기로 하기로 했고, 첫 빙벽 등반이라 설레이기도 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도 먹고 등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빙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기에 동아리 선배님께 여쭙본 결과 다른 것 보다 추위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최대한 얇은 옷으로 여러 겹 겹쳐 입었는데 이것이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부실에서 노포역까지는 택시로 이동하였고, 노포역에서 석골사까지는 이승용 선배님께서 태워주셔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석골사에서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천상폭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얼마나 추울지 예상이 안 되어 최대한으로 끼입은 옷은 어프로치 10분 만에 버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한 겹만 남겨두고 다 벗어 배낭에 넣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정말 죄송했던 것 같습니다. 어프로치는 약 2시간이 걸렸는데 길이 험해서 꽤 힘들었습니다. 어프로치에서 힘을 다 빼서 천상폭에 도착하니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천상폭에 도착하여 이중화와 아이젠을 착용하고 김지성 선배님의 지도하에 아이젠 깡깡을 연습하였습니다. 빙벽 등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 하셔서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상 짧게 아이젠 깡깡을 연습하고 바일을 잡고 매달려 프론트 킥 연습과 X바디를 연습하였습니다. 빙벽을 오를 때 발을 어디에 디딜 지 보고, 안정감 있게 오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중화를 부실에 있는 걸로 사용하였더니 사이즈가 커 발목이 계속 눌었고, 아이젠을 받쳐주는 부분이 부서져 아이젠이 이중화 속으

로 계속 파고들어 연습을 하기에 불편했고, 발을 못 믿으니 빙벽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습을 하고 나니 점심을 먹을 시간이라 챙겨주신 만두와 어묵을 넣고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불을 안 끄고 그냥 먹는 바람에 라면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지만 도연오빠가 다 먹어주어 할당량을 헤치웠습니다. 이후 선배님께서 고기를 구워 가져다 주셔서 맛있게 먹고 오후 연습을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등반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빙벽에 붙었을 땐 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고 무서워서 조금 올라가다가 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성 선배님과 함께 프론트킥 연습과 ,X바디 연습을 계속 하다가 다시 빙벽에 붙었습니다. 확실히 연습을 더 하니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벽등반은 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발을 어디에 디더야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더 무섭고 약간 악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빙벽등반은 바일과 아이젠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수월했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빙벽을 한번 오르고 나니 약간의 재미와 흥미가 생겼는데 다시 주차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바로 철수를 하여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산하고 나니 등산화가 없어서 신은 부실 등산화는 밑창이 떨어졌고, 안 맞는 신발 때문에 발이 계속 힘들고 아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김지성 선배님께서 해장국을 사주신다고 하셔서 밥은 못참지라는 생각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역시 산행 후 먹는 음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선지 해장국은 이 날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맥주와 함께 선지해장국을 먹고 이승용 선배님께서 문창회관 앞까지 태워주셔서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배님들 덕분에 편하게 이동하고, 평소 경험해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가 빙벽을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여러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항상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등반 기술을 가르쳐 준 김지성 선배님, 항상 부산 학산을 위해 신경써주시고 챙겨주시는 하태웅 학감님, 차량을 제공해주신 이승용선배님, 뒤에서 계속 챙겨주신 이동렬선배님 이 외에도 항상 저희를 신경써주시고 찬조해주시는 모든 선배님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도연오빠와 회진언니 덕분에 심심할 수도 있었던 예비트레이닝이 더욱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3-2. 2차 예비트레이닝

- 1)일 시: 2022년 1월 9일(일)
- 2)대상지: 밀양 표충사 학암폭
- 3)참 석: 강사 - 하태웅 학감, 김지성 책임강사, 김병진 기획이사,
이승용 총무이사
교육생 - 김나영, 김도연, 김민재, 도민식, 신우현, 이의지,
이효선, 전현민, 홍희진, 하늘, 한준우, 조동기, 문정현
- 4)교육내용: 1)바일 타격 및 프론트 포인팅
2)N-body
3)확보물 설치
4)선등 훈련

학감총평)어프로치가 편하고 좋아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주말이라 일반산악회의 획스로프가 많아 조금 불편했다. 상단 쪽의 직빙도 곤잘 등반 하였다. 짧은 거리지만 선등훈련이 좋았다. 처음 참석한 교육생들을 위해 학암폭 아래쪽에서 초급교육도 할 수 있어 좋았다. 여기도 1박 2일 비박 훈련을 겸해 교육장소로 이용해도 손색이 없겠다. 이 자리를 빌려 주말 예비 트레이닝마다 차량 지원해 주신 김병진, 이승용 이사들께 감사를 드린다.

책임강사총평)1차에 참석한 인원 중 2차에 참여한 몇몇 대원은 탁월한 습득력을 보였고 진도를 나가 선등과 스크루 사용법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어프로치도 가까워서 즐거운 등반이었다. 대원들과 친해지는 시간이었고 동계에 들어가서 2차까지 참여하고 습득한 기본 기술로 많은 대원의 동계등반이 빠르고 즐거운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좋았다. 추후에도 예비트레이닝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필참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5)예비트레이닝 참가기

동아대 20 학번 김민재

1월 9일에 2차 예비 트레이닝으로 학암폭포를 갔다. 학암폭포는 표충사에서 출발해서 어프로치 1시간 안에 갈 수 있었다. 1차 예비

트레이닝 장소였던 천상폭포 때랑 달리 어프로치 난이도가 아주 쉬웠다. 비포장이지만 넓게 정비된 길을 따라 완만한 오르막을 40 분, 가파른 산길을 10 분 정도 이동하면 학암폭포가 나타난다. 올라가는 길에 학암폭포에서 흘러나오는 첩발골도 얼어있었는데, 선배님께서 첩발골의 얼음계곡을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셨다. 학암폭포는 어프로치도 짧고 1차 예비 트레이닝보다 일찍 출발해서 9 시쯤 폭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학암폭포는 높이가 30m~35m 였다. 예상보다 많이 높은 높이였고 높이가 높은 만큼 낙빙이 아주 심했다. 1차 예비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오전에 바로 빙벽을 오를 수 있었다. 빙벽의 높이가 높고, 크릭스 부분은 빙벽의 각도가 직각에서 오버행 정도로 가파르고, 고드름으로 이루어진 빙질이어서 한번 등반을 하는데 30 분에서 40 분 정도 소요된 것 같다. 오전 등반은 탑로핑으로 한번 등반하고, 확보를 보는 것만으로 시간이 다 갔던 것 같다. 오전에 오른 루트는 아직 많은 사람이 타지 않아서 손자리, 발자리를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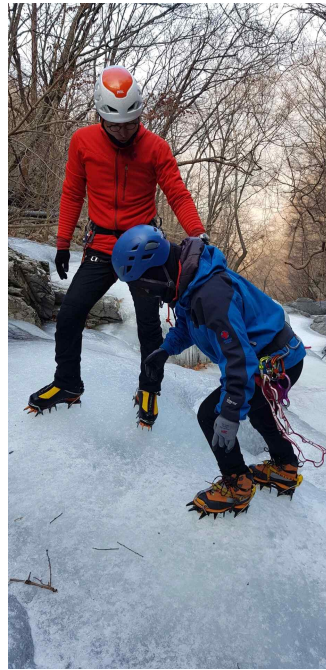
점심은 계곡의 얼음을 깨고 아래쪽에 흐르는 물을 받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지난주에 물이 끓는 데 오래 걸려서 이번엔 초코바를 먹으면서 기다리니 금방 물이 끓어올랐다. 라면에 만두와 어묵도 함께 넣어 끓여 먹었다. 점심을 먹고 계곡에서 뒷정리를 하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오른발이 빠졌었는데 빙벽화가 외피가 플라스틱으로 된 이중화여서 물이 빙벽화 안에 다 고이고 발이 다 젖었다. 겨울이라 동상의 위험이 있어서 빙벽화를 벗어서 가스불로 발과 양말, 빙벽화를 말리면서 기다렸다. 다행히 기온이 영상이고, 어느 정도 말라서 동상은 걸리지 않았고, 오후에 등반을 시작하니 금방 몸이 달아올라 말랐던 것 같다.

오후에는 오전에 올랐던 루트를 한 번 더 올라봤다. 확실히 한 번 해봤던 길이어서 그런지 크릭스도 크게 어렵지 않았었다. 그리고 얼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해서 그런지 바일이나 크램폰이 더 잘 박혀서 등반이 수월했다. 등반을 한번 한 이후, N바디 동작을 배웠다. N바디 동작은 한 팔과 한발로 체중을 버티면서 오르는 동작이었다. 오른쪽 바일을 높게 찍으면 왼발을 높게 올리고 오른발은 버려서 중심만 잡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동작을 줄여서 빠르게 등반을 하는 자세이다. N바디를 배우고 가장 첫 순서로 등반을 시작했다. 루트도 처음 해보는 루트에 크릭스부분은 오전에 했던 루트와 같은 부분이어서 오전에 했던 루트보다 어려웠던 것 같지만 N바디를 활용하니 훨씬 수월하게 등반을 할 수 있었다. N바디는 암벽에서도 자주 쓰던 자세랑 유사해서 그런지 오히려 X바디보다 더

자연스럽게 등반을 할 수 있었다. 바일을 조금만 더 높고 멀리 찍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고, 다음 등반에서 더 좋아진 자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됐다.

하산도 역시 준비가 잘 된 길 덕분인지 함께 얘기를 하며 내려가니 금방 내려올 수 있었다. 등산학교를 신청하면서 지급받은 어택 배낭도 몸에 잘 맞아서 하산이 더욱 편안했다. 하산 후, 선배님께서 집까지 데려다주셔서 등반 얘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오자마자 한 일을 장비 건조... 오늘은 지난주보다 장비가 더 많았었다. 다음 주에는 대망의 등산학교이다. 6박 7일의 일정으로 떠나게 된다. 부상 없이 재밌게 즐기면서 많이 배우고 오고 싶다. 베이스캠프에서 지내는 것이 조금 걱정이지만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주가 기대된다.





3-3. 동계등산학교

순 번	날짜 (요일)	일 정	주간 교육(08:00 ~ 16:00)		야간 교육 (19:00 ~ 21:00)
			초급	중급	
1	1/16 (일)	부 산 - 완주	09:30 집결-10:00 출발-전세버스-B.C구축 기초교육(장비 설명, 장비 착용, 튜닝)		이론/ 조별토론
2	1/17 (월)	병풍 바위 빙장	스윙기술, 프론트포인팅, X-position		
3	1/18 (화)		스윙기술, 3지점	ZigZag position, 확보물 설치	
4	1/19 (수)		확보물 설치	N-position, 오버행 등반	
5	1/20 (목)		선등 훈련, 크레바스 탈출		
6	1/21 (금)		아발라코프 확보		뒤풀이
7	1/22 (토)	완주 - 부산	B.C 철수 - 13:00 차량 탑승		수료식

4. 장비보고

4-1. 개인장비

구 분	품명	수량	비고	
막 영	침낭	1	동계용 (1500g이상)	겨울야영에서 가장 중요함
	침낭커버	1		침낭 커버는 겨울에 침낭이 젖지 않게 만드시 준비하는 장비로 매우 중요함.
	매트리스	1	롤매트	
등 반 및 운 행	배낭	1	70L이상	카고백도 가능
	배낭커버	1	선택	
	어택배낭	1	30L전후	나누어준 어택 배낭

	이중화	1		
	크램폰	1		
	아이스엑스	2	바일	반드시 고무호스로 피크 보호요망
	일반 등산화	1		
	헤드랜턴 #2	1	여분건전지 1세트	
	수통 및 수통커버	1	1리터	날진수통
	스패츠	1		
	안전벨트 등 #1	1		
	헬멧	1		등산학교 명찰 부착 요망
	설상용 피켈	1	바일로 대체 가능	
	스틱	1	선택	
	자외선차단제	1		
	장갑	2	얇은 것 2개	
	슬리퍼	1	막영지 사용	
	휴지	다수		
	개인식기, 수저	1	스펠(스텐), 수저	개인 식기는 개인이 보관 및 설거지
	세면도구	1세트	막영지 샤워장 있음	헤어드라이어도 가능(전기사용 가능)
의 류	오리털과카 상	1	하의도 있으면 준비	의류는 베이스에 계속 있고 차량 이동하므로 넉넉히 준비해 오기 바람
	방수옷 상하	1	상의와 하의 준비	
	긴팔티	2		
	긴바지	2		
	속옷	2		
	내의	1		
	양말	3		
	모자	1	비니	
	바라클라바	1		반드시 준비 요망
	고글	1	선글라스	

**짐을 쌀 때 김장용 대형비닐을 먼저 넣고 소포장한 옷을 포장 시
등반기간 내 의류가 습기가 없어 쾌적할 수가 있음.

**개인장비 이름표시하여 분실 방지할 것.

**#1. 안전벨트, 하강기, 데이지체인, 카라비너(안전 2개, 일반 2개),
라운드슬링 5미리 10미터, 피피 1개

**#2. 헤드랜턴은 USB충전식 안 됨.

책임강사)대체로 준비는 잘된 것으로 파악됨

단지 등산배낭을 꾸리는 것에 대한 책임적인 교육이 없어서 동계전후의 개
인 배낭의 짐꾸리기가 거의 바꾸지 않은 점은 아쉬웠음

4-2. 공동장비

부산대(숙박 2조, 3조 사용)			
구분			비고
텐트	6인용	2동	
자일	90자	1동	
접이매트리스		2개	대자
버너		4개	호스버너
아이스 스크류		10개	
쿼드로		20개	
코펠		2조	대자
바람막이		2개	
프라이팬		1개	대자

동아대(숙박 4조 사용)			
구분			비고
텐트	4인용	1동	
자일	90자	1동	
접이매트리스		2개	대자
버너		2개	호스버너
아이스스크류		5개	
쿼드로		10개	

코펠		1조	대자
바람막이		1개	
프라이팬		1개	대자

해양대(숙박 1조 사용)			
구분			비고
텐트	6인용	1동	
자일	100자	1동	
코펠		1개	대자
버너		2개	호스버너
접이매트리스		1개	
바람막이		1개	
프라이팬		1개	대자

**숙박 및 준비물은 가능하면, 단대별로 준비를 할 것이며,
등반 조 편성은 매일 매일 책임강사가 판단하여 조 편성.

4-3. 본부장비

연맹 및 강사조 준비물			
텐트	6인용	1동	연맹
자일	90자, 80자	2동	학감, 책임강사
스크류		15개	책임강사
퀵드로		15개	책임강사
슬링	상단확보용	10개	책임강사
코펠	중자	1개	책임강사
버너		2개	책임강사
해바라기 버너		2개	연맹
식강	20리터	2개	연맹
식강용 국자		1개	연맹(다이소)
접이매트리스		2개	연맹

식칼		1개	연맹(다이소)
도마		1개	연맹(다이소)
식가위		2개	연맹(다이소)
반찬담을 접시	스테인리스접시	10개	연맹(다이소)
멀티탭		3개	
가스		36개	취사 및 보온용
주방세제		1개	
수세미		3개	일반2, 철1
행주		4장	
목장갑		1다스	
고무장갑		3개	설거지용
노끈		1마끼	고정, 수리용
덕테이프	수리용	2개	

- ** 높이가 긴만큼 90미터 이상의 동계용 로프를 2동 정도 더 준비했으면 좀 더 많은 대원들이 기다리지 않고 등반이 가능했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음 .
- ** 아이스크루와 아이스 바일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힘이든 부분이 있음. 정비 장비는 가지고 갔으나 귀찮아서 주로 강사들의 아이스크루를 사용했는데 스크루의 정비는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다음에는 동계 전 서울 장비점에 대량으로 보내 정비를 해 보는 것도 검토해볼 부분이라 생각됨

5. 식량보고

식 단 표				
날짜	아침	점심	저녁	특식
16일		김밥	B1	
17일	C1	A1	B2	
18일	C2	A1	B3	
19일	C3	A2	B4	삼겹살
20일	C4	A2	B5	
21일	C5	A2	B6	수육
22일	C6			

A1	라면, 물만두	C1	떡국
A2	라면, 떡국	C2	떡국
B1	쌀식, 배추된장국	C3	떡국
B2	쌀식, 카레라이스	C4	떡국
B3	쌀식, 참치김치찌개	C5	떡국
B4	쌀식, 소고기미역국	C6	떡국
B5	쌀식, 콩치찌개		
B6	쌀식, 감자된장찌개		

구매 수량		
아침: 떡국떡 23인분* 6끼, 계란 3판, 대파 5단		
점심: 라면 25*5=125개, 물만두 5봉지*2=10봉지, 떡국떡 25인분*2		
저 녀		
B1	쌀 20컵	배추2포기, 두부3모, 대파3포기
B2	쌀 20컵	감자10개, 당근5개, 양파10개, 카레25인분 양
B3	쌀 20컵	참치캔7개, 양파 5개, 대파 3포기개
B4	쌀 20컵	소고기적당량, 미역25인분,
B5	쌀 20컵	콩치캔 7개, 양파5개, 대파 3포기, 김치
B6	쌀 20컵	감자10개, 양파5개, 대파3포기,

**여분 핫반 30개 준비

**어묵탕 꺼리 5일치

양 념		
국용된장	대자	1통
빵은 마늘	대자	3봉지
국간장		1병
진간장		1병

반 찬		
김치	10KG	연맹지원
멸치복음	20명	6끼
깻잎	20명	6끼
포장김	20명	5팩

참기름		1병
맛술		1병
쌈된장	대자	1통
고추장	대자	1통
소금	중자	1봉
다시다		1봉
고체육수		2봉
식용유	대자	1봉
후추		1병
설탕		1봉지

장조림	20명	6끼
-----	-----	----

간 식		
꿀		2박스
초코바	25*5	125개
황도캔	6조*5일	30개
비스켓	6조*5일	30개
사탕	6조*5일	30개
콜라		5병
사이다		5병
소주	1리터	10병
맥주		30캔

차 류		
커피	믹스	50개
커피	노슈거	20봉지
녹차		20봉지
쌍화차		다수
꿀		2병
보리차		물끓이기용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빨리 정하지 못하다보니 식량계획도 뒤로 미뤄지기만 했다. 베이스캠프 형식의 등산학교로 운영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식량을 혼자서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다보니 교육생들이 각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해 못내 아쉽다. 25명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다보니 엄청난 양의 식량박스가 쌓여만 갔다. 이 자리를 빌려 구입한다고 고생하고 몸살난 집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교육 기간 중 방문해 주신 손중호 대산련회장님의 삼겹살 12kg 덕분에 미리 준비해 간 불고기와 더불어 교육생들이 오전 교육마치고 매일 고기 보충을 해준 게 나름 보람 있었다. 개인식기를 각자 관리하라고 했는데 지켜지지를

않았다. 개인식기가 섞여서 조금 불편하였고, 큰 코펠이 약간 부족하였다. 큰 식량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였다. 차를 종류별로 준비하였으나 믹스커피만 모자랄 뿐 많은 종류가 남았다. 가스도 각자 텐트 생활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절반이상 남았다. 아침마다 떡국을 준비하는데 떡국도 절반이상 남았다. 떡국 끓인다고 고생한 조현세 학생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다음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교육이 실시될 경우 부산에서 전체 식량을 준비해가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모자란 듯이 준비하고 현지 조달도 하면 식량 낭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6. 의료보고

구 분	품 명	수 량	비 고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10정	
	타이레놀	20정	종합감기
소화기용	정로환	10정	소화제
	로이디펜	10정	지사제
기타	아쉬그로버	입술포진 진정제	1개
	레모나	2팩	비타민
외상용	스프레이 소염진통제	1	
	후시딘	1	
	메디폼	1	
	소독거즈	다수	
	압박붕대	1	
	반창고	1	
	파스	3	
	일회용밴드		
	핀셋	1	
	가위	1	
	동상연고	1	

**주중 교육이라 빙벽장이 혼잡하지 않아 낙빙의 위험은 적었던 것 같다. 가벼운 찰과상 정도의 의료용품만 사용되어졌다. 테이핑용 테이프가 없어서 아쉬웠다.

7. 회계보고

수 입			
구 분	항 목	금 액	비 고
회비	교육생 참가회비	2,700,000	18명*150,000원
찬조금	부산대 산악회	200,000	
	부산연맹지원금	500,000	
	성기진(동대85)	750,000	배낭 구매 지원
	인제대 산악회	200,000	
	조광제 회장	500,000	
	윤계욱(동과92)	100,000	
	박민호 부회장	200,000	
	정인숙(동주88)	100,000	
	이동본 고문	100,000	
	정영훈(부대92)	200,000	
	이상주(춘해88)	100,000	
	정지택 고문	500,000	
	유영근 동대회장	200,000	
	안명선 자문위원	100,000	
	최태식(과기대80)	500,000	
	서성호 기념사업회	1,000,000	
	동아대 산악회	300,000	
	조벽래(동대88)	100,000	
	황순철 고문	100,000	
	정민규 고문	100,000	
합 계		8,550,000	

****물품 참조**

손중호(대산련회장) - 삼겹살 12kg, 소주 2박스
 부산연맹(최재우) - 본부텐트 캐빈형(콜핑) 1동
 양한모(대산련 청소년위원장) - 흑곶감 2박스
 임용혁(해대83) - 10만원 상당 고기, 사과1박스(1/9 예비트레이닝)
 박민호부회장 - 김밥 50줄/ 김재형(과기대90) - 20만원 상당 고기,
 유영근(동대회장) - 찜빵 1박스, 만두 1박스/ 이재규(동대91) - 쿨 3박스
 이언화부회장 - 의료용품 일체/ 이반형(동대81) - 피자 5판, 음료
 김인숙(동대82) - 오뎅꼬지 100개
 김병률(조선대99) - LPG가스 및 의료용품
 해대OB(임원록90, 김환세95) - 치킨 10마리

지 출		
항 목	금 액	비 고
어택배낭35L	1,500,000	호프힐 6만원*25개
예비트레이닝	200,000	100,000*2회
전세버스 대절(2일)	1,500,000	16일, 22일 편도 2회
고기 및 가스	220,000	고기(김재형), LPG충전
상장	6,350	
플랭카드	30,500	
우수교육생상	122,760	
그라운드시트	40,000	20M
주방용품, 생수	164,500	
캠핑장 이용료	1,200,000	텐트5동*40,000원*6일
빙벽장 관리인 지원	300,000	
강사비	400,000	100,000*4명
식량비	934,324	세부내역 참조**
간식비, 주차료	151,610	
합 계	6,770,044	

**식량비 세부내역

주 식		
쌀20kg	1포	45,520
햇반210g	36개	29,440
떡국800g	35봉	58,800
라면	144봉	68,480
진라면 순한맛 40봉/16900원 진라면 매운맛 40봉/16520원 참깨라면 32봉/21320원 오동통 32봉/13740원		
사각어묵1kg	5봉	26,250
어묵600g	5봉	18,700
물만두1kg	3봉	14,940
소 계		262,130

차 류		
블랙커피	100T	5,795
믹스커피	50T	5,795
녹차	50T	2,750
쌍화차	30T	5,000
생강차	30T	5,000
핫코코아	60T	9,790
유자청1kg	2병	9,900
KY천마차	80T	19,000
소 계		63,030

간 식 류		
자유시간-아몬드	2팩	12,800
몽썰통통6개	6박스	10,860
초코다이제스티브	10박스	16,950
달고나사탕	2kg	12,400
복숭아 통조림	35개	35,000
텔몬트후르츠각테일	6개	18,000
닥터유프로틴바	2봉	21,980
쿨	2박스	20,000
소 계		147,990

양 념 류		
국간장930ml	1병	5,250
진간장860ml	1병	4,500
참기름500ml	1캔	5,990
고추장2kg	1통	12,790
된장2kg	1통	6,790
쌈된장1kg	2통	7,300
맛소금250g	2개	1,900
다시다250g	3병	0
식용유1.5리터	1병	5,000
후추100g	1통	4,450
맛술900ml	1병	3,680
설탕	지퍼백	0
가쓰오장국	2병	5,360
고체육수105g	2병	18,390
다진 마늘500g	1통	7,980
소 계		89,380

부식 재료		
참치캔3kg	1개	19,990
꽂이캔400g	10개	23,650
양파10kg	1박스	11,120
감자10kg	1박스	14,220
자른 미역80g	3개	6,888
김자반60g	6개	8,970
카레1kg	1개	4,720
당근	2kg	5,960
대파	3단	5,208
달걀25개	4판	22,344
배추	2포기	5,420
두부	3모	4,920
소 계		133,410

음료 및 주류		
콜라1.8리터	5병	11,200
사이다1.8리터	5병	11,200
소주1.8리터	6병	24,570
맥주357ml	24캔	27,390
소 계		74,360

반찬류		
전장김20g	18봉	17,980
종가집깻잎1kg	2봉	16,030
종가집무우말랭이1kg	2봉	20,000
꼬들단무지1kg	2봉	9,500
낙지젓갈2kg	1통	25,000
스팸340g	6개	21,990
소 계		110,500

기 타1		
키친타올	1개	1,000
1회용비닐팩	250매	1,980
1회용비닐장갑	125매	1,680
고무장갑	3개	4,824
목장갑	10개	3,410
수세미	4개	1,780
철수세미	1개	1,000
행주	6개	1,760
풍 풍	1개	2,000
보리차	30T	2,090
종이접시		0
소 계		21,524

기 타2		
덕테이프48mm*32m	1 개	15,140
3구 멀티탭 10m	3개	45,000
식칼,과도세트	2개	23,500
캠핑부탄(소)	25개	50,000
캠핑부탄(대)	5개	15,000
두루마리 휴지30개		11,350
소 계		159,990



8. 총평

학감)코로나-19 상황으로 학산 행사들이 원활이 개최되지 않아 집행부의 고민이 깊어질 때 회장님의 결단으로 짧게나마 하계 등산학교를 개최하였다. 연이어 하계 등산학교 출신들로 제53회 대통령기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부산산악연맹이 종합우승을 거머쥔데 우리 학산이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다. 대통령기를 준비하는 재학생들의 열의를 보면서 올해 동계등산학교를 꼭 실시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빙벽반과 설상반을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고 영남알프스와 한라산으로 대상지를 결정하였다. 한라산 적설량이 적으면 훈련대 입산이 불가능하므로 울릉도도 대체지로 준비를 하였다. 제주연맹 박철홍 이사와 울릉산악회 장민규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부랴부랴 광주전남 학산 김병률 전무이사의 도움으로 전북 완주 병풍바위로 사전답사를 다녀오고 관리인이신 전언식 선배님과 협의를 마쳤다. 올해 2년차인 병풍바위 빙벽장은 매우 훌륭한 교육장이었다. 많은 등산학교가 실시되고 있었지만 우리 팀과 광주전남 학산은 주중교육이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김지성 책임강사와 학부형 대표 조벽래 강사의 실전을 견비한 교육은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살만큼 훌륭했다. 이동열 강사는 끝까지 남아 교육생들의 만형처럼 꼼꼼히 챙겨줘 감사할 따름이었다. 전상은 선배님과 김재연, 백광윤, 윤정민, 윤하석, 최민수 강사등도 어려운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강사들 대부분이 직장인이라 모든 교육을 소화할 수 없었음에 아쉬움이 남았다.

앞으로는 강사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학감으로서 전체 교육생과 강사들이 아무 탈 없이 등산학교를 마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책임강사)1. 예비트레이닝~ 반드시 필요, 장비체크 및 본 동계 시간절감의 효과. 대원 간 팀워크 및 강사의 대원들 능력 및 성향파악을 위해 좋은 시간이었음.

2. 동계 계획 및 준비사항을 재학생이 주가 되어 준비 못한 부분~짧은 준비과정으로 재학생이 행정 장비 의료 식량 등 전반적인 준비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부분이 아쉬움.

3. 교육장~ 교육장은 최고였다.

설상교육만 못할 뿐 모든 교육이 가능하며 이동 시간이 작아 알차게 교육할 수가 있었고, 책임강사가 한눈에 대원들을 파악 및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 좋았다. 빙장의 난이도와 경사도가 다양하여 모든 기술 및 확보교육과 안전 교육이 가능했고.

캠핑장과 교육장 역시 히말라야 베이스캠프를 연상시킬 만큼 훌륭했다. 텐트 생활 및 텐트 내 취사 설상훈련 및 하중훈련만 따로 할 수가 있다면 현시점에서 최고의 동계 장소라고 생각한다.

나름 동계빙벽등반의 기본과 각종 안전교육. 그리고 장비의 안전한 사용 등 교육을 빼먹지 않고 한다고 했으나 그 숙달 및 사용은 동계 대원들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



9. 등산학교 참가기

부산대 21학번 문정현

1월 15일 토요일

예비 트레이닝 때처럼 고맙게도 의지가 자기 집에서 같이 자고 아침에 가자고 해서 전날 짐을 패킹하기 위해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비트레이닝때 입었던 옷이 방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부실에 있던 고어텍스 잠바를 골라 챙겼습니다. 저녁으로 마지막 만찬인 것처럼 부원들과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1월 16일 일요일

동계 첫날이었습니다. 다들 동계에 가면 샤워시설이 있어도 추워서 잘 못 씻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평소보다 열심히 씻고 아침에 부실로 향했습니다. 부산학산에서 받은 어택배낭과 부실의 70리터 배낭, 공용장비를 담은 카고백을 합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가방 두 개를 묶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묶어 매는데 이걸 매고 어떻게 걸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실이 있는 지하에서 1층까지 올라오는 계단도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밖에 나와서 부원들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부장님과 민식오빠가 한참을 나오지 않아 무슨 일인가 했는데 카고백을 들고 오느라 늦었던 거였습니다. 제 짐만 드는데 버거워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약간 부끄러워졌고 같이 쓰는 장비이니 만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걱정을 뒤로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출발하였습니다. 일찍 출발해서 여유롭게 가자는 부장님의 계획 덕분에 일찍 도착하여 강아지 친구들도 만나고 좋았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과 선배님들이 오셔서 서로 소개와 인사 후 버스에 짐을 싣고 완주로 출발하였습니다. 버스에서 김밥도 먹고 산가도 배웠는데 제가 얼마나 음치인지 깨닫고 약간 부끄러웠지만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계속 흥얼거리게 되고 웬지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별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듣는데 그 어떤 음악시간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휴게소에 잠깐 들렀을 때 지성 선배가 제가 입고 있는 옷이 93년도에 본인이 입으시던 옷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산악부가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실감이 났고 전혀 20년이 넘어 보이지 않았던 옷이기에 역시 좋은 옷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풍바위에 도착해서 본 빙벽은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 보다 더 예뻐고 인공빙벽이라는데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규모여서 놀랐습니다. 다들 일사분란하게 짐을 내리고 정해주신 텐트 사이트에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치는게 익숙지 않았지만 효선이 언니의 진두지휘아래 꽤 빠르게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는 저, 의지, 희진이언니, 효선이언니, 그리고 해양대 나영이까지 5명에서 쳤습니다.



해가 일찍 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반찬으로 준비된 갯잎과 젓갈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광주전남학산에서 준비한 강의를 들었는데 낯설고

추운 환경에 적응한다고 기력을 다 썼는지 약간 졸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주 접하는 등반 이야기는 아니었기에 재미는 있었습니다. 강의 후 다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양쪽 텐트에서는 이런저런 말소리가 들렸는데 저희 텐트는 다들 침낭에 들어가서 아무 말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추위에 여기서 어떻게 5밤을 더 지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추워서 새벽에 몇 번 깼지만 학감님께서 가져오신 불이는 핫팩 덕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즐거웠던 기억에 가려져서 잊은 건지 정말 괜찮았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동기 선배가 알람을 틀고 걸어 다니며 사람들을 깨워했습니다. 추워서 밤에 잠을 설치서 그런지 침낭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 후 비닐하우스로 달려가 아침밥 만드는 과정을 보고 배우면서 난로 옆을 배회했습니다. 이미 2022년 들어서 떡국을 한 5번 먹었는데 일주일동안 아침이 떡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기우였습니다. 저는 제가 떡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준비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네스를 잠바 위에 입어야 하는데 잠바가 너무 커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을 차는데 한참이 걸려서 다른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비트레이닝을 하루 다녀왔지만 아직 부족한 실력에 하루 종일 아이젠 깡깡과 바일썰매타기, 발 자세 연습, 백스텝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발이 너무 시리고 빨리 빙벽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백스텝만으로도 힘들어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역시 기초가 중요하다고 빠르게 태세 전환하여 부산교대 OB선배님과 수업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또 무섭게 만 느껴졌던 부경대 OB선배님께서도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힘이 부족하면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연습하라는 꿀팁도 알려주시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녁에 두리등산학교 텐트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민수선배가 여기 몇명은 오늘 얼굴도 못 봤다고 하셔서 그제야 오늘 빙벽을 못 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빙벽을 타지 않고도 하루가 빠르게 흘러갔지만 역시 아쉬웠습니다.

다시 텐트로 돌아가 자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는데 같은 텐트를 쓰는 사람들 모두 두리등산학교 텐트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난로가 있어서 따듯하겠

지 기대했는데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텐트에 옹기종기 모여 자는 것보다 바람이 횡횡부는 느낌에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드디어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추워서 밤새 움츠리고 잔 어깨가 굳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또 바일을 찍을 때마다 새끼손가락이 자꾸 얼음에 닿아 손이 시려 바일을 떨어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빙벽을 타고 올라가는 길에 하강하시는 민수선배가 80년대 등반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니 부실에서



챙겨온 직선형태의 바일, 이젠 이런 형태는 쓰지 말라시던 자기확보줄, 팔자 하강기까지 뭔가 웃겼습니다. 나름의 감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80년대에는 어떻게 등반을 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조벽래 선배님께서 대학 때 처음 해외원정 가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스통을 호일에 싸서 갔다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그리고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배한테 끌려갔으면 끌려간 데로 목적을 만들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제 지난 산행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산을 따라다녀서 친구들이 '왜 가냐'라고 물어보면 '그러게, 재밌어서?'라는 말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동적이지 않고 왜 재미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깊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이날은 등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발이 자꾸 미끄러져서 바일에 매달려서 올라가려 했는데 근력이 부족해서인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몇 번 올라갔는데 이때 무릎이랑 정강이에 멍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빌레이 보는 건 이제 웬만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날입니다. 근데 킥드

로우가 부족해서 팔자 하강기를 달고 갔는데 너무 뻑뻑하게 감기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확보기를 몇 번 빌려 썼는데 이참에 하나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오빠 확보를 한번 봤는데 저보다 무거운 사람 확보를 보는 건 처음이라서 무서웠습니다. 킥드로우가 없어서 조동기 선배꺼를 빌려서 했는데 처음 써보는 장비라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 어정쩡한 모습이 불안했는지 조현세 선배랑 민식오빠가 양쪽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코너에 있는 직벽을 한번 타보라고 하셔서 타는데 이미 여러 사람이 올라갔다 와서 그런지 직벽이었지만 다른 벽보다 수월했었습니다. 근데 잘 탄다고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칭찬들어 기분이 좋았지만 그때가 힘이 남아있던 마지막 빙벽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포기하고 내려온 것 같아서 두고두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학감님이 만들어주신 교제로 이론수업을 했는데 용어들이 익숙한 상태에서 들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머리에 잘 들어왔고 유익했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등반을 할 수 있는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첫날만 해도 일주일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는데 어느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를 나누어서 등반을 하는데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인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속상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팔에 펌핑이 너무 와서 내려가고 싶었는데 빌레이를 봐주던 호선이 오빠랑 하늘이가 올라간 게 너무 아쉽다고 조금 쉬고 다시 올라가보라고 했는데 정말 못할 거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못할 거 같았는데 왜 항상 지나고 나면 정말 그게 최선이었는지 생각하는 게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말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는 장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산가를 부르는데 첫날 불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첫날에도 흥이 나긴 했지만 다들 친해진 상태에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



니 이게 산가의 힘인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 이번 등산학교가 정말 끝이 나가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는 게 신이나면서 몽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오전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조벽래 선배님의 지휘에 따라 아이젠 신고 벗고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맨손으로도 버벅거리던게 어느새 장갑 끼고도 잘 신는 스스로의 모습에 성장한 모습 하나 더 찾았다는 뿌듯한 생각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도연 오빠, 하늘이, 혁준 오빠와 한 조가 되어서 선등법, 이퀄라이징 매듭, 후등 상단확보법과 셀프 하강을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광주전남과 썰매대결을 했는데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었습니다. 썰매대결 이후 오전에 배운 선등 및 하강을 직접 해보았는데 무서웠습니다. 선등을 직접 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기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도연오빠가 선등으로 올라가고 후등으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확보를 보는 상황이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떨렸습니다. 상단에서는 스크류 두 개에 4명이 버틸 수 있는지 하는 두려움에 긴장되어 말이 많아졌었습니다. 옆에서 주마로 매달려 계신 동열 선배에게 줄 하나만 저한테 연결했다는 등 쓸데없는 말을 종알종알거리면서 하늘이와 혁준 오빠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다 올라와서는



배운 대로 셀프 하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대통령기 때 열심히 연습했었던 셀프하강이기에 하강 자체는 자신 있게 내려갔었습니다. 내려와서 언제나 처럼 아주 맛있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한 후 선배님들께서 사주신 치킨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입술만 적시는 느낌으로

천천히 마셨는데 원래 술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의 취해가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

항상 씻던 곳 말고 설거지 하는 쪽의 샤워실은 따뜻한 물이 잘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 일찍 씻으러 갔습니다. 씻는데 따뜻한 물이 너무 잘 나와서 이때까지 춥게 씻은 날들은 뭘지 약간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만에 따뜻하게 씻고 따뜻한 물을 마시니 일주일동안 긴장돼있던 몸이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텐트를 걷고 짐을 다 싸고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상 한 사람들을 축하해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감을 얘기하는데 정말 끝이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돌아가는 버스를 타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해져서 웃고 떠드는 사이가 됐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동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일주일동안 많이 먹었지만 또 고기를 먹고 아주아주 깊게 잠을 잤습니다. 언니와 한 방을 쓰는데 아빠랑 같이 자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코를 많이 골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깊고 길게 자고 일어나니 방학동안 짧은 경험이었지만 한 단계 성장한 스스로



의 모습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존경하고 예비트레이닝때부터 많은 것을 배운 김지성 선배님, 부모의 마음으로 챙겨주시는게 느껴진 하태웅 선배님,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많은걸 배운 조벽래 선배님, 등반할 때 옆에서 봐주시고 친근하게 해주신 이동열 선배님, 최민수 선배님, 그리고 우리의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다른 선배님들 모두 모두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항상 의지를 많이 하

는 부장님 도연 오빠, 못지않게 많은 걸 물어보고 배우는 민식 오빠, 희진 언니,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효선이 언니랑 의지까지 같이 등산학교를 다녀와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외에도 함께 했던 동계 등산학교 동기 분들 정말정말 즐거웠습니다.

선배님들께 받는 것이 많아 감사한 마음이 크면서도 벌써 올해에는 동아리에 몇 명 들어올까 궁금해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니 챙겨주시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서는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면서 막연히 성공을 꿈꾸던 때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6박 7일이었고 다음에는 빙벽뿐만 아니라 클라이밍을 더 즐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부산대 21학번 이효선

1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쯤 의지랑 같이 PCR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집으로 짐을 챙기러 갔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붙이는 핫팩을 100개나 샀었는데 사실 100개를 구입한 이유는 대용량으로 사는 게 더 싼고 부원들이랑 나누고 남으면 부실에 기증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짐을 챙기고 4시 30분까지 부실에 패킹을 하러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짐들을 보니 이 짐을 내일 어떻게 호포역까지 가져가지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행히 도연이 오빠 아버님이 짐을 호포역까지 옮겨주시기로 하셔서 걱정을 한시름 덜고 부원들과 함께 간식을 산 후,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1월 16일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최대한 꼼꼼하게 씻고, 좋아하는 바디워시까지 발랐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제대로 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실에 가니 다른 동아리원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최후의 샤워를 하고 부실로 와있었습니다. 짐을 마저 챙기고 호포역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나선 덕에 약속장소까지 여유 있게 도착하였습니다. 다른 학교 사람들과 하태웅학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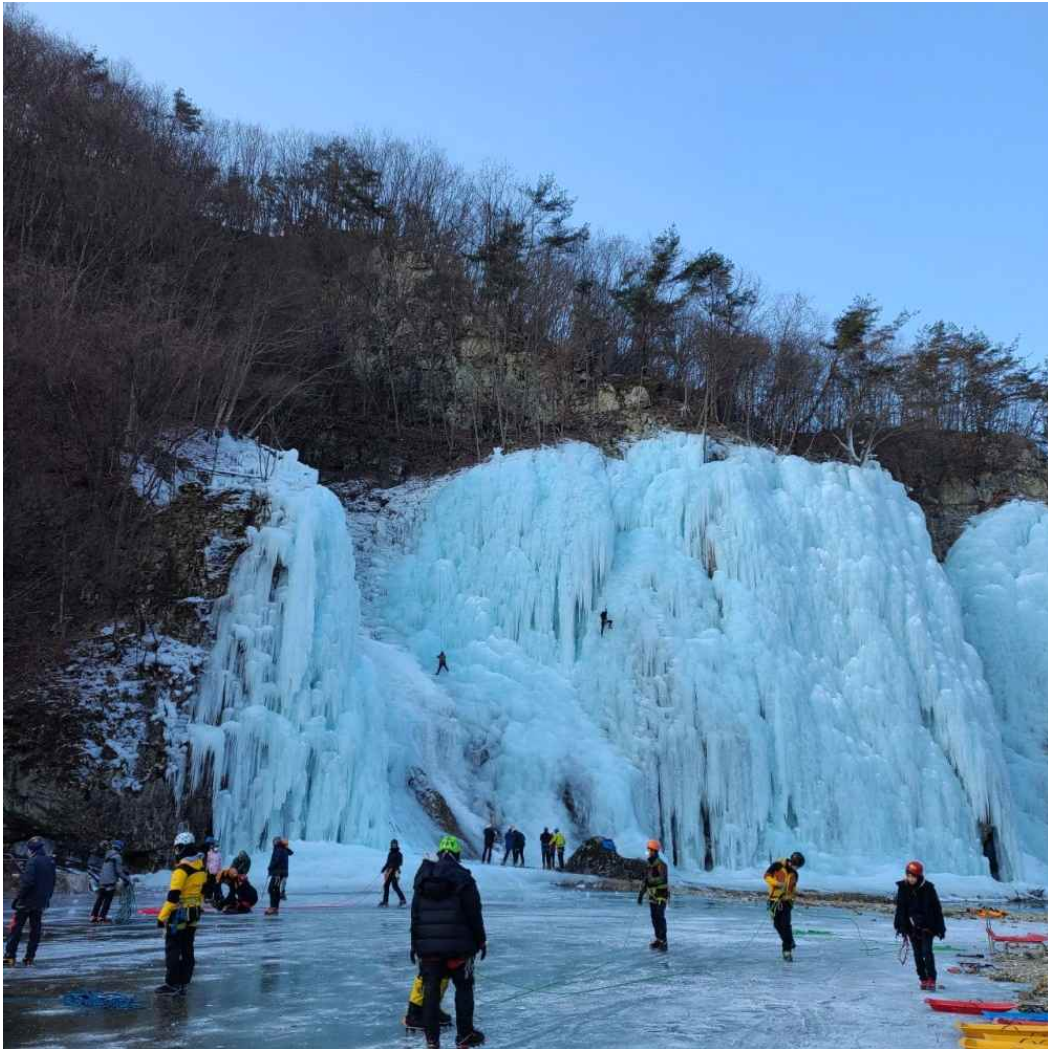
과 김지성 책임강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이 모인 후에 짐을 버스까지 옮겼습니다. 약 2~3시간 동안 산가도 배우고 김밥도 먹으면서 병풍바위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병풍바위에 도착하고 나서는 짐을 옮기고 텐트를 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미리 텐트를 부실에서 쳐보고 갔었기 때문에 텐트를 치는 것은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얼어서 텐트를 고정시키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 부분은 다른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고정시켰습니다. 이후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저녁은 배추된장국과 밥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었습니다. 점심때 먹은 김밥에 오이와 단무지가 들어있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었기에 일요일에 먹은 제대로 된 첫 끼였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광주전남학산 학생들과 함께 조선대 선배님의 산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산행을 갈 때 식량으로 조기를 챙겨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헛된 행동이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고 결국 이 행동이 의미 있는 행동이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모습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다 들은 후 텐트로 이동하였습니다. 낮에 정신이 없어서 병풍바위를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이동하면서 자세히 본 빙벽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 씻은 후 과거 침낭에서 잤을 때 발이 많이 시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양발에 핫팩을 붙이고 잠에 들었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6시까지 집합 이였기에 5시 50분쯤에 일어나서 조원들을 깨웠습니다. 작은 텐트에서 5명이 자니 새우잠으로 겨우 자기도 했고, 자주 깨서 아침에 일어나니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일어나서 아침으로 떡국을 먹었습니다. 떡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추울 때 먹은 떡국이어서 그런지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8시까지 장비를 착용하고 모였습니다. 김지성 선배님께서 예비 트레이닝때 실력들을 기준으로 초급반과 중급반을 나누셨는데 저는 초급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전 동안은 아이젠을 이용하여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 방법과 내려오는 방법, 뼈에 마르시, 뼈에 당 까르나 등 발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옆에서 빙벽을 타는 부원들을 보니 저도 빨리 빙벽을

타고 싶었지만 기초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잘 흘렀고 점심시간이 되어 참깨라면을 먹었습니다. 역시 운동하고 먹는 라면은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오후훈련을 하러 이동했습니다. 이날 오전 광주전남학산에서는 활낙제동을 배우고 있었는데 얼음 위에서 몸을 던지고 자일로 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교육을 안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심을 먹고 난 후 활낙제동과 플랭크를 활용한 프론트 짚기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동계를 신청한 것일까’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트레이닝이 끝날 때 쯤 중급반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김지성 선배님과 함께 프론트 연습을 하고 빙벽을 타니 오후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녁으로 선배님께서 사오신 삼겹살을 구워먹고, 두리등산학교에서 추우면 사용하라고 하신 텐트에서 난로를 켜면서 동계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난로 옆에서 자면 따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해양대 최민수 선배님과 함께 침낭을 두리등산학교 텐트로 옮기고 잠을 잤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난로 옆에서 자면 따뜻할 줄 알았지만 밑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건지 텐트가 커서 웅한 건지 첫째 날보다 잠자리가 훨씬 춥게 느껴졌습니다. 화요일은 부산대가 아침을 하는 날이라 일찍 일어나 조원들을 깨우고 떡국을 하러 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걱정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빙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도전했었던 빙벽과 처음 도전해보는 빙벽들을 조금 타다 보니 오전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점심으로는 라면과 하태웅 학감님이 구워주신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후 오후에도 오전에 했던 자일에서 등반을 했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면서 밭을 사용하는 방법과 프론트를 찍으면서 체중을 이동시키는 방법, 바일을 잘 찍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날 오후에 여러 선배님들에게 물어가며 배웠던 것들이 이후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고 현세오빠의 아버지이신 조벽래 선배님의 산행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강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언가에 있어서 저렇게 푹 빠져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무엇이 되었든 목적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산으로 한정지어 말하자면 어릴 때 산을 갔던 이유는 산을 좋아하시는 어머니 때문이었고, 수능이 끝난 이후 다녔던 새벽 뒷산 등산은 다이어트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악부를 들어오게 된 계기도 운동이 되겠다는 생각과 부모님의 산악부 동아리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산행을 가겠다고 신청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벽래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나는 왜 산에 가는 것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운동 때문이 아니라 산을 오르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등산뿐만 아니라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등산이 되었든 헬스가 되었든 필라테스 또는 요가 러닝 등 다양한 운동을 할 때면 여러 생각과 걱정들을 잠시 잊고 내가 하는 동작과 몸의 쓰임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운동의 목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나 자신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끝내고 나면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도 별 것 없는 내 인생에서 그래도 운동이라도 했다는 뿌듯함이 남게 되는 것이 제가 운동을 하는, 그리고 산행을 가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전날 두리등산학교의 캠프타운에서의 취침은 그닥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

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날은 정현이와 함께 개수대에서 자기로 하고, 개수대는 라디에이터가 24시간 가동 중이기 때문에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개수대에서 자고 일어나 맞은 아침은 그닥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깔
뒹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찬 기운이 전부 다 직통으로 몸으로 전해졌고 이
때문에 이때까지 청했던 잠 중에서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을 챙겨먹
고 장비를 착용한 후 8시까지 집합하였습니다. 오전에는 활낙제동에 대해서
배우고 활낙제동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또한 들었습니다. 화요일과 비슷하게
빙벽을 탄 후 바일을 찍는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조벽래 선배
님께 바일을 찍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배님께서 바일을 찍을
때 굽는 느낌으로 바일은 내리쳐야 박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찍은
후에는 바일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믿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바일이 흔들리면 계속 다시 박았었는데 이 말을 듣고 그냥 조금 흔들려도
바일을 믿고 빙벽을 탔습니다. 그리고 바일이 부족한 만큼 발을 잘 써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 프론트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깔아
두었던 자일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습해보았습니다. 화요일에 비
해서 실력이 향상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에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이후
저녁을 먹고 선배님께서 맥주와 과자를 사와 주셔서 캠프타운에서 맥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씻고 온대서 캠프타운에서 기다리고 있었

는데 하늘이가 하태웅 선배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다가 들어왔고, 술을 더 마시고 싶어 해서 하늘이와 다른 동기들과 함께 12시까지 맥주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때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집으로 가신 황선재님께 돛자리를 빌려서 그걸 깔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수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확실히 돛자리를 까니까 냉기가 덜 올라와서 따뜻하게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이날은 광주전남학산과 위치를 바꿔서 좀 더 직벽에서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직벽을 오르니까 팔에 펌핑이 빨리 와서 등반을 하는 것이 좀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나름 기초를 여러 선배님들에게 여쭙보면서 연습했던지라 생각보다 겁이 안 났고, 그래서 등반을 하는데 다른 부원들보다 거침없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시계를 보니 11시라서 곧 있으면 점심을 먹을 것 같아서 화장실을 간 후 바로 점심을 하러 갔습니다. 곧 있으니 해양대 친구 한명이 왔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태웅 선배님과 함께 라면 물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오전에 연습하지 못했던 자일에서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는 건지 컨디션이 좋았던 건지는 조벽래 선배님께서 제가 등반하는 것을 보고 에이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밑에서 계속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내심 뿌듯하기도 했고 칭찬을 받으니까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일로 자리

를 옮기고 등반을 시작할 때도 밑에서 조벽래 선배님께서 정말 잘 한다고 제일 낫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팔에 펌핑이와도 조금 더 오르려고 했고, 중간 중간에 팔을 털면서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팔에 힘이 빠지면서 미끄러졌고 바일을 놓친 채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미끄러지면서 바일을 얼음에 꽂아서 바일이 낙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아찔했던 것 같습니다. 하강을 하고 나니 조벽래 선배님께서 정말 잘했다며 칭찬과 함께 머리를 쓰담아 주셨습니다. 아쉽기도 했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사탕이라면서 사탕도 주셨습니다. 역시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날부터 빙벽에 대한 재미가 확 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김지성 선배님께 주마를 배웠습니다. 주마는 작년 말 쯤에 등산 대회 때 처음 접했었는데 오랜만에 하

니 등산 대회 때 연습했던 게 생각도 나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마를 다 하고 나서 조벽래 선배님께서 몇몇 아이들을 불러서 선등시 스크류를 박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스크류 박는 것은 어깨 넘어 설명만 들었지 실제로 얼음에 매달려 박아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스크류 박는 것을 연습할 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금요일에 조를 짜서 등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숲을 보는 교육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선배님들이 선등을 해주시면 항상 후등만 했기에 선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산행을 갔을 때 등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선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날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세오빠와 동기오빠, 우현이와 한 조가 되어 스크류를 박는 것부터 회수하는 것까지의 전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때까지 빙벽등반이라는 지엽적인 부분만 보다가 전체적인 부분을 배우니 더욱 어렵게 느껴지면서 긴장이 실제로 해 볼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조에는 현세오빠가 있어서 연습은 수월하게 끝났고 가장 먼저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선등을 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먼저 현세오빠가 하고 두 번째로 제가 하게 되었는데, 긴장을 했던 탓인지 자세가 이전과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세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성 선배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서 일주일동안 가르쳐 준거를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무너뜨리면 어떡하냐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자세를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밑에서 보기엔 자세가 바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성 선배님께서 바일에서 손을 떼고 머리를 박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발을 보기 위해 머리를 박으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양손을 다 떼라고 하셔서 ‘아 내가 지금 빙벽위에서 얼차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조금 저도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고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날 뻔 했지만 참으면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옆에서 이동열 선배님께서 괜찮다고 계속 말해주셨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니까 바일이 잘 찍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선등 연습을 하고 내려와서 점심을 하러 갔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먹는

내내 계속 내가 병벽위에서 열차려를 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니 화를 내졌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거의 오전 내내 연습했던 팀 등반과 하강을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저는 세컨드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지만 등반의 전체적인 과정을 연습해보는거라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김치뽕치찌개와 고기를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뽕치김치찌개를 좋아해서 밥을 두공기나 먹었습니다. 저녁에 술을 마실 것을 생각 못하고 먹어서 야식 메뉴가 치킨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후회가 되긴 했지만 정말 맛있었던 저녁이었습니다. 이후 치킨과 술을 마시면서 병풍바위를 만드신 선배님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님이 제 또래정도 되신다며 사회에서 정해진 틀에 의해서 대학을 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취업준비를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데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배님께서 술이 조금 되셔서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 삶을 남들처럼 살지 말고 개척해나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성 선배님께서도 앞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기에 여러 생각과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겼습니다. 일주일이 언제 지나가나 고민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현실로 돌아간다는 게 기쁘면서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병풍바위에서 등반을 하는 동안은 그동안의 고민들과 걱정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등반과 추위에만 집중했었기 때문에 막상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자취방 이사준비와, 1주일간 방치해둔 공부들이 생각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계트레이닝을 간 1주일과 준비기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는 시간들을 합하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서 뒤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불안한 감정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나름 재미있었고 의미 있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료식을 하고 피자까지 맛있게 먹고 난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지난 일주일이 꿈만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22년부터 CPA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계획하면서 2021년에는 시험을 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틈틈이 강의들도 미리 들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쯤 부모님과 아마동계 등산학교가 12월 말에 있을 것 같으니 동계만 다녀온 후 본가로 올라

와 공부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계일정이 나온 것을 보니 1월 말이었고 고시생인 내가 1주일이나 이런 트레이닝을 다녀와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었던 것이었기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동계등산학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동계 등산학교가 시작되기 1주일 전부터 밤늦게 도서관에서 나오면서 동계 등산학교를 신청한 것을 매일 후회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1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고, 1주일이 비어지게 되면 흐름도 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계를 다녀온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1주일만은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고, 현직 회계사이신 김지성 선배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30년 후면 저런 모습으로 후배들을 위해 투자하는 선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꼭 성공하여 내리사랑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계 등산학교 준비부터 마지막까지 선배님들께 너무 많은 것을 받고, 배웠기에 저도 꼭 후배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과 배움을 나눠주고 싶다는 확실한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산악부 활동은 못하겠지만 그 시간들은 앞으로 능력 있는 선배가 되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동계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엄마처럼 챙겨주신 하태웅학감님과, 기초도 없던 저에게 어느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주신 김지성 책임강사님, 조벽래 선배님, 이동렬 선배님, 최민수 선배님, 그리고 학생인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많은 선배님들과 재미있는 동계 등산학교를 만들어준 동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해양대 21학번 신우현

저는 이번 등산학교가 처음이어서 적응을 하지 못할까 걱정하였지만 학감님, 강사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느껴져서 적응하고 어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캠핑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지만 불편했던 점을 떠올려보면 추위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5일에 걸쳐서 빙벽만 타다 보니 설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살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좋았던 것은 본 프로그램에 앞서 했던 예비트레이닝이었습니다. 2번에 걸친 예비트레이닝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앞서 기초적인 빙벽 기술들을 익히고 본 프로그램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챙길 수 있었던 시간이

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공 빙벽은 빙벽 기술을 배우는 장소로서는 최고의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동계등산학교에서 최고의 강사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영광이었고 빙벽과 등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쌓고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부산대 21학번 이의지

1월 15일 토요일

패킹이 4시 30분이라고해서 넉넉하게 3시에 효선이랑 PCR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전에 PCR검사를 많이 받아서 또 받으러가는 상황이 암담했었는데 효선이와 함께 가서 그나마 좋았습니다. 검사하는 분이 검사의 목적이 뭐냐고 하셨는데, 효선이가 캠프라고 말하는 걸 듣고 따라 말하자 저한테만 구체적으로 캠프이름이 뭐냐고 막 물으시는게 무서워서 소규모라고 가족끼리 가는 거라고 대충 둘러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진짜 동계를 가고 싶었

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효선이에게 마지막 만찬이라고 꼬여서 햄버거를 사먹고 짐을 싸러 집으로 갔습니다. 입을 옷들은 미리 사놓았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없어서 미리 캐리어에 짐을 싸온 정현이의 짐을 참고하여 급하게 쌌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부실로 이동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어텍스 상의가 없었기에 부실에서 가져오고 침낭챙겨오고 가방에 침낭과 각종 준비물들을 넣다보니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아닌데 짐싸는 것부터 진이 빠지니 그때부터 동계가 약간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으며 또 낙관적으로 변해 마지막 만찬을 즐겼습니다.

1월 16일 일요일

첫날 알람소리에 눈을 떠서 정현이와 집에서 깔끔하게 씻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어택배낭과 부실배낭을 엮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뒤로 쳐지기에 그냥 가방을 앞뒤로 매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ㅎㅎ 같이 달팽이가 되어 출발하였는데 무게가 상당한 걸 보고 어프로치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약속장소에 여유 있게 도착하였고 엄청 큰 강아지 3마리를 구경하며 다른 학교 사람들을 기다



렸습니다. 가방으로 고생을 좀 해서 그런지 다른 학교 사람들의 패킹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다들 되게 튼튼해보였는데 우리부원들 가방만 위태로운 달팽이집인 것이 너무 웃겼습니다. 버스 앞에 모여 소개와 인사를 나눈 뒤 출발하였습니다. 버스좌석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운전도 선배님이 하신다고 하여 산악부에는 능력자가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김밥도 3줄이나 먹

고, 가면서 산가도 배웠는데 외울 자신은 없었지만 재밌게 따라 불렀습니다. 병풍바위에 도착하였을 때는 사진에서 본 풍경이 실제로 펼쳐져 있는데 생각보다 더 멋있었고, 바로 앞에 텐트가 있고 화장실도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텐트 치는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효선이가 텐트 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저도 부원들과 캠핑 가서 텐트를 친 경험이 있다 보니, 경험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도움이 되구나를 몸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먹기전 두리등산학교에서 텐트를 빌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부원들이 말한 것처럼 텐트가 정말 좋았습니다. 역시 비싼 텐트가 좋구나 감탄하며 버스에서 남겨온 김밥을 저녁 전에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의 첫끼인 배추된장국과 밥은 가볍게 먹었고 이후 광주전남학산과 인사하고 함께 조선대 선배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가 생각보다 길어 지쳐갈 때 즈음 광주전남학산 학생들과 부산학산 학생들의 태도를 비교하게 되었는데 사뭇 다른 모습이 관찰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조는 인원이 달랐습니다..ㄱ... 강의를 다 듣고 텐트에서 잘 준비를 하였는데 침낭 안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 생각은 얼마가지 못했지만, 자기전 아빠와 연락을 하였는데,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자나면서 데리러오겠다고 거둬 말하시는 것을 보며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새벽에는 너무 추워서 정말 많이 깼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고, 아빠가 당장이라도 와주면 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드디어 다음날 아침, 같이 잔 누군가가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춥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아침인 떡국을 큰 기대 없이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해양대 친구들이 정말 요리를 잘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 부산대가 할 때도 맛있어야 할 텐데...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8시 반 집결하고 아이젠을 신는데 예비트레이닝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세오빠의 도움으로 아이젠을 겨우 신고 다음에는 무조건 혼자 힘으로 신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초급반에 속했고 아이젠 깡깡, 경사진 곳을 오르내리는 법, 바일 썰매타기, 플랭크자세로 프론트 째기 등 기초훈련을 받았습니다. 무게를 실으며 아이젠 깡깡을 하라고 하셨는데 분명 무게를 실은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째히고 미끄러지는 것을 보며 나만 뒤쳐지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오전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 오후에는 아이젠도 다시 고쳐 신었고 얼음이 녹아서 그런지 이전보다 잘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교대 OB선배님과 정민 선배님

이 쫓아놓으신 바일과 바일을 이동하는 훈련 중간에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저는 실력이 부족하여 계속 초급반에 있었습니다. 연습하는 도중 정강이에 얼음을 세게 받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이제 기초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다행히 조금 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저녁은 삼겹살이었습니다. 삼겹살을 맛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손중호 회장님의 말씀도 주의 깊게 들었고, 그 후에 다 같이 텐트에 모여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성선배님께서 교육속도가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는 말씀하신 교육은 받지도 않았었기에 빨리 중급반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영이랑 씻으러 갔는데 따뜻한 물이 3분 나오다 2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정말 추웠지만 다 씻고 나니 보송한 기분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맞은편 남자 샤워실에서 나오는 오빠들과 샤워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따뜻하면 저쪽이 차가운 것 같다고 타이밍이 잘 맞아야겠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씻고 나니 비닐하우스에서 지성선배님께서 준우오빠에게 장비설명을 하고 계셨는데, 두 분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준우오빠는 부장으로써 후배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워가겠다는 태도가 정말 멋있었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1시간 넘게 열정적인 설명을 하시는 지성선배님도 정말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최대한 배워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두리등산학교에서 제공해주신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른 부원들은 여전히 추웠다고 하였지만 민수선배님이 알려주신 침낭에 양말 벗고 들어가는 팁과 난로가 있다는 플라시보 효과로 인해 저는 따뜻하게 잔 것 같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뭔가 이번에도 힘든 기초교육만 받고 빙벽은 못 오를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오전에 부경대 OB선배님께서 가르쳐주신 썰매 타며 바일 짚는 교육은 상당히 즐거웠고, 같이 교육받은 해양대 친구들과 친해져서 좋았습니다. 또 오후에는 드디어 빙벽을 오르게 되었는데 경사도 완만해보여 덜 겁먹었고, 선배님들이 계속해서 1대1 코칭을 해주셨기에 배운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단체로 지성선배님의 장비교육을 받았고 조벽래 선배님의 해외원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님의 스토리텔링이 아주 흡입력 있었기에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두리텐트에서 자기로 했고 나름 낭만파인 저는 자기 전 노래를 듣다가 밀리의 서재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잘 자려고 몇 번 들은 적 있는데 역시나 잠은 잘 왔고 텐트에서 책을 듣다니 낭만적이었습니다. 혹시나 잠이 잘 안 오신다면 강추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

가장 만족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빙벽등반을 많이 했고 민식오빠와 현세오빠가 빌레이를 잘 봐줘서 마음껏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쉬는 시간에도 기초교육을 해주셔서, 오르고 또 교육받고 또 오르고 나름 교육이 뭉세게 돌아갔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가장 잘 적용했고, 칭찬도 많이 받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목이 말라서 회진 언니와 준우오빠랑 고드름도 맛보았고 오후에는 눈도 많이 내려서 이색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기전 등반하다 추락을 했는데 정말 아찔했습니다. 바일을 쏜 얼음이 큰 덩어리로 부서졌는데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바일 하나를 쏘아둔 채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들 놀라신 것 같아서 태연한척 했습니다. 저녁식사는 선배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진수성찬을 맛볼 수 있었는데 감자, 떡볶이, 고기, 만두, 어묵...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루의 힘듦이 저녁으로 미화되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이후에는 산가를 부르고 교재공부를 하였습니다. 교재공부도 지루하지 않고 복습하는 느낌으로 유익했고, 산가는 인정하기 싫지만 중독성이 정말 강했습니다. 수요일 즈음 되니 추위 빼고는 다 좋아졌습니다. 저녁에 텐트에 모여 가볍게 맥주를 마셨는데 놀이가 아주 웃겼습니다. 산이 좋아서 오르기도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오른다는 생각이 다시금 스쳐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니다. 신기하게 몸이 안 좋으니 정신력이 약해졌습니니다. 이번에는 직벽구간에 줄이 많이 깔려있었는데 쉽지 않아 보였고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민식오빠와 희진언니가 오르는 것을 보며 저만큼 오를 수는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등반한 것이 그날의 최대치였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조금 올랐는데 무서워서 내려오고 싶었고 효선이가 겁 없이 오르는 것을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도 잘 안 나오고 힘도 금방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빙벽등반을 감탄하며 빌레이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니다. 그러다 지성선배님께서 아발라코프 확보법과 주마하는 곳으로 오라고 하셔서 이동했더니 동기 오빠와 민식오빠가 열심히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저보고도 해봐라고 하셔서 과연 하면서 했는데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주마교육을 해양대 OB선배님께 받았고 등산학교때 해본 적이 있던 터라 주마든 하강이든 괜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강기가 8자였는데 하강할 때는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전에 빌레이 볼 때도 불편했고 다들 튜브하강기쓰는데 나만 8자인 것 같아서 장비를 구매해야하나 고민했습니다. 역시 장비는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이 카레였는데 교정하고 있어서 상당히 망설여졌습니다. 처음에는 카레를 포기하려고 했기에 지금까지의 저녁과 다르게 상당히 우울하게 밥이랑 반찬만 먹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하태웅선배님의 애정인 담긴 카레로 2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말고 현민이도 교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둘 다 카레를 먹고있어서 웃졌습니다. 조벽래 선배님의

장비교육도 받았고 또 한 번 역시 장비는 좋을수록 좋다고 느꼈습니다. 산가를 팀으로 나누어서 불렀는데 이미 모두와 친해졌었고 다 같이 게임을 하듯이 재밌게 부른 탓인지 그때의 분위기가 새삼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비닐하우스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이날 밤은 민재오빠, 하늘, 현세오빠까지 두리텐트에서 자서 역대 최대인원으로 잤던 것 같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빙벽을 탈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조벽래 선배님께서 아이젠 신고 벗기를 연습하게 하셨는데 처음에 비해 장족의 발전이다 생각했습니다. 팀을 나눠주셔서 민재오빠, 호선오빠, 현민이와 한 조가 되었는데 첫 번째가 민재오빠 두 번째가 현민, 세 번째는 저, 네 번째가 호선오빠 이렇게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짐꾼 역할이었고 연습시간이 길어지자 힘내라고 제 간식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ㅎ 바닥에서 2번의 연습이 끝나자 바로 경사면에서 실습하였습니다. 앞사람이 박아놓은 스크류에 이어 하나를 더 박아야 했는데 후등만하다가 선등으로 가니 너무 무서워 한 뼘 정도의 거리에 스크류를 박았습니다. 좀 더 거리를 두고 했어야하는데 빨리 내려오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었고 광주전남학산과 썰매대결을 하였습니다. 경쟁이라 하니 살짝 부담스러웠는데 하다 보니 박진감 넘치고 재밌었습니다. 단체사진을 몇 장 찍고 앞서 배운 선등법, 후등 상단확보법, 셀프하강을 이어 하였습니다. 선등이 아닌 후등이라 크게 무섭지는 않았었는데 아뿔싸, 올라가던 도중 데이지 체인이 아이젠에 걸렸습니다. 언제한번 선배님이 데이지 체인 길이조절을 잘해야 안 걸린다고 잘못 걸리면 이도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딱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데이지 체인 빠느라 빙벽에 무릎 꿇고 있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겨우 올라가서 바로 셀프하강하였습니다. 이후 더 등반하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 저는 이정도로 만족했기에 바로 저녁조리를 하러 갔습니다. 밥을 안쳐놓고 나서 희진언니의 등반을 구경하였는데 전에 분명 같이 빙벽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또 한 번 완등을 해내는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술 먹는 날이 왔고 내일 집에 간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선배님들이 사 오신 치킨과 과자를 안주삼아 배부르게 술을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기억이 비닐하우스에서 혁준이와 찐친거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off가 된 적이 없었는데 차라리 실수를 안 해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1월 22일 토요일

술을 마셔서 그런지 가장 따뜻하게 기상하였고 짐정리를 하였습니다. 넉넉한 시간동안 쓰레기도 치우고 왔다 갔다 하며 짐을 열심히 옮겼습니다. 다음으로 수료식을 하였는데 처음으로 도전상을 받아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받긴 했지만 스스로에게 아쉬움이 많았던 터라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상과 상품인 제 카라비너가 생겨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등산학교를 통해 받은 아이템들이 좀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평생 취미가 될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사오신 피자를 맛있게 먹고 버스를 타는데 그제서야 집에 가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부산대 부원들과 뭉쳐있었는데 어느새 다 친해져 집으로 가는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호포역에서 뜨거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정현이 아버지의 차를 타고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부실에서 빠르게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쓰면서도 느끼지만 동계가 너무 미화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또 갈까봐 걱정입니다. 6박 7일 동안 저희의 안전을 신경 쓰며 열심히 가르쳐주신 선배님들 너무 감사하고 함께 훈련받은 동기들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에 아주 재밌게 훈련을 마칠 수 있었고 앞으로 종종 운동하면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동계는 아주 잘 간 것 같습니다^-^



부산대 21학번 도민식

1월 16일 일요일

동계 시작일 이었습니다. 전날 미리 패킹을 해두었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 전 샤워를 한 뒤 부실로 향했습니다. 어택 배낭, 그리고 70리터 배낭 + 카고백 등을 다 합치니 짐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갈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한숨만 나오는 짐의 양이지만, 다행스럽게도 도연이형 아버님께서 차로 짐을 옮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연이형은 먼저 아버지 차량으로 호포역으로 향했고 저, 의지, 정현, 효선, 희진 누나는 함께 버스와 전철을 타고 호포역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지고 가지 않아 시작부터 발걸음이 가벼웠고 컨디션은 좋았습니다. 호포역 집결지에 한 30-40분 정도 만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짐을 내렸고 다른 분들을 기다렸습니다. 9시 즈음에 도착해서 그런지 저희 부산대가 가장 먼저 와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을 기다리는 중 인절미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였는데 참 귀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대학 분들과 선배님들께서 오셨고 인사를 한 후 버스에 탑승하여 완주로 출발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산가를 배웠는데

중, 고등학교 시절 음악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기억이 나서 버스에서 이동하는 동안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자일의 정이라는 노래를 가장 먼저 배웠는데 부산대 산악부의 부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기했습니다. 노래를 배우고 버스 안에서 김밥을 먹다 보니 금방 병풍바위 빙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병풍바위 빙벽의 첫인상은 거대하였습니다. 높이도 높을뿐더러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인공으로 어떻게 이런 빙장을 만들었을까 신기하기도 하였고 기술력에 감탄하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짐을 옮기고 텐트를 칠 사이트를 정하기 전 본부 옆 비닐하우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급차가 캠핑장 내로 들어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한 분이 누워 계셨고 다치신 걸로 보였습니다. 그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 뉴스에서 본 빙벽 사고들이 머릿속에 잠시 스쳤습니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민수 선배님께서 텐트 사이트를 정해 주셨고 얼른 텐트 치고 짐정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산대에서는 두 텐트를 사용하였는데 저는 도연이형 그리고 하늘까지 해서 세 명 이서 한 텐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텐트를 치고 난 뒤 금세 날이 저물기 시작하였고 저녁 준비를 하였습니다. 메뉴는 배추 된장국 그리고 김치와 다른 반찬들로 구성된 저녁식사였습니다. 이때 김치를 처음 맛봤는데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김치에서 아삭함이 없고 샤베트같이 입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서 동계기간동안 볶거나 끓이는 등 조리되지 않은 김치는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광주전남학산과의 인사 후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영호남 연맹산행때도 느꼈지만 광주 전남 쪽은 군기가 강한 것이 이번에는 더욱 살벌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웃음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뭔가 다들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광주 쪽 선배님께서 준비하신 강의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약 한 시간 넘게 강의를 하셨는데 졸지 않으려고 열심히 버텼습니다. 강의 후에는 대충 양치만 하고 난 뒤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10시 20분쯤 텐트에 누워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늘이는 이미 잠에든 듯하였고 도연이형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잠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2시간이 지나 12시가 지나도록 떠들었습니다. 12시가 넘은 것을 보고는 이제 진짜 자고 하며 침낭 지퍼를 올렸습니다. 빙벽을 탄 것은 아니었으나 하루가 고단하게 느껴졌고 피곤하여 지퍼를 올리고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기상시간은 6시였습니다. 텐트 안 공기는 살인적으로 차가웠습니다. 새벽부터 우렁찬 닭소리는 시끄러웠습니다. 5시 50분쯤 밖에서는 동기 형이 군대 기상나팔 알람음을 틀며 다들 기상하라고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짜증이 나서 욕을 한마디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잠도 깼고 너무 춥기도 하여 패딩을 입고 비닐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사람들이 불을 켜고 있었고 덜덜 떨면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해양대 친구들이 아침을 담당하였기에 물을 끓이고 떡국을 조리하였습니다. 떡국 맛은 그저 그랬고 나중을 위해서 많이 먹어 뒀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빙벽 교육이 시작되기에 긴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시간을 보니 8시 반 집결 시간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텐트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였는데 도연이형과 명 때리면서 너무 춥고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

를 하였습니다. 도연이형은 간만에 군대가 떠오른다는 말을 하며 착잡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고 동계 신청한 것을 후회하였고 얼른 일주일이 지나 집에서 따뜻하게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8시 반 집결 이후에는 본격적인 빙벽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트레이닝 이후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사람들은 먼저 바로 빙벽 등반에 돌입하였는데 운이 좋게도 중급반에서 바로 빙벽 등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풍바위의 빙벽은 밀양의 학암폭 보다도 훨씬 높아 겁도 났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막상 벽에 붙으니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어떻게 올라가야 되더라는 생각만 하면서 등반에 집중하였습니다. 규모도 컸고 고드름도 훨씬 많았기에 낙빙도 많았습니다. 정민선배님께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야 힘을 덜 들이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자세에 집중해서 등반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반을 하면서도 계속 그 말을 되내이며 등반을 하였습니다. 점심에는 라면을 먹고 오후에도 계속 등반을 하였습니다. 조금 오르다 보니 광운 선배님께서 직벽 코스를 한번 올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바일을 실력이 부족하여 얼음을 약간 깨뜨렸는데 운이 나쁘게도 바일에 깨진 얼음 파편이 눈 쪽으로 튀었습니다. 눈이 제대로 안 떨어져서 바로 하강했고 눈 옆에 좁쌀만 한 스크래치가 하나 생겼습니다. 낙빙의 무서움을 다시금 알 수 있었고 조금 더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3-4시즈음 등반이 끝이 났는데 어프로치도 없는 빙장이기에 등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하루 만에 한 대여섯 번은 벽에 붙었습니다. 자세를 계속 교정하면서 뻑뻑하게 등반을 하고 나니 몸이 상당히 고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등반을 해서인지 두려움도 사라지고 저녁에는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부원들과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힘든 등반 이후에는 맛있는 음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 힘든 등반도 벌써 미화되어 버렸고 슬슬 동계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또 강의가 있다고 하여 급하게 저녁식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비닐하우스에 광주전남, 그리고 우리 부산이 모여 앉았습니다. 광주전남은 역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느낌이었고 “오늘은 제발 일찍 끝내 줘...”라는 생각을 하며 강의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대한산악연맹 손중호 회장님이 오셔서 격려의 말을 해주셨는데 산악연맹에서 가장 높은 분을 보니 신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금방 끝났다는 것입니다. 짧은 격려사 이후 우리 부산학산팀은 전기난로가 있는 캠프타운 텐트에 모였습니다. 다들 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이틀간의 소감, 공지사항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성 선배님께서 “빠른 교육속도에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말씀하셨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고 등반을 여러 번 하여 땀도 났던 터라 도연이형과 같이 샤워는 이 날씨에 못 하겠고 머리만 감자고 이야기를 하며 머리만 감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긴 하는데 금방 차가워질 것만 같아 약 30초? 정도 만에 따뜻한 물에 머리를 다 감고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틀 만에 머리를 감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잘 때는 추워서 비니를 써야하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현세 형이 우리 텐트로 놀러 왔습니다. 사실 다 같이 떠들었다기 보다는 현세형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너무 낭만적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으나 어릴 적부터 원정도 다녀온 것이 부럽기도 하면서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다는 12시 반쯤 끝이 났고 현세 형은 동아대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잠 들기 전 아침에 느껴질 추위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치 쪽에 핫팩 2개를 붙이고 추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잠에 들었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오늘도 기상시간은 6시로 잤습니다. 오늘은 핫팩을 붙이고 잔 덕분에인지 크게 자면서는 춥지 않았고 오히려 침낭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침낭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살인적인 공기 온도에 또 다시 으아악 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면서 패딩을 재빠르게 입었습니다.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불을 쪼려 가는 길이 추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역시 또 떡국이었고 나중에 있을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8시에 집결하여 다시 빙벽을 뒀고 오늘은 고드름 직벽에 도전하였습니다. 난이도가 높았고 전완근에는 펌핑이 와서 금방 하강했습니다. 조벽래 선배님께서 바일을 굵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계속 자세를 교정해주시면서 빙벽 등반을 하였습니다. 점심에는 떡볶이와 라면을 먹었고 오후에도 등반을 이어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펌핑 때문에 하강했던 그 직벽을 깨본다는 마인드로 체력을 아꼈고 직벽에 다시 호기롭게 도전하였습니다. 중반쯤까지는 “오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완근에 펌핑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 팔을 많이 사용한 탓인 겁니다. 펌핑이 왔지만 계속 한스텝 한스텝씩 현세형의 빌레이 속에서 팔을 털어가며 올라갔습니다. N바디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팔이 아파서 그냥 앓는 소리를 내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새 스크류를 박아놓은 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었고 뿌듯함을 느끼며 하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강 후에는 펌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속 올라간 탓인지 오른쪽 날개뼈쪽과 어깨가 약간 찢린 느낌이 들었고 빠근했습니다. 그렇게 등반 이후 빌레이를 보다가 화요일 교육이 마무리되었고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녁은 참치김치찌개였습니다. 맛은 고등학교 때 먹던 급식 맛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국물에 밥을 말아 그냥 후루룩 먹어 치웠습니다. 오후 7시에는 지성선배님께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해주셨고 조벽래 선배님께서 짧게 인생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마음가짐을 갖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짧지만 마음속 깊이 목적이라는 말이 남았고 뜻 깊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이론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처음으로 샤워를 하였습니다. 사실 민재가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걸 보고 와 이걸 아니다 싶어 머리만 감으려 했으나 마침 제가 샤워기를 트니깐 따뜻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기회다 싶어서 바로 샤워를 하였고 너무 행복해서 도연이형에게도 빨리 따뜻한 물 나올 때 샤워하라고 말하여 도연이형까지 같이 샤워를 하였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을 사용한 시간은 총 1-2분 남짓이었으나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샤워를 끝나치고 공동텐트에 모여서 난로에 수건과 머리를 말리고 수다를 떨다가 텐트로 자리갔습니다. 현세형이 오늘도 부산대 텐트로 놀러와서 수다를 떨었는데 오늘은 하늘이도 깨어있어서 넷이서 떠들다가 또 다시 12시를 넘기고 1시쯤 잠에 들었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자 어제 무리했던 탓인지 어깨 날개뼈 쪽이 너무 쑤시고 아팠습니다. 전날 현세형에게 근육이완제도 받아먹었지만 근육 뭉침을 풀 수 있는 마사지볼 같은 것이 없어서 미처 못 풀어줬더니 바일로 등반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등반을 쉬기로 마음먹고 빌레이 머신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오전에는 활락 제동 교육과 확보 교육을 하였고 빌레이 머신을 가동시켜 계속 빌레이만 보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했습니다. 점심에는 오동통면을 먹고 다시 빌레이를 계속 보았습니다. 중간에 조벽래 선배님께서 민식이 놀지말고 등반해라라고 하시길래 “아 어깨가 아파서 오늘은 등반 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 그래? 그러면 저거 하러 온나, 팔 하나도 안쓴다.”라고 하시며 피켈로 등반하는 것을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저는 “아앗...”하면서 주뻗주뻗 시키는 대로 피켈 등반을 하러 이동하였습니다. 피켈 등반하는 곳에서는 호선이와 민재가 이미 다리를 부여잡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선배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팔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나 장판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생각과 함께 터질 것 같은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여잡고 “으윽” 소리를 내면서 피켈 등반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빌레이도 보고 발 연습도 하면서 오후 등반을 끝마쳤습니다. 저녁에는 산가를 부르고 교재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산가는 즐거웠고 교재도 유익했습니다. 저녁 이론 교육이 끝나고 난 후에는 재빠르게 샤워를 하였습니다. 한번 샤워를 하고 나니 안하면 못 참을 것 같아 차가운 물임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씻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공동텐트에 부산대, 동아대, 하늘이까지 모여서 맥주 한잔 하면서 떠들었

습니다. 하늘이가 술에 취해 귀여움을 뽐뽐하고 사람들에게 드디어 말을 놓고 하는 것을 보니 웃겼고 덕분에 즐겁게 잘 놀았고 11시쯤 자리를 마무리하고 텐트로 돌아가 핸드폰을 좀 보다가 12시쯤 잠에 들었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아침 공기는 역시 차가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등반을 못해 아쉬웠던 터라 오늘은 무조건 등반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재빠르게 일어나 아침을 먹으러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어깨가 약간 빠근한 감이 있긴 하였으나 이제 등반할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아쉬운 마음에 약간의 빠근함은 참고 등반하였습니다. 아침으로 떡국을 먹고 8시 반에 집결하여 등반하였습니다. 오늘의 등반지는 기존 병풍바위 빙장의 왼쪽 코스가 아닌 오른쪽 코스의 직벽을 등반하였습니다. 이전의 난이도들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난이도도 높고 어깨 상태도 별로라 자세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금방 펌핑이 왔고 무리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자세가 무너지면 그냥 하강하였습니다. 그렇게 오전에 등반을 마치고 점심으로는 오동통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맛있게 끓여 나누어 먹고 오후에는 주마를 이용한 등반과 상단확보법 그리고 하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슬링을 이용한 아발라코프 확보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스크류로 구멍을 직접 뚫어보았으나 여러 번 시도하여도 v자로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성 선배님께서 구멍을 뚫으시고 슬링은 제가 직접 넣고 꺼내어 확보를 해보았습니다. 빙벽에서 볼트가 없을 때 스크류를 사용하게 되면 멀티 피치의 경우 하강하게 되는 경우 스크류를 회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런 경우에 스크류를 아끼고 강하게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슬링을 이용한 아발라코프 확보를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마와 확보법 교육이후에는 직벽 빙벽을 한 번 더 탔습니다.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정도까지만 등반을 하여 완등을 하지는 못했으나 점점 더 자세가 나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빌레이를 보다보니 목요일 등반이 끝이 났습니다. 이후 장비를 정리한 뒤 저녁으로는 카레를 먹었습니다. 현세형 이랑 둘이서 단무지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해서 리필해서 먹었고 카레도 너무 맛있고 배도 많이 고팠기에 핫반을 세 개나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조벽래 선배님께서 장비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하네스에 부착하는 장비걸이, 배낭의 가슴 스트랩 사용법 등 여러 장비의 목적을 강조하시면서 유용한 꿀팁들을 방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산가를 불렀는데 설악가와 아득



가 등 여러 곡을 불렀습니다. 왼쪽의자에 앉은 사람들과 오른쪽 의자에 앉은 사람들로 1절, 2절을 나누어서 번갈아가며 불렀는데 경쟁심이 생겨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친해져서 인지 부끄럼 없이 신나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샤워를 하고 공동 텐트에 모여서 난로에 몸을 좀 데우다가 텐트에서 잤습니다. 하늘이는 수요일에 이어 오늘도 공동 텐트에서 자기로 했는데 세 명이서 자다가 한 명이 빠지니 텐트가 조금 더 선선한 기분이었고 추운 공기를 피해 침낭 고무줄을 바짝 조이고 핫팩을

움켜쥔 채 잠들었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마지막 등반일은 어김없이 다가왔고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식사 당번이 아니었기에 본능적으로 꺼버리고 으윽 하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30분 정도 침낭에서 뒹굴거리다가 도연이형과 6시 40분에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다시 눈을 감고 침낭의 따뜻함을 즐겼습니다. 6시 40분에 패딩을 주섬 주섬 꺼내 입고 아침으로 떡국을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떡국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잔 탕인지 배가 고파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 집결하여 오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전에는 이전처럼 빙벽을 타지 않고 강가에서 팀을 짜서 훈련하였습니다. 저는 3조였고 조장을 맡았습니다. 저희 조에는 희진 누나, 그리고 해양대 나영이까지 해서 세 명이서 한 조였고 빙벽 선등법과 이퀄라이징 매듭을 이용한 확보물 설치, 후등 상단확보법 그리고 하강까지 교육을 받았고 역할을 바꿔가며 반복하면서 방법을 익혔습

니다. 이후 낮은 높이의 선등을 한번 서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으로는
역시나 또 라면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광주전남과 썰매 대결
을 펼쳤는데 우리가 이기면 광주전남은 입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어제 비박을 한 광주전남 몸이 안좋을텐데 아이싱을 통해
서 근육을 좀 회복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썰매를 탔습니다. 초
중반까지는 우리 부산쪽이 한바퀴 정도의 거리차로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
지만 마지막쯤 광주전남 팀에서 각성을 하여 어마어마한 속도로 썰매를 타
더니 역전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저서 웃기기도 하였고
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재밌게 놀았습니다.



썰매를 타
고 난 후에
는 단체사
진을 찍고
아까 오전
에 교육받
은 선등, 확
보물 설치,
상단 확보,
하강을 직
접 해보았
습니다. 선
등은 무서
웠 습 니 다.
경사도 완
만하여 쉬
운 코스였
으나 그래
도 선등이
라는 생각
을 하니 약
간 긴장이
되었고 직
접 확보물

을 설치하면서 슬링의 길이가 제가 설치한 스크류 간격에 비해 너무 길어 편하게 확보를 볼 수 없게 되자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성 선배님께서 직접 수정해주시면서 이런 경우 중간 팔자를 메어 길이를 줄이는 법을 보여주셨고 대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확보물을 설치한 다음 상단확보를 통해서 후등자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올라온 회진 누나부터 하강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진 누나가 웃기게도 바일을 꽂아놓고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강할 때 제 바일과 회진 누나 바일 두개 모두 걸고 하강을 하였습니다. 하강을 하면서는 지성 선배님께서 라운드 슬링을 주셔서 오토블락 백업을 걸고 하강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등산학교 때도 배운 하강법이었는데 역시 유용한 하강법인 것 같습니다. 멀티피치의 경우 꼭 오토블락 백업을 사용하여 하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등반을 마치고 저녁을 조리하였습니다. 오늘의 냄비밥 시간을 제가 다 조절해서 조리하였는데 너무 질게 되서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맛있게 먹어주었고 직접 먹어봐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성 선배님께서 콩치김치찜 비주얼을 보고 급하게 부대찌개로 변신시킨 찌개도 아주 맛있어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고 술농도 끓여 후식까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밤에는 선배님들께서 마지막날이라 치킨을 사주셔서 치킨과 함께 술을 거하게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은 술과 함께 즐겁게 보냈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

아침에 추워서 눈을 뗀고 숙취로 인해 비틀거리며 떡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숙취 때문에 국물만 먹고 흑역사를 제조한 어제의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부끄러워하며 여유롭게 아침부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하고 대충 씻고 난 다음 텐트를 정리하고 짐정리를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뭔가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끝났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안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에 민재, 희진 누나, 최우수에 현세형 등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수료식 이후 선배님께서 피자를 사주셔서 맛있게 점심을 해결하고 버스에 짐을 싣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호포역에서는 정현이 아버님께서 감사하게도 부산대 부실까지 태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실에 도착하여 빠르게 언패킹을 하고 해산 하였습니다. 동계가 끝나고 난 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동계를 온 동기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학생장으로서 고생 많이 한 현세형 그리고 우리 부산대 부장님이자 룸메이트 도연이형 그리고 다른 우리 부산대 부원들 희진 누나, 정현, 의지, 효선 다 고생 많았습니다. 동아대 호선이 민재, 해양대 혁준, 나영, 현민, 우현, 동의대 동기 형, 하늘 그리고 사정상 먼저 간 준우형, 선재형 모두 고생 많았고 함께해서 정말 즐겁게 동계산행을 무사하게 잘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생 많이 하시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 하시고 동계 기간동안 안전과 전반적인 모든 것을 케어 해주신 강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성 선배님, 하태웅 선배님, 조벽래 선배님, 이동열 선배님, 최민수 선배님, 백광운 선배님, 윤정민 선배님, 전상은 선배님 등 다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산행에서 만나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대 20학번 김민재

1월 16일 일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동계 등산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동계 등산학교는 기존의 한라산으로 가는 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국립공원 출입이 불가능해서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에 병풍바위에 있는 빙벽장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인 일요일에는 예비 트레이닝때와 달리 조금 늦은 10시에 호포역에서 집합을 했습니다. 개인이 가져온 짐들을 모두 버스에 싣고 빙벽 교육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완주까지는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서 중간에 휴게소

에 들렀다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같은 단대의 호선이가 음식을 사주어서 현세형과 호선이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받았던 김밥 두줄을 점심으로 먹으며 호선이가 휴게소에서 사준 소떡소떡을 함께 먹었으면서 갔습니다. 약 4시간 가량 걸려 완주의 병풍바위 빙벽장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에는 텐트를 치고 짐정리만 하고, 빙벽 교육은 없었습니다. 텐트는 조별로 한 텐트에서 같이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대와 함께 동의대, 경성대까지 한조가 되었지만 텐트가 4인용 밖에 없어서 저희 4조는 텐트를 2개를 치고 인원을 나눠서 잤습니다. 그래서 동아대 대원 3명이 함께 텐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저녁은 배추 된장국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각 단대별로 하루씩 식사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펠로 밥을 짓거나 대량의 국을 끓이는 경험이 다들 부족해서 단대별로 나눠서 하지 않고, 교육생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식사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저녁을 다 같이 먹고 난 후, 부족한 텐트 정리를 마쳐하고 침낭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의 밤은 아주 추웠습니다. 겨울에 텐트에서 자는 것을 알파서 얇게 입고, 패딩만 걸치고 잠을 잤었습니다. 밤에 너무 추워서 여러 번 깼습니다. 추워서 목도리랑 비니도 착용하고 여분의 옷을 발에 감싸고 다시 잠에 들었지만 여전히 추워서 첫날밤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본격적인 빙벽교육이 시작된 날입니다. 일단 6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준비와 식사를 하고, 8시에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기존의 일정이었습니니다. 그런데 동기형이 5시 40분쯤부터 군대 기상나팔을 막 크게 틀면서 얼른 일어나라고 다그치면서 깨웠습니다. 가뜰이나 밤에 잠을 잘 못자고 너무 추워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군대 기상나팔을 듣고 일어나서 그런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비몽사몽하면서 몸을 이끌고 아침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다 같이 아침 준비를 해서 먹고 바로 장비를 준비해서 교육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첫날이라서 그런지 밤새 차가워진 장비를 바로 착용해서 아주 추웠습니다. 첫날 교육에서는 중급반으로 몇 명만 빼고 남은 인원들은 전부 아이젠깡깡과 같은 기초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비 트레이닝을 2번 갔다 오면서 빙벽에 조금 익숙해져서 그런지 중급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급반에서는 따로 교육을 받기보다는 바로 탐로핑으로 빙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심까지 빙벽을 오르고,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다시 오후에는 오전에 올랐던 빙벽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올라봤던 루트라서 그런지 확실히 오전에 처음 올랐을 때 보다는 수월하게 등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음도 오후가 되면서 살짝 녹은 듯한 느낌이어서 바일이나 크램폰이 더 잘 박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끝나고, 바로 저녁준

비를 했습니다. 이날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카레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에 배추된장국의 양조절을 잘 못해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배추된장국에 특식으로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빙벽을 계속 오르다가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밖에서 먹는 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날에는 마찬가지로 중급반으로 바로 빙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먼저 탐로핑으로 올라가기로 해서 하네스에 매듭을 하고 있는데 위쪽에 백업이 안되어 있다고 하셔서 스크류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전날까지 계속 올랐던 높이보다 한참 높게 올라가면서 어디다가 백업 스크류를 설치해야 하나 생각을 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 상단에 앵커 아래쪽에 백업이 하나 있는데 백업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자일이 반대 방향으로 꼬여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확보자쪽의 자일을 넘거나 하는 등으로 꼬인 자일을 풀 수 있지만 백업으로 연결된 비너때문에 자일을 넘어도 백업 아래쪽만 풀리고 위쪽은 그래도 꼬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루트를 끝까지 올라가서 백업을 풀고 자일을 다시 푼 다음에 백업을 하고 하강을 했습니다. 하강을 하면서 다시 자일이 겹치지 않도록 살짝 떨어진 위치에 백업 스크류를 설치하고 하강을 완료했습니다. 이날은 오전에 첫 등반을 너무 길게 하고, 생각보다 어려운 루트로 올라서 그런지 펌핑이 온 이후에 풀리지 않아서 점심으로 라면을 먹은 이후에도 확보를 주로 해주면서 등반은 한번만 더 해보았습니다. 오후에 했던 루트는 고드름이 아주 많고, 각도가 직각정도로 가파를 루트였습니다.

등반을 하면서 턱을 하나만 더 넘으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까지 갔지만 결국 펌핑이 너무 켜게와서 턱을 넘지 못하고 하강을 했습니다. 저녁은 마찬가지로 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감님께서 항상 식사준비를 도와주시고, 등반을 끝내고 돌아올 즈음에 미리 고기를 구워놓으셔서 다들 저녁을 준비하면서 고기를 조금씩 먹으면서 저녁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이후에는 조선대학교 선배님의 말



숨을 들으며 저녁 교육을 받고, 호선이와 함께 샤워를 하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첫날밤이 너무 추워서 옷을 단단히 껴입고 잠에 들었습니다만... 현세형이 마지막에 텐트에 들어오면서 텐트의 플라이를 활짝 열어두고, 텐트 지퍼도 전부 닫지 않아서 너무 추웠습니다. 첫날밤보다 더 추워서 핫팩까지 사용했지만 그래도 너무 추워서 잠을 못자고 아침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잠깐 잠에 들었습니다.



수요일 아침도 동기형의 기상나팔로 기상을 했습니다. 다 같이 조식으로 떡국을 챙겨먹고 8시 반부터 시작하는 교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초급반에서 모두 올라와서 함께 등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팔의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아 오전오후 모두 등반은 많이 하지 않고, 확보를 주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학부모 대표로 조벽래 선배님께서 오셔서 등반을 안 하고 확보만 보는 저와 호선이를 불러서 피켈 등반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프랑스 등반기술들을 알려주셔서 올포인트를 활용해서 경사 완만한 빙벽을 다리만 활용해서 오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스텝이나 올포인트로 내려오는 법 등을 알려주신 이후,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프랑스 등반기술과 피켈 사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부분을 오전에 배웠던 프랑스 등반기술로 올라간 이후 수직이 되는 구간에서 피켈을 활용해서 오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피

켈을 박아 넣고 당기면서 올라가고, 하이대거 포지션, 로우대거 포지션을 활용해서 피켈을 한번만 박고도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벽래선배님께서 피켈을 4번만 박고 끝까지 올라보라고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현세형 이외에는 전부 4번 이상 쓰거나 피켈이 빠져서 실패를 했습니다. 안그래도 팔힘도 빠져서 등반을 많이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호선이와 함께 피켈을 활용한 등반을 연습하면서 수요일 등반을 마쳤습니다. 결국 저와 호선이 모두 피켈을 4번보다 적게 사용해서 등반을 성공하고, 저는 2번만 사용하고도 등반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피켈 등반을 마치고 교육을 끝내기 전에, 선배님들께서 재학생 대표로 고드름으로만 이루어진 어려운 루트를 올라보라고 하셨었습니다. 오르고자 하는 루트가 큰 고드름으

로만 이루어져서 선배님들이 바일을 세게 치면 부서져서 추락한다고 바일을 고드름 틈에 살짝만 찍으면서 등반을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발 또한 크램폰으로 찍을 것이 아니라 턱이 살짝 보이는 곳에 밟듯이 살짝만 찍어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선배님들이 해주신 말들을 참고해서 재학생 대



표로 그 루트를 올라보았습니다. 예비트레이닝을 하면서 미리 배웠었던 N바디와 X바디를 모두 사용하면서 루트를 올라 보았습니다. 팔에 펌핑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올라서 끝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가장 어려운 크릭스부분은 전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면서 고치라고 하셨던 벽래선배님도 방금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목요일에는 광주 전남학생 산악연맹과 연습을 하던 빙벽의 위치를 바꿔서 등반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빙벽을 올랐습니다. 같은 조로 편성된 인원 중에 가장먼저 오를만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장 먼저 루트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트는 아래쪽이 직각정

도에 고드름이 많은 형태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큰 턱이 있어서 턱을 넘고 난 이후에는 단단한 얼음이 있는 루트였습니다. 아래쪽만 잘 넘어가면 완등이 쉽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등반을 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아래쪽의 고드름 부분을 무사히 넘어서 턱에 올라 쉬면서 올라갈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래선배님이 거기까지 갔으면 그냥 내려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래쪽의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좋은 자세로 넘어간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주마를 활용해서 고정된 자일을 오르는 시스템 등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마를 활용해서 고정된 자일을 오르고, 거기서 프루지크매듭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고정이 되는 백업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하강을 해 보았습니다. 내려온 이후에는 스크류링 슬링을 활용해서 아발라코프를 만드는 것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아발라코프 앵커는 보기에겐 쉬워보였지만 실제로 처음 스크류로 뚫은 구멍으로 다음 스크류를 맞추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발라코프 앵커를 만든 후에 슬링을 넣어서 강도를 버텨봤는데 생각보다 더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등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등반을 시작하기

전에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과 썰매 대결도 하고, 선등교육도 받았습니다. 먼저 경사가 없는 그냥 얼음바닥에서 선등 세컨, 후등 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스크류를 박으면서 올라간 후, 이퀄라이징을 하고, 이후 상단에서 확보를 보는 법, 순서대로 하강하는 법, 마지막으로 등반하는 대원이 확보물을 전부 회수하면서 올라오고, 이후 자일을 사려서 아래로 던지는법, 두줄로 하강하는법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교육에서는 직접 실습으로 오전에 등반 연습을 했던 조원들과 함께 직접 선등을 하고, 상단에 이퀄라이징을 하는 등의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스크류를 설치하면서 선등을 하고, 마지막에 스크류를 두개 설치해서 이퀄라이징을 하고, 후등자들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자일의 길이가 부족해서 모든 인원이 상단에 자기 확보를 하면서 있지는 못했지만 한명씩 차례대로 자일을 내리고, 하강을 하고 하는 식으로 등반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어서 빙벽을 조금 더 오르고 싶었지만 교육 받은 내용들 또한 유익했고, 재밌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녁에 선배님들의 지원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재학생들끼리 술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더욱 돈독해지고, 동계하면을 떠오를 여러 가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같습니다.



이번 동계 등산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강사님들 덕분에 일주일간 아무 사고도 없이 무사히 동계 등산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학생간에 교류를 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빙벽 등반 기술을 배워 나가며 어느 정도 실력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에 넘치게도 남자 교육생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지도해주신 강사님들 덕분에 좋은 등반을 할 수 있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강사님들과 선배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무사히 동계를 마치고 산악인으로 한걸음 나아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동계 등산학교에 참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뿐만 아

나라 하계에도, 하계 이외에도 단대끼리 계속 교류하면서 등반을 이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대 19학번 이호선

이번 동계등산학교를 가기 전 예비트레이닝에 참여하지 못하여 동계를 가게 됐을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다들 예비트레이닝을 한 번씩은 참여를 하고 온 상태라 많이 부진하여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안으며 갔었습니다. 하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선배님들께 이론과 실습으로 배워나가니 나중에 되서는 그럴싸한 자세가 나오며 등반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알지 못했던 동계 장비들의 이름도 알게 되었고 선배님들의 다양한 경험담을 들으며 이번동계를 굉장히 알차게 보낸거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타 대학 산악부 친구들과 친해질 수도 있었고 선배님들의 내공 또한 조금 습득할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동계등산학교로만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 더 빠르게 배워 후배들에게 제가 배운걸 알려줄수있게되면 좋겠습니다.

학감님과 선배님들께서 부식과 밥들을 챙겨주셔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학감님 덕분에 너무 편하게 동계를 즐기다 올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성선배님께서도 초반에 자세가 엉망이다, 자세 잘 잡아라 하셨었는데 후반에 등산학교를 끝낼 무렵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뿌듯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생긴다면 열심히 참여하여 좋은 추억 만들어가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박7일간 좋은 추억과 유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대 20학번 김도연

-일시 : 2022년 1월 16일(일) ~ 1월 22일(토)

-대상지 : 전남 완주군 병풍바위 인공빙벽장

-날씨 : 춥고 가끔 눈 음, 대체로 좋은 날씨

-참가자 : 20김도연, 16홍희진, 도민식, 이의지, 이효선, 문정현(이상 21)

-준비물

—개인장비(바일 한 쌍, 하네스, 카라비너 네 개, 확보줄 한 개, 빙벽화 한 쌍, 아이젠 한 쌍, 랜턴 한 개), 방한 장비 각자 챙김

공동장비 : 자일 한 동, 스크류 10개, 킥드로우 20개, 슬링 충분히, 버너 네 개, 코펠 세 개, 스펠 여섯 개, 수저 여섯 세트, 건전지, 간식, 텐트 2동

-교통수단과 경로 : 부실-부장 아버지 차량-호포역-버스-병풍바위 인공빙벽장-버스-호포역-문정현 부원 아버지 차량-부실

저, 홍희진부원, 이효선부원이 1월 2일 석골사에서,

저, 도민식부원, 이의지부원, 문정현부원이 1월 9일 학암폭에서 진행되는 예비트레이닝을 참가해서 빙벽등반의 기초를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1월 16일 일요일

8시5분 부실 출발하여 9시 호포역 도착했습니다. 호포역에서 OB선배님이 운전하시는 버스를 타고 병풍바위로 갔습니다. 새벽에 짜파게티 먹었는데도 점심까지 김밥 네 줄을 먹었습니다. 1240 마이산휴게소를 갔습니다. 병풍바위 앞에 도착하니 여태 다녔던 영남알프스의 빙벽보다 훨씬 높고 거대한 빙벽이 신기했습니다. 즉시 짐을 옮겨 텐트를 쳤습니다. 별 생각 없이 굵은 텐트팩을 챙겨갔는데, 파쇄석에 잘 박히지 않아서 학감님과 해양대 09학번 이동열 선배님 팩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텐트를 칠 곳의 바닥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파쇄석에서는 얇은 텐트 팩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식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큰 비닐하우스에 모여서 교육생들이 직접 해먹어야했습니다. 저녁으로 해양대 쪽에서 된장국과 코펠 밥을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직접 손질들 하시어 해양대13학번 최민수 OB선배님의 조언을 받아가며 식사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은 부산대가 만들어야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는 굉장히 맛있었고 속을 따끈하게 데워줬습니다.

야간교육으로 광주전남과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에서도 등산학교로 병풍바위를 온 것이었습니다. 광주전남쪽 학생들은 굉장히 군기 있어보여서 훈련의 강도가 상당한가 예상해보았는데 며칠을 지켜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광주전남쪽의 강사님이신 조선대 OB선배님이 산악계에서 상당히하신 분이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세계의 굉장히 많은 봉우리를 다니셨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러 조언을 주셨습니다. 당장 앞의 계획부터 짜나가지 않고, 오히려 뒤의 큰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앞의 계획을 역으로 차례차례 세워나가면, 오히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보일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남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후 부산학산과 광주전남학산의 교육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짧게 자기소개를 해서 누가 누군지 하나도 기억 못했습니다. 게다가 소개 끝나고 얼마되지 않아 광주전남이 비닐하우스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해산해버려서 아쉬웠습니다. 이후 주변을 둘러봤는데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가까워서 꽤 괜찮은 캠핑장이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추워서 대충 씻고 10시20분에 취침에 들었습니다. 저랑 도민식부원 이랑 학감님 아들인 하늘이 셋이서 텐트를 사용했는데 하늘이는 먼저 자고, 민식이랑 12시 넘어서까지 떠들다 잤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6시 기상했습니다. 침낭과 침낭커버까지 사용했지만 얼굴에 닿는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서, 새벽동안 여러 번 자다 깼습니다. 정말 춥고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앞으로도 며칠을 이럴 것이라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7시쯤 아침으로 해양대에서 만든 떡국을 먹었습니다. 매일 떡국을 먹었는데 아침으로 제법 괜찮았습니다. 8시 반까지 훈련을 위한 집합시간이라서, 먹고 8시쯤에 텐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착잡하고 두렵고 빨리자고 싶다는 애

기를 민식이와 나누었습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그렇다고 잘 수도 없고, 곧 있으면 움직여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군대에서, 아침 먹고 씻은 후 오전 과업 시간 전에 티비를 보며 대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전 과업 아니 오전 훈련으로 초급자와 중급자로 나뉘어 초급자는 아이젠과 바일을 쓰는 훈련, 빙벽 경험이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중급자는 강사 선배님들이 미리 깔아놓으신 자일들로 빙벽 후등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겨울부터 빙벽을 탔었어서 중급자로서 두 개의 벽을 탔습니다. 후등을 받아 어찌저찌 올라갈 수는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강사선배님들께 엑스바디 8개 동작을 활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코치 받아가며 빙벽을 탈 수 있었습니다. 점심 참깨라면을 먹었습니다. 매일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는데 빙벽 등반을 하면서 에너지소모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 식사였지만 좀 질리긴 했습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비슷한 내용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산대98 백광윤선배님과 09학번 윤정민선배님에게 여러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민 선배님께서 전완근을 많이 단련해놓는게 빙벽타는데 도움 된다는 조언을 받아서 실천해야하겠습니다. 초급자들은 부경대 OB선배님이 썰매를 타서 바일을 찍으며 이동하는 훈련을 받고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녁으로는 부산대가 코펠 밥을 하고 삼겹살을 구웠는데 굉장히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야간 교육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대한산악연맹의 손중호 회장님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제공해주신 분이 손중호 회장님이셨습니다. 손중호 회장님도 여러 좋은 조언을 해주셨고 훈련을 열심히 받으라는 응원을 받았습니다.



끝나고 또 다른 공동텐트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두리산악회?라는 곳에서 설

치한, 난로가 있는 대형텐트인데 주말에만 사용해서서 평일엔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텐트에 둘러앉아 첫 훈련을 보낸 소감을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김지성 책임강사님께서서는 교육속도가 원활한 것 같다고 만족해하셨습니다. 7시쯤 교육이 끝나고 민식이와 샤워장에 가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샴푸가 별로였지만 하루 동안 피곤했던 것이 해소되는 느낌이라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후 자유 시간을 가지다가 11시 취침했습니다. 민식이와 저는 텐트에서 계속 잤고, 부산대 여자부원들은 두리텐트에 모여서 잤습니다. 현세가 저희 텐트에 놀러와서, 내일 현세 아버지 되시는 동아대 조벽래 선배님께서 학부로 느낌으로 오실꺼라면서 목적과 이유를 중요시하신다는 에피소드를 말해주었습니다. 저랑 민식이는 듣는 찔득만으로도 조벽래 선배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실제로 내일 뵈면 어떨까 얘기 나누고 했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6시 기상했습니다. 부산대가 떡국 만들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8시까지 훈련 집결했는데 30분 일찍 시작한 것만으로도 꽤 힘들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엑스바디 8개동작을 코치 받고 후등과 다른 교육생의 후등 확보를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오후에는 엔바디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았습니다. 조벽래 선배님께서 아이젠과 바일에 있는 날의 구조를 설명해주시면서, 바일을 찍는 방법, 아이젠은 차서 박는 게 아니고 딛고 오르는 것 등등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날 밤에 현세에게 들었던 것처럼, 살살이 장비를 분석하시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찍어야하는지 설명해주셔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시에 교육 종료했습니다. 두리텐트에 모여 있는데 의지가 버즈를 끼고 노래 듣고 있었습니다. 교육 끝나자마자 무슨 노래를 듣고 있나 물어보니, 노래 제목이 '어제 너는 나를 버렸어'라기에 다들 빵터졌습니다. 19시에 하네스에 달려있는 주요장비에 대한 교육을 책임강사님께 받았습니다. 이후 조벽래 선배님의 인생교육이 진행되었는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등산교육을 받고, 왜 무엇을 목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야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민식이와 처음 샤워장에서 샤워를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따신 물이 잘나오지않아, 그 추운날씨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서 짜릿했습니다. 이후 11시쯤 취침에 들었습니다. 현세가 텐트에 눌러왔는데, 어찌다보니 저랑 현세는 하늘이에게 군대에 대한, 스무 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하늘이가 툭 물어보자마자 들떠서 한 술 더 떠서 떠들어댔습니다. 하늘이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몇 년 전을 떠올리며 얘기를 하니 재밌었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6시 기상하여 떡국 먹었습니다. 8시에 집결하여 활락제동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육생들이 빙벽을 후등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엔바디를 활용하여 등반해보고 확보도 봐주고 그랬습니다. 점심 라면과 연맹에서 응원오신 선배님들이 해주신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의 자극적인 떡볶이 맛이 기분 좋았습니다. 오후도 비슷하게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녁은 참치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간 교육으로 책임강사님과 산가부르고, 학감님이 제작하신 교재를 공부했습니다. 산악부를 일 년 반하면서 산가를 제대로 몰라서 OB선배님들께 부끄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기에 후배들에게 틴틈이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6시 기상 떡국 먹었습니다. 8시 반에 훈련 집결하여 여태 타던 빙벽구역에서 더욱 우측의 빙벽을 탔습니다. 저는 여러 자일들 중 두 개의 자일을 후등 성공했습니다. 점심으로 오동통면 먹었습니다. 오후에 다른 자일 시도했는데 왼쪽 팔이 털려서 더 이상 완등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조벽래 선배님이 등반하는 저를 보시더니 엔바디를 할 때 쓰지 않는 발은 과감하게 옆으

로 자세 잡아서 살짝만 지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언을 기억하면서 오후에 등반을 하다 보니 엔바디에 대한 느낌이 무엇인지 꽤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카레를 먹었습니다. 야간 교육으로 조벽래선 배님의 선등자를 위한 장비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비와 노하우를 설명 해주셨는데 제 눈에는 스크류 등을 걸 장비걸이가 되게 탐이 나서 다음 구매할 장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산가 불렀습니다. 설악가가 노래가 되게 좋은 노래였습니다. 하계로 설악산 갔을 때 불렀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설악산 때는 마지막 산행 날에 꼭 불러보아야하겠습니다. 이후 두리텐트에 모였습니다. 이 날 밤에는 많은 인원들이 두리텐트에서 자기위해 침낭과 매트리스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정신없는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봤는데 우리 여자 부원들의 어택가방과 빙벽화 등이 벽을 따라 늘어져 있었습니다. 공동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래 지낼 텐트에 두어야 할 등반장비 가방과 빙벽화를 계속해서 두리텐트에 두면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세가 이 점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지적했는데, 제가 눈여겨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이 아주 미안했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이미 훈련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넘어갔는데 다음 장기 산행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구역과 개인구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후 11시에 취침했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6시 기상 떡국 먹었습니다. 8시에 훈련 집결했습니다. 빙벽안타고 밑에서 팀 훈련했습니다. 해양대 강혁준 교육생과, 문정현 부원, 저, 하늘 이렇게 네 명이서 팀을 이루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서, 선등자가 스크류를 박으면서 나아간 후 확보지점



을 설치해서 나머지 팀원을 모두 끌어올린 후 다시 한명씩 하강시키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선등자가 된 저는 용철 선배님과 애바위를 등반해본 적이 있어서, 확보 지점이 갖추어졌던 멀티피치처럼 할 만할 것이다 생각을 하며 출발했습니다. 강위에서 편하게 해보면서, 수직의 빙벽에 매달려서 똑같이

해보면 스크류를 박는 작업이 동반 되기 때문에 좀 더 머리를 써야하고 힘이 많이 들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렌드를 직접 설치하면서 나아가는 부채바위도 얼마나 힘들지 예상해보며, 저는 대부분 볼트가 갖추어졌던 암벽 등반을 해왔을 뿐이었구나 생각해보았습니다. 뒤 따라오는 세 명의 팀원 다들 멀티피치 개념을 잘 몰라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상단 확보와 하강 등을 가르쳐주면서 하강까지 진행해보았습니다. 끝난 후, 강혁준 교육생이 선등자가 되면서 두 번째 팀훈련을 해보았습니다.



혁준이가 아직 등반 시스템이 익숙지 않아보여서 제가 옆에서 알려주면서 두 번째를 마무리했습니다. 끝나니 점심시간 직전이었습니다. 저희 조는 빙벽 쪽으로 이동하여 스크류 몇 개 박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1시에 광주전남과 바일로 썰매타기 대결을 했습니다. 부산이 아깝게 졌습니다. 14시쯤 실제로 빙벽에서 팀훈련을 했습니다. 강에서 했던 그대로 하던 되는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등을 서서, 그 높은 빙벽의 중간 지점쯤 살짝 완만한 경사를 딛을 수 있는 지점에 확보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

로 정현이 등반을 확보 봤고, 정현이가 하늘이 확보, 하늘이가 혁준이 확보 보도록 옆에서 코치했습니다. 네 명이 모두 제가 만든 확보점에 매달린 것을 보니, 내가 잘 만들었구나 싶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후 까베스탕 매듭을 이용해 역순으로 하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줄 하강함으로써 안전하게 팀훈련을 마쳤습니다. 이거 훈련만 하는 데에 약 두 시간이 걸린듯하여 기진맥진했습니다. 끝나고 철수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희진 누

님이 빙벽의 끝까지 후등하는것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빙벽등반 날이니 한번 더 등반을 한 것이었습니다. 희진 누님의 능력과 열정에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부산대 부원들은 희진 누님이 내려와서 고생했다고 응원해주었습니다. 이후 <파란색 아닌 빨간색 배경>의 진짜 부기를 들고 책임강사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산대끼리 부기를 들고 빙벽 배경으로 사진 찍으니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광운 선배님 윤정민 선배님 계실 때 찍을 걸 싶어 참 아쉬웠습니다.

저녁 부대찌개와 고기를 구워먹었습니다.



7시에 광주전남과 모여서 치킨 과자에 술 한 잔 하면서 떠나기 전 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병풍바위 빙벽을 만드신 OB선배님(죄송하게도 성함을 못 외웠습니다)이 방문하셨습니다. 요세미터를 13번 등반하셨던 선배님은 더 좋은 빙벽을 제공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다음 겨울에 오면 더 좋은 빙벽을 만들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말라야에서 돌아가신 고 박무택 산악인의 시신을 찾는 원정대에 참가하셨던 이야기도 해주셨고, 산악부 후배들에게 더 좋은 빙벽등반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싶고 대둔산을 암벽빙벽 등반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존경스럽고 감사한 선배님이셨습니다. 취침시간은 기억 안 납니다.

1월 22일 토요일

6시 반쯤 기상했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숙취가 사알짝 있었는데 떡국을 먹으니 좀 해소됐습니다.

8시부터 철수 시작했습니다. 고생해서 설치했던 텐트를 다시 해체하여 정리하고 배낭도 잘 정리했습니다. 저는 어택배낭을 큰 배낭의 뒤에 달아서 갔었는데 책임강사님한테 이러면 위험하다고 혼났습니다. 앞으로는 앞뒤로 배낭을 매면서 이동해야하겠습니다. 11시에 시상식을 했습니다. 다들 실력이 향상되었고 열심히 했기에 누가 어떤 상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부산대는 이의지 부원과 홍희진 부원이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운전 해주셨던 선배님이 도착하



셨는데 감사하게도 피자를 사서 오셨습니다. 청년피자를 맛있게 먹고 짐을 챙겨서 12시20분쯤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도 두껍게 입었었고 여태 엄청 추운 곳에 있다왔더니 호포역에 내리자 더운 느낌이 들어서 이제 부산 날씨 별꺼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되니까 똑같이 춥습니다. 호포역에서 정현이 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차를 태워주셔서 차에 북적북적 짐을 싣고 문창회관까지 이동했습니다. 부실에서 언패킹하고 텐트 좀 널어놓고 부실을 떠나니 17시 반쯤 됐습니다. 아직 정리할게 좀 남았지만 이렇게 동계를 끝냈습니다.

여러 부산대 선배님들과 연맹선배님들께서 물심양면 도와주셔서 부족함 없이 동계를 다녀올 수 있었고, 다들 큰 사고 없이 돌아온 것 같아 다행입니다. 김지성 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OB선배님들께 빙벽등반 등의 동계훈련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히 여기며 계속 들어올 후배들에게 이것들을 전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교육생 재학생들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함께 고생을 하면서 격려하니 6박 7일을 견뎌낸 것 같

습니다. 사실 밥/설거지 당번이 있었지만 너나할 것 없이 당번을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현세가 당번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습니다. 어찌다보니 저랑 현세중에 누가 학생장을 하나하는 구도가 됐는데 현세가 흔쾌히 학생장을 맡았습니다. 동계 중 학생장의 임무와 책임을 목격하니 현세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싶어 참 감사합니다. 저도 현세 돕는다고 도왔지만 역시 책임이 덜하기 때문에 최대한 돕지 못하여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원들은 예비트레이닝에서 빙벽타면서 고생하고 어떻게 6박7일을 견디나했는데 보란 듯이 다들 해냈기에 기특합니다. 민식이는 이번 겨울 처음 빙벽을 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탔고 팀훈련을 이끌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서 멋졌습니다. 좀 더 빨리 산악부 들어왔다면 싶은 생각이 맨날 듭니다. 의지와 정현이도 날씨도 춥고 팔에 빨리 힘도 빠지고 무섭고해서 빙벽 타느라 고생했겠는데,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동계를 보낸 모습인 듯 하여 이 점이 기특합니다. 앞으로도 산악부를 위한 몸을 단련시키면 이제 2학년이기에 계속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선은 헬창으로써 어느 정도 피지컬은 감당도 되고 겁도 막 내진 않았던것 같은데, 처음 빙벽인지라 엑스바디 기술 느낌을 살리는 데에 고군분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러 번 빙벽타면서 뒤에서 누가 코치하다보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효선이 이제 휴학을 때려버려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CPA를 좋게 마무리하고 복학하여 산악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구나 싶습니다. 희진 누님이야말로 등반경험도 많고 웨이브락, 헬스 등등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 아주 열정적으로 빙벽을 탔고 실제로 완등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라 태클 걸 것도 없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여자부원들이 우러러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부산을 이제 떠나시기 때문에 잘 못 보겠지만 산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시어 또 산



에서 만나면 좋겠구나 싶습니다.

저는 선등을 비롯한 여러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학암폭같은 곳을 꼭 선등서보고싶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추락을 안 먹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졸업 전에 재학생들만 데리고 빙벽등반을 가보고싶구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산을 타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지성 선배님은 산을 왜 가는지 생각해보아야한다 하였고 조벽래 선배님도 행위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한다고 하셔서 이번 동계가 끝나고 왜 나는 산을 다니는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성취감 때문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고 팔다리를 후들거리면서 산을 바위를 기어올라서 내려다보는 고도감 혹은 저 멀리 풍경들은 여러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도시 속에서도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 적당히 빠세면서도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닌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느낌을 즐기러 계속 산에 다닐 듯합니다. 아무쪼록 산을 다니시는 악우분들은 성취감이든 고생이든 아무나 못하는 경험을 하신다는 것에 뿌듯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2022년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보완점

파쇄석에다가 텐트팩 박을 때는 얇고 긴 것으로

후배들에게 산가를 잘 알려주자

공용텐트에 개인장비 두는 것을 지양하자

배낭 두개를 땔 때는 앞뒤로 매자

뽕족한 장비를 배낭에 담을 때는 주변에 위험하지 않게 안전을 확실히 하자



■ 주요 내용

- 대상지 : 전북 완주군 운주군 병풍바위
- 일 시 : 2022년 1월 16일~ 22일(6박 7일)
- 목 적 : 1. 단결, 인내, 안전을 통한 바람직한 대학 산악인의 가치관 확립
2. 빙벽등반에 대한 올바른 등반지식과 기술을 연마
3. 적설 등반을 통해 흰 산에 대한 열망 및 대학 산악부원으로서의 자긍심 공유
4. OB·YB 합동 등반을 통한 학산 선후배간의 기술 교류

- 산행기

#1월 16일 : 집결, 텐트 설치, 짐 풀기

※ 특이 사항

1) 겨울 장박 텐트 치는 법 (겨울 텐트는 바닥 공사 중요!)

- 텐트 칠 자리는 최대한 고르게 할 것
- 텐트 설치 전 바닥에 큰 비닐을 먼저 깔 것 (습기 차단, 텐트보호)

* 바닥은 파쇄석 위가 제일 좋긴 함

- 폴대 끼울 때 잡아당기지 말고 쪽 밀어 넣기
- 팩 다운은 폴대 방향으로 45°를 향하게 할 것

2) 텐트 내

문제1) 4-6인용 텐트에 5명(우모복까지 완전 복장 상태..)이 지그재그(머리, 발 교차)로 누웠으나 움직이기 불가, 누운 내내 다리가 아플 정도로 불편하게 잠. 둘째 날부터 캠프 타워에서 잠

⇒ 해결방안

① 침낭 속에서는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 (보온증가, 공간확보)

*침낭 : 침낭은 체온을 충전재에 보관하기 때문에 두꺼운 패딩을 입기 보다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사용할 것

② 난방 보조 장비를 활용하자

: 침낭 바닥에 매트 깔기, 침낭 속에 핫팩과 따뜻한 물병+수건 함께 사용하기

문제2) 결로

- > 잘 때 통풍구 만들고 자기
- > 결로 생겼다면 낮에 꼭 말려줄 것

1월 17일 : 스윙기술, 프론트포인팅, X-position

1월 18일 : 스윙기술, 3지점, ZigZag position, 빙벽 등반 장비 설명

1월 19일 : 기술 반복 연습, 등반, 자기제동

1월 20일 : 등반, 썰매대회, 주마

1월 21일 : 이퀄라이징, 선등·후등 확보물 설치

1월 22일 : 수료식, 귀가

※ 빙벽등반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1. 장비(가장 중요)

- 빙벽화는 최대한 뒤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할 것

> 발가락 최대한 앞으로 밀착, 뒤꿈치와 발등에 패드 사용하거나 양말 여러 겹,

신발 끈 꼭 묶기

- 장비 손질 (바일의 피크와 스파이크, 크램폰 날카롭게)

- 보온, 방수 장갑 여분 준비 (등반 시 하나는 품에 넣기)

- 안전벨트, 슬링, 안전모 등 장비 상태 꼼꼼하게 확인할 것

2. 자세 (동작은 과감하게!, X-바디 8개 동작 숙지!)

1) 타격 시

1-1) X-바디

- 엉덩이 최대한 앞으로 집어넣어!

- 상체 최대한 뒤로 젖혀!

- 발 간격은 어깨보다 넓게, 발 11자, 수평 유지!

- 프론트 포인팅 발뒤꿈치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1-2) 스윙

- 내 팔을 쭉 뻗을 때 닿는 지점이 100%라면 80% 지점에 타격점을 설정!

- 짧게 끊어 찍는다는 느낌! 마지막에는 끊어내린다는 느낌!(찍히는 최종 순간이 중요)

- 바일 사이의 간격은 내 어깨너비 혹은 살-짝 좁게, 최대한 수평에 위치

하도록

- 빙면을 넓게 부수지 않게 정확히 타격
- 균열 생긴 얼음은 잘게 부수어 떨어뜨리기
- 낙빙이 예상되면 미리 경고하여 아래쪽에서 대비할 수 있게 하자

2) 등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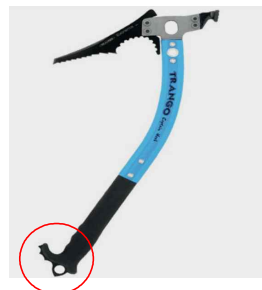
- 상체 숙이고 엉덩이 최대한 뒤로 빼!
- 팔의 뼈대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팔을 쭉- 펴!
- 발 쪽 바라보면서 발 타격 지점 정해!
- 발 간격 다시 좁히고 차분히 착착착착 올라가!
- 발 정리할 땐 꼭 발 간격 넓히고 발에 체중을 실어!
- 여러 번 차지 말고 한 두 차례, 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 (교대강사님 : “엄지발가락 올리고 걷어찬다는 느낌”-> 수평유지)

3) 낙빙 시

- 머리와 몸을 수직으로 하여 바일 가까이 붙고, 손을 몸 안쪽으로 숨긴다

4) 스크류 박을 때(오른손 잡이, 선등)

- 바일, 발 확실하게 하기!
- 오른손으로 안전벨트에 걸려있는 스크류 빼고 왼손에 쥔다.
- 스크류에 걸어 놓은 킥드로우를 오른손으로 빼고 오른쪽 바일 손잡이 아래 구멍에 건다.
- 다시 오른손으로 스크류를 잡고 자신의 허리 쪽에 스크류를 고정할 위치를 지정한다.
- 고드름이 막고 있다면 어느 정도 면을 고르게 다듬는다.
- 스크류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 스크류에 체중을 싣고 힘껏 손잡이를 돌려 고정시킨다.
- 스크류 행거의 방향은 모두 동일하게 한 후 손잡이 정리하기
- 킥드로우를 행거에 걸고 자일 통과 후 계속 진행



3. 마음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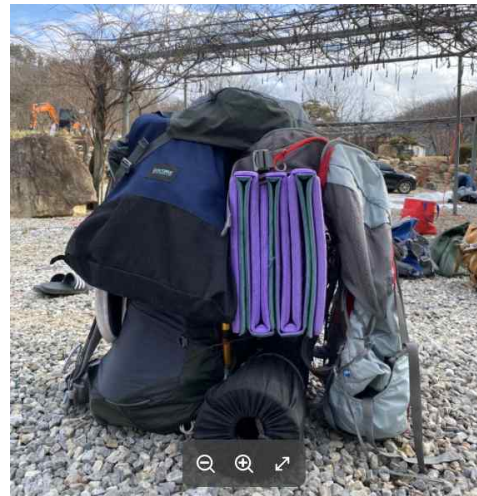
- 천천히 움직이고, 짧게 차분히 올라가자(특히 X-바디)
- 당황하지 않는 마음
- 낙빙에 대한 경각심
- 내 장비에 대한 신뢰. 발과 바일을 믿어!!!!!!!!!! 제일 중요!!!!!!

4. 간식

- 부피 작고 입으로 녹여 먹을 수 있는 것, 뜯기 쉬운 포장인 간식 GOOD.
(예 : 오트밀 미니 바이트, 미니 초코바, ABC 초콜릿, 말랑카우, 마이썸 등)

5. 패킹 방법

- 침낭을 제일 밑에 넣을 것
- 무게 중심이 가운데 위쪽을 향하도록
 - > 아래로 갈수록 가벼운 물건
- 빈 공간 생기지 않도록!
작은 빈틈이라도 쑤셔 넣을 것.
- 좌우 밸런스 중요
 - > 가방 내려놓았을 때 쓰러지지 않도록
- 헤드에는 자주 꺼내 쓰는 용품 (예 : 헤드랜턴, 간식 등)
- 35L 어택배낭은 아무것도 넣지 말고 헤드에 걸자.



6. 준비물(본인)

- 수건은 스포츠 수건 한두 개로도 충분
- 우모복 더 따뜻한 걸로 챙기자.. 동방꺼 너무 추웠음
- 등반시 입는 겹옷은 꼭 방수되는 옷으로 입을 것
- 발가락, 손가락 추워서 감각 없어도 계속 꼼지락 대기 (아이젠 짹짹!)
- 장갑 웬만하면 벗지 말자. 특히 크램폰 신고 벗을 때!!
- 손, 피부 다 트고 상처 많아서 완전 고생함. 핸드크림, 수분크림 꼭 챙기기
- 손목 아프면 밴딩(최민수 선배님이 주신)
- 빙벽화는 꼭 텐트 안에 넣어두고 신기전에 난로 앞에 녹인 다음 신을 것 (동상방지)
- 개인 물건 꼭 가방에 넣어두기

- 개인(단체) 물건은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꼭 표시하기
- 양말 길고 두꺼운 양말 + 얇은 양말 1set으로 신는 것도 괜찮더라
- 손톱깎이(!), 가위, 칼 챙기기
- 휴대용 핫팩, 붙이는 핫팩, 발바닥 핫팩
- 렌즈 얼어서 찢어졌음. 주의
- 내 복장 : 내의(상하의), 바지 두 겹, 티셔츠 두 겹, 조끼 패딩, 집업, 패딩, 양말 두 겹, 바라클라바
- => 우모복은 크고 모자 달린 걸로, 집업 말고 방수바람막이, 바지도 되도록 방수되는 걸로
- 근력 더 키우기
- 동계 내내 아침 떡국, 점심 라면 먹었는데 안 질리고 든든했음.

VII. 산악부 탐방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산악부입니다.

저는 2021학년도 부장 19학번 김경민 입니다.

현재 12명의 재학생이 YB로 활동하고 있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인해 산행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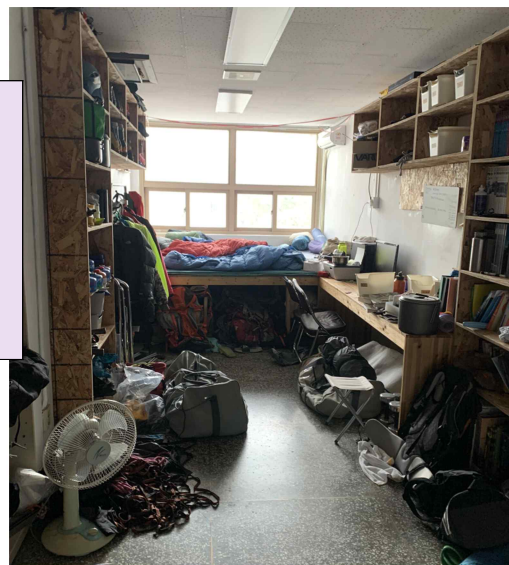
5인이상 집합 금지가 풀린다면 1박 산행, 외벽, 자연암벽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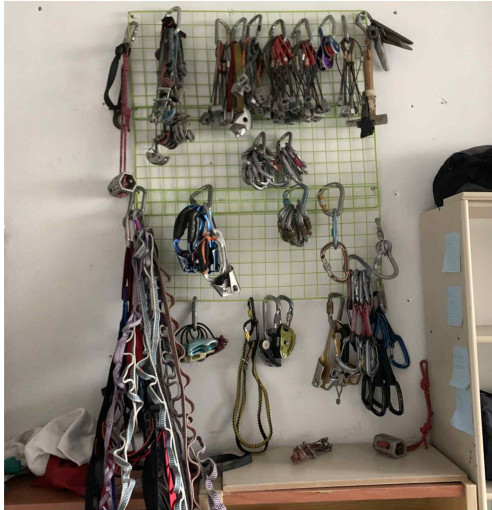
부경대학교 산악부 동아리방



동아리방 입구입니다.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워드센터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위해 입구 위에는 턱걸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광경입니다.
현재는 침낭을 말리고 있는데
휴강에 저 공간에서 잠을 자거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비를 걸어두는 곳입니다.
현재 장비를 말리는 중이라
걸려있는 장비가 몇 개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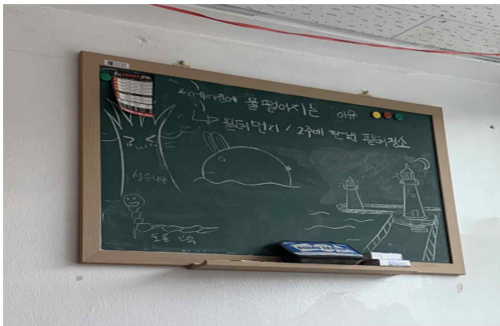
겨울에 사용하는 빙벽화를 모아두었습니다.
빈칸에는 개인장비들을 두기도 합니다.

헬멧, 식기류, 가스, 구급약등
대부분의 장비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산악, 등반 관련 책과
선배들이 남기고간 전공책이
많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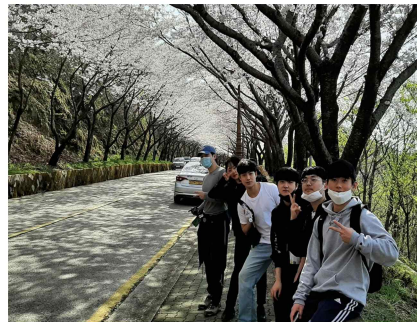


게시판을 걸어두었습니다.
회의 시 사용하거나
공지사항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산악부 2020년 기록

4월 3일 황령산 벚꽃산행

2020년 개강 첫 산행입니다.



5월 31일 금정산 워킹

정상이 801.5m, 부산에서 가장 높은 금정산 고당봉으로 워킹을 했습니다.



8월 1일 1박2일 금정산 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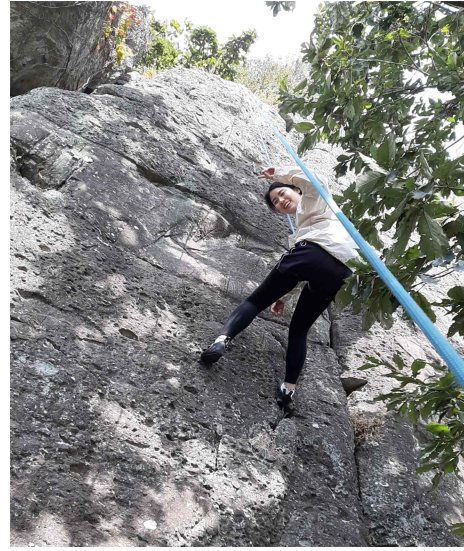
첫 1박 산행이었는데 신입생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10월 12일 승학산 암벽등반

승학암으로 암벽등반을 했습니다.

암벽등반이 처음이라 쉽지 않았을 텐데 재미있게 참여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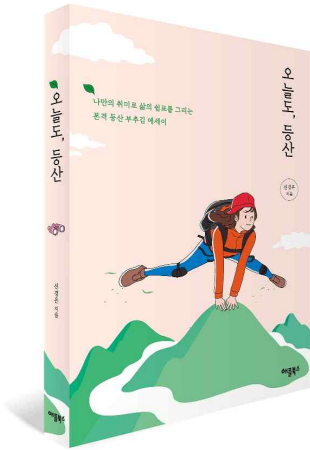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준비도 덜되었고 활동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후배를 받는 해였는데 활동도 많이 하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못해 여러모로 아쉬웠던 한해가 지나가버려서
후배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OB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부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경대학교 산악부를 열심히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III. 산악 도서, 영화



조급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눈에 좋은 것들을 담다 보니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오늘도, 등산》은 끈기라곤 몰랐던 어느 직장인의 본격 취미 생활 도전기이다. 저자가 어떻게 등산의 매력에 푹 빠져 주말마다 산을 오르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발랄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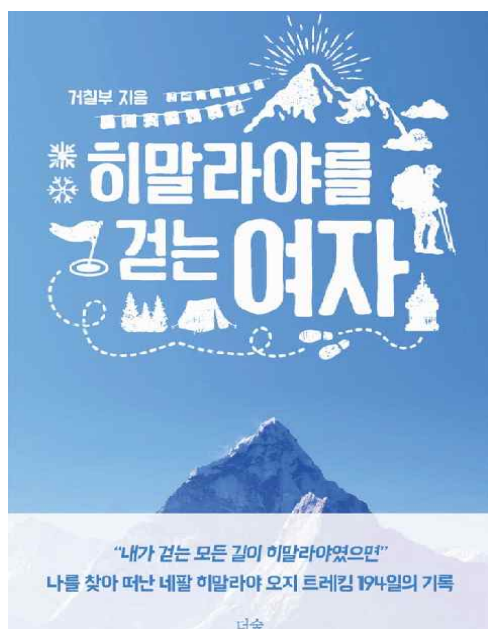
저자는 입사 4년 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생활이 몸에 익을 무렵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취미가 필요했다. 그러나 의욕이 넘쳐 시작해도 금방 시들해지던 그동안의 실패가 발목을 잡았다. 온갖 준비물을 다 갖추고 장기 회원증까지 끊었지만 몇 주 다니다 포기한 요가 강습도 생각났다.

“좀 가볍게 접근할 만한 운동 없을까? 장비를 사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시간을 놓쳐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때 10여 년 전 아빠와 산에 올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게 등산에 입문하게 된 저자는 첫 산행 이후 ‘1주 1산’을 목표로 주말마다 산에 올랐다. 첫 번째 산행에서 등산의 참맛을 본 뒤론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일출 산행을 떠나고, 혼자서도 룰루랄라 전국의 명산을 누빈다. 매주 산을 오를 때마다 좋아하는 취미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 주는지 실감하는 그녀는, 주말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평일의 힘겨움을 이겨 내는 힘이라고 말한다. 어떤 산에 갈지 생각하는 과정이 설레고, 산에 오를 가방을 싸는 일부터가 두근두근 작은 여행의 시작이라고. 몸과 마음이 튼튼해진 건 당연하다.

이 좋은 취미를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쉬워서 책을 쓰게 된 저자는 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인지를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길어지

는 방역 기간 속에 마땅한 모임이나 취미를 갖기 어려운 요즘, 혼자서도 즐겁게 실행할 수 있는 등산이야말로 언택트 시대 최고의 취미 생활이 아닐까.



책소개

“내가 걷는 모든 길이 히말라야였으면”

한 여자가 만난 다섯 번째 히말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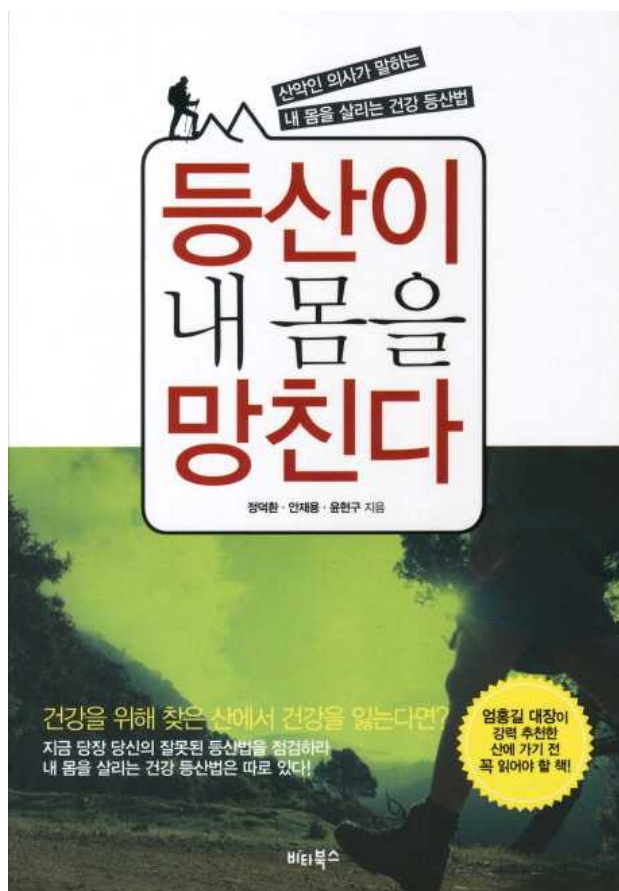
194일 1783킬로미터, 히말라야 오지를 따라 걷다

오늘도 여전히 히말라야로 떠날 궁리를 하는 여자가 있다. 히말라야 트레커 사이에서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의 블로그 ‘길을 찾는 즐거움’으로 히말라야 트레킹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전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칠부’ 작가다.

서른아홉에 17년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둔 작가는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산으로 떠났다. 네팔 무스탕 사진을 보고 히말라야를 꿈꾸기 시작한 뒤로는 2014년부터 매년 히말라야를 찾았다. 그렇게 지난 6년간 6천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걸었다. 그리고 신라 장군의 이름에서 가져온 필명 ‘거칠부’답게, 다섯 번째 히말라야 트레킹에서는 ‘오지’로 과감히 모험을 떠났다.

안나푸르나 3패스를 거쳐 랑탕 간자 라-틸만 패스, 마칼루 몰룬 포카리, 마칼루 하이패스(3콜), 쿼부 2패스 1리, 무스탕 테리 라-사리봉 라, 안나푸르나 나문 라, 잘자라 패스-도르파탄, 하돌포 카그마라 라, 고사인 쿤드 18호수까지, 194일 1783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여정이었다. 작가는 이번 책에서 소소하지만 때로는 아찔하고 특별했던 순간들, 산을 걸으며 남몰래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 트레킹에서 얻은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까지 ‘오지’에서 만난 사람과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들려준다.



건강을 망칠 바에야 차라리 등산하지 마라!

국가대표 운동 ‘등산’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등산이 내 몸을 망친다』. 대학 시절 산악부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등산을 즐긴 정형외과·내과의사인 저자들이 건강하게 등산을 즐기는 법을 소개한다. 등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고, 등산의 핵심인 보행과 호흡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등산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과 등산 전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등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등산법과 당뇨병,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을 지닌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등산법도 담았다.

IX. 2020 행사 사진

*제48회 연맹제



***제53차 정기총회**

일시 : 2020년 5월 22일

장소 : 노블리아뷔페





X. 2021 행사 사진

*제49회 연맹제 행사 보고

일시 : 2020년 11월 7일 (일)

장소 : 금정산 북문 산장, 북문 탐방센터

행사 내용

산행 : 범어사 입구 9:30 à 고당봉 11:00 à 북문산장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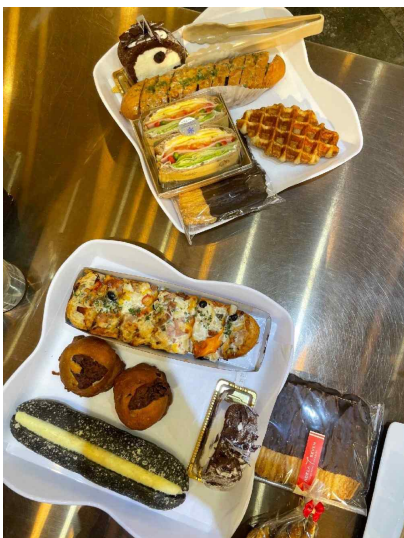
연맹제 : 북문 탐방센터 (구.북문산장)

제례 후 동문까지 산행 후 산성마을 연정식당에서 뒤풀이
참가인원 총 30명





*실내암장 체험



***제53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참가**



(사)대한산악연맹(회장 손중호)은 11월 14일(일),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제53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며, 경상북도산악연맹, 문경시산악연맹이 주관, 대한체육회, 문경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며, (주)콜핑이 협찬하는 이번 대회는 남녀 고등부·대학부·일반부·장년부 등 총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총 87개팀 261명이 참가하였다.

대회 평가는 3인 1조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경기구간을 이동하며, 운행능력·산악독도·등산이론·응급처치·기초 암벽등반·매듭법·산악안전 등 등산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점검받은 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결과, 부산광역시산악연맹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남녀 고등부 우승팀은 각각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대구보건고등학교A가 차지했고, 지도교사에게 수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울산 마이스터고등학교 김진영 지도교사와 대구 보건고등학교 김대연 지도교사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장 입장 전 문진표작성, 발열체크 등 단계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대회 안전에 만전을 기했으며, 무관중 대회로써 대한산악연맹과 문경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올해 53회째 개최되고 있는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는 우리나라 산악발전의 산실로서, 대한민국 산악강국의 면모를 튼튼히 하는 산악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대부

우승 동아대산악부

2위 부산교대산악부

3위 부산대산악부

여대부

우승 부산교대산악부

참가 부산대산악부







*영호남 합동등반

목 적-영호남 학생산악연맹(대구, 광주, 부산) 합동 산행을 통한 유대 강화
및 친목 도모

행사개요

일 시: 2021년 11월 21일(일)

대상산: 금정산(802m)

주 관: 부산학생산악연맹

대 상: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부산학생산악연맹

준비물: 산행복장, 배낭, 식수, 중식, 간식 등

코 스: 09:30 부산지하철 2호선 호포역 2번 출구(주차장-행사) -
9:50 산행출발 - 금호사 - 팔각정 - 임도갈림길 - 고당봉 -
북문(중식) - 4망루 - 동문 - (뒤풀이) 후 해산 : 산행시간-4시간





XI. 2020 단대별 활동

■ 경성대학교

4월 12일

경성대 두클라이밍집



5월 2일

승학산 워킹



9월 26일
황령산 위킹



11월 15일
등산학교 6일차



■ 동아대학교

10월 31일

등산학교 1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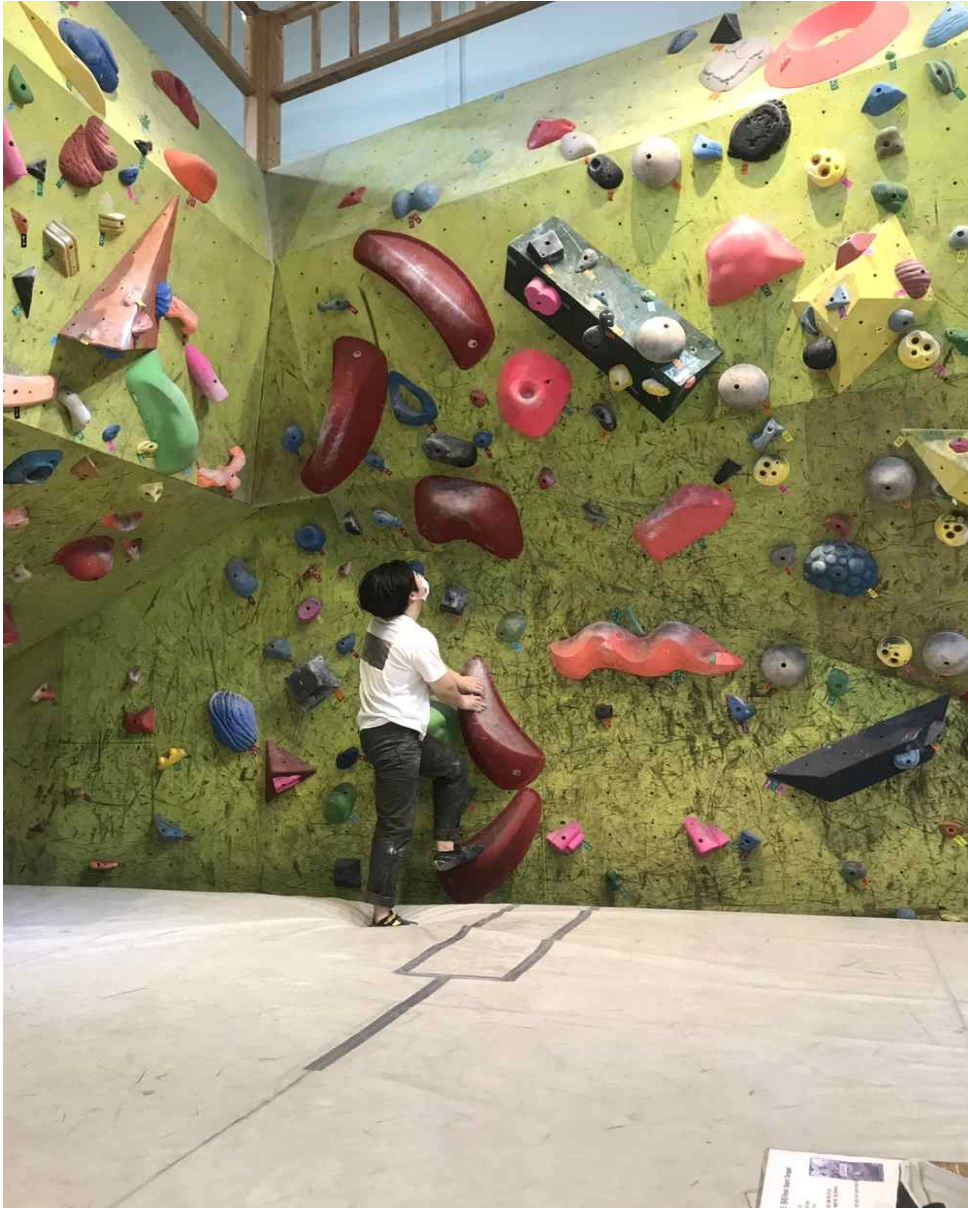
11월 1일

등산학교 2일차



11월 7일

등산학교 3일차



11월 8일

등산학교 4일차

선배님들께서 교육생을 위하여 끊임없이 피드백 해주시고 오랜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기술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배우지 못할 아주 큰 경험을 했습니다!! 교육이 끝날때까지 안전에 항상 주의하며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등산학교 5일차
금정산

침니 구조가 혼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침니 구조를 처음 보았는데, 두 바위 사이로 길이 쪽 손아오른 모습을 보고 “이걸 올라간다고?”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올라가는 방식은 상당히 이색적으로 등도 사용할 뿐더러, 힘의 방향이 앞과 뒤로 작용하는거라 신기했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신 강사님들과 선배님들께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싶습니다!!!!



11월 15일

등산학교 6일차

금정산 무명릿지

등산학교를 꼭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을 배워서 동아대 재학생 인원만으로도 등반을 하고 싶었습니다. 승학암이나 대륙암 또는 동래암장과 같이 입문자에게도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가서 ‘우리들’끼리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문득 든 생각에 ‘(동아대)애들 모이서 자일하나 어깨에 둘러메고 이야기하면서 등반해보면 재밌겠다.ㅋㅋㅋ’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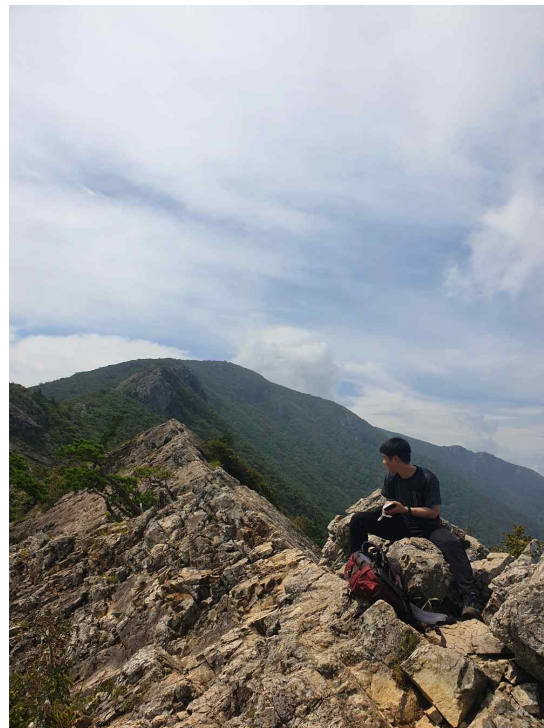
부족한 부분은 선배님들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하고, 다우악이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노력하겠습니다!!□)이자 다 같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3주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아쉽기도 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다우악~ 파이팅~~~!!!



2020년 11월 15일 일요일
승학산

2020년 09월 10일
신불산 산행



2020년 11월 21일

가지산 산행



2020년 12월 26일

영축산 산행



■ 동의과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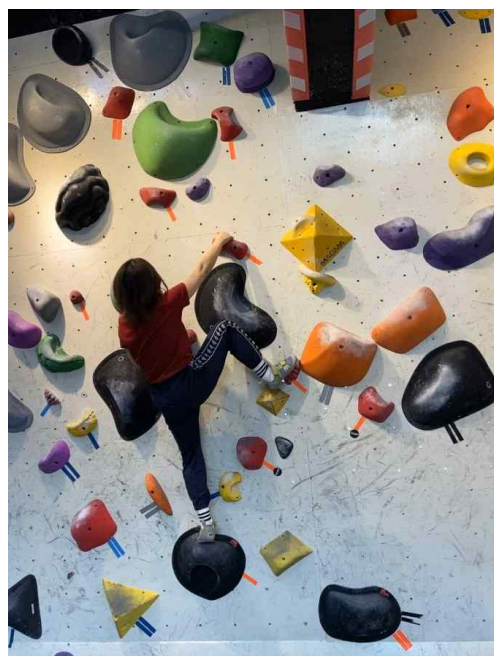
2020년 4월 12일

부산 황령산 산행 (김태균 외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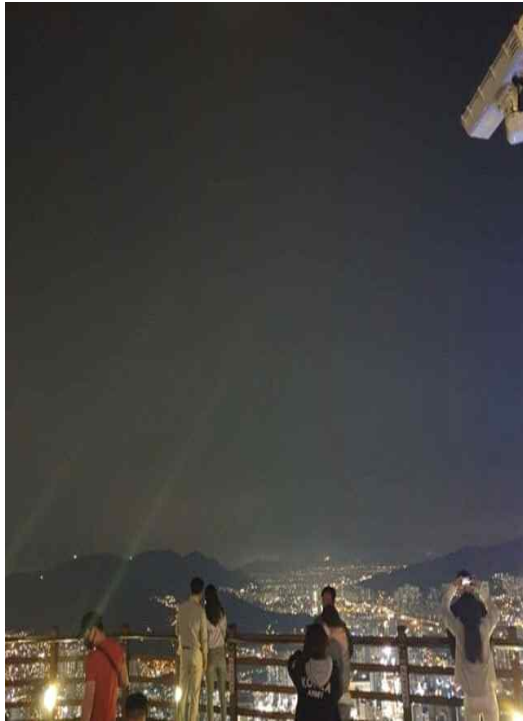
2020년 5월 2일

서면 브로스 클라이밍(박가빈 외 5명)



2020년 6월 5일

부산 황령산 야간 산행 (김태균외 9명)



2020년 7월 4일

부산 백양산 산행 (김태균외 4명)



2020년 7월 5일

부산 장산 산행 (박가빈외 4명)



2020년 10월 10일

부산 장산 산행 (김태균외 4명)



2020년 11월 7일

부산 금정산 산행 (김태균외 2명)



2021년 1월 14일

지리산 산행 (김태균외 2명)



■ 춘해보건대학교

2020년 6월 21일

OBYB 합동산행&시산제 (금정산)



신민영

10/31 등산학교를 여러 번 참가하였지만 아직 배워야 할 매듭법도 있었고 처음 배우는 신입생들을 보니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1/7 실내암벽장에 매우 오랜만에 와서 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소극적인 내 모습을 보고 선배님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잘하진 못해도 도전할 용기가 생겼던 것 같다.

11/15 아직 등반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엔 몇 십 분이 걸렸던 뽕바위를 1분 만에 뛰는 내 모습을 보니 나름대로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 부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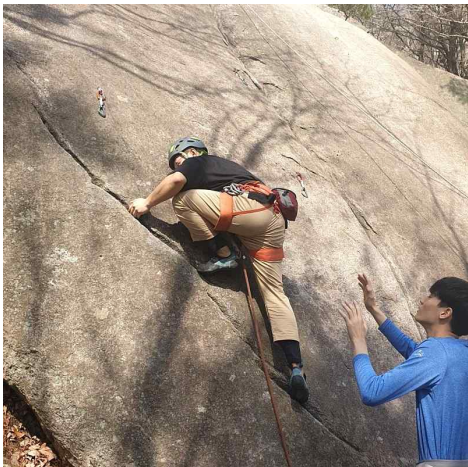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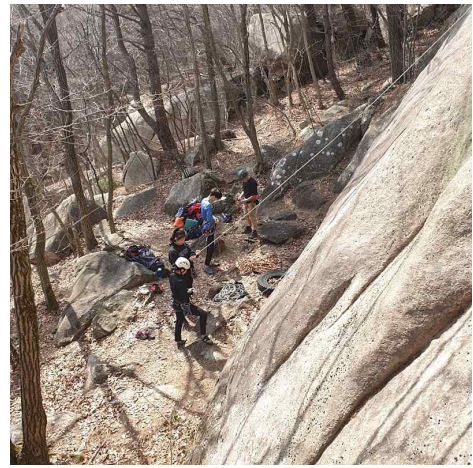
2020.3.4. 무명 릿지 등반



2020.3.14. 범어사 워킹



2020.3.21. 준행암 등반



2020.03.29. 대륙암



2020.08.08. 지리산 워킹

2020.09.20. 금정산 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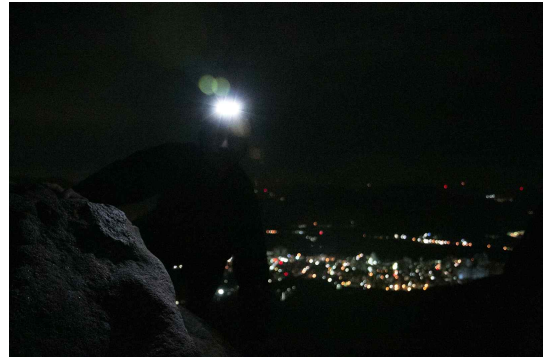
2020.09.26. 준행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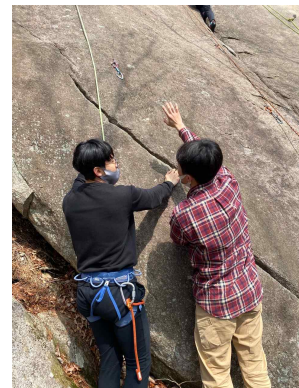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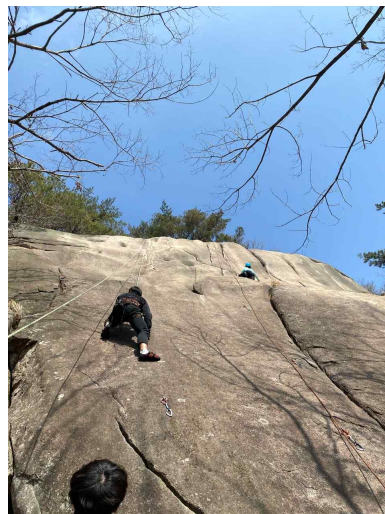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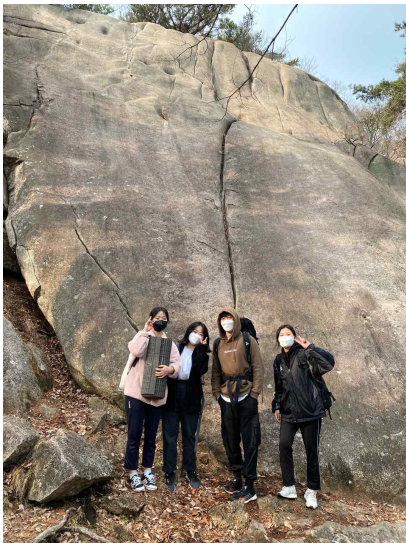
2020.10.10. 무명릿지



2021.05.06. 야간 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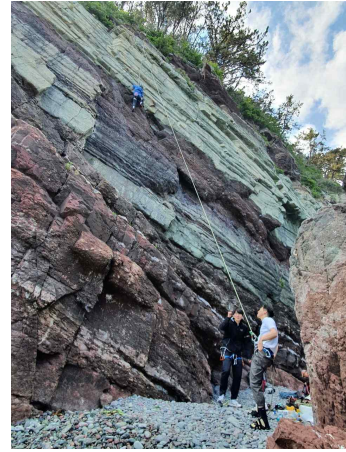
2021.03.13. 준행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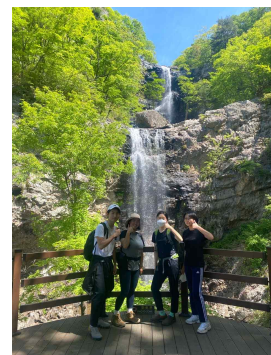
2021.03.20.-21 영축산-신불산-간월산 1박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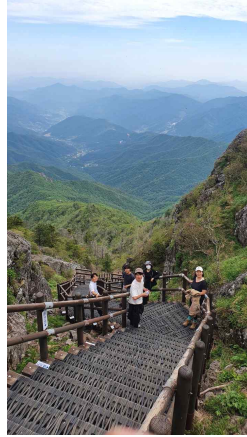
2021.05.02. 송도 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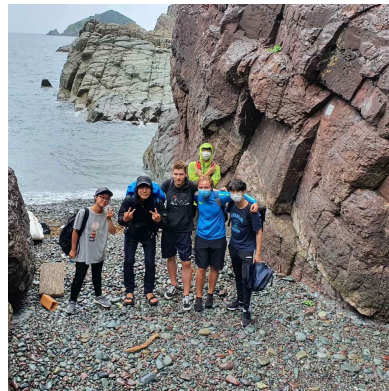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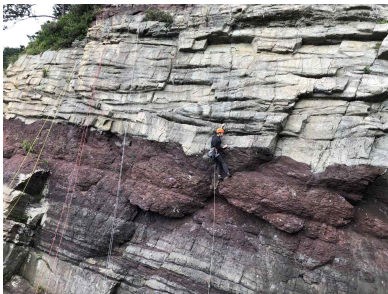
2021.05.10. 재약산, 천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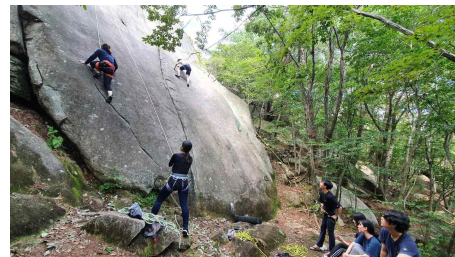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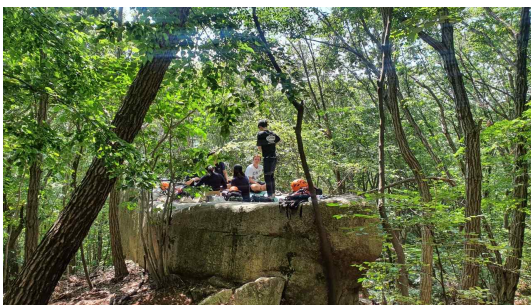
2021.05.24. 지리산 1박2일



2021.09.05. 송도 해변



2021.09.11. 준행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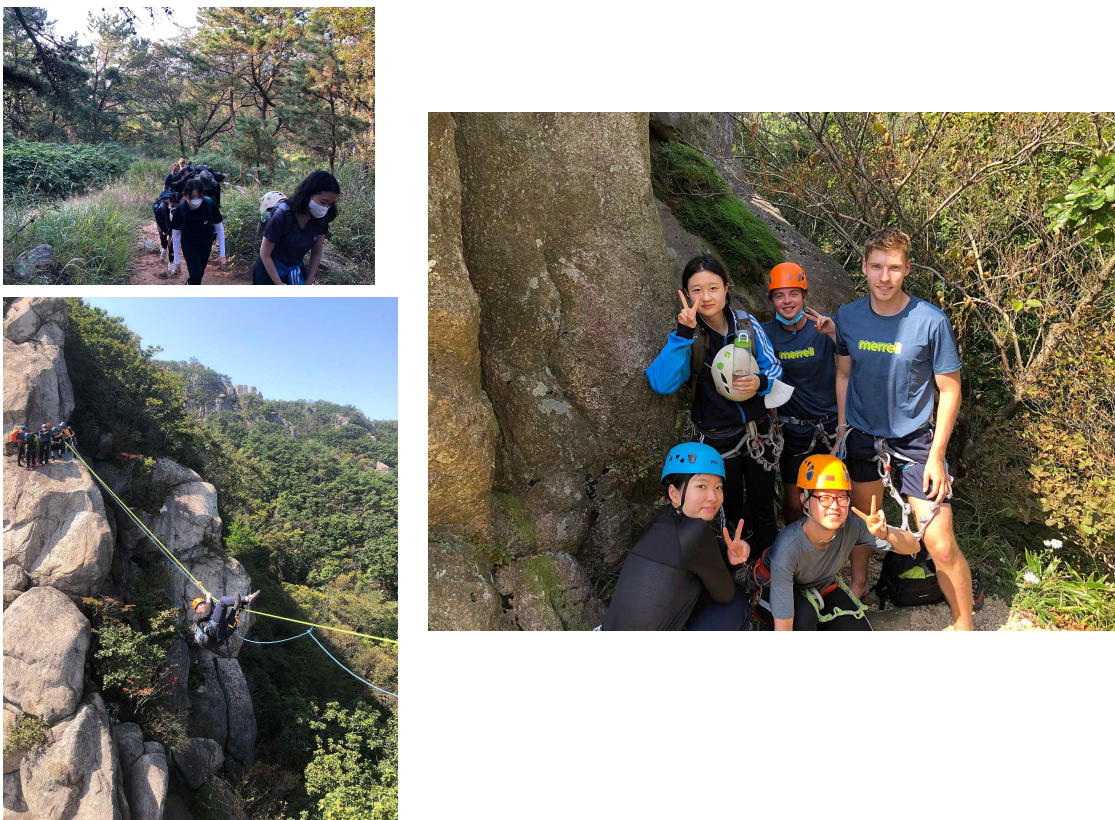
2021.09.19. 승학산 워킹



2021.09.26. 기장 배틀암장



2021.10.03. 등산학교 - 무명릿지



2021.10.30. 영남 알프스 - 영축산, 신불재, 신불산, 간월재



2021.11.06. 아리랑 릿지



2021.11.14. 대통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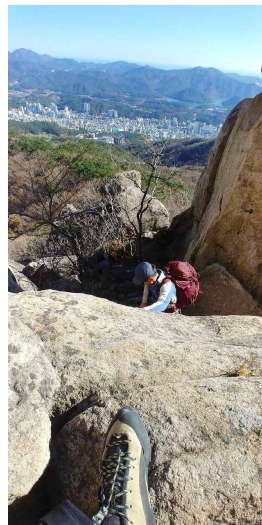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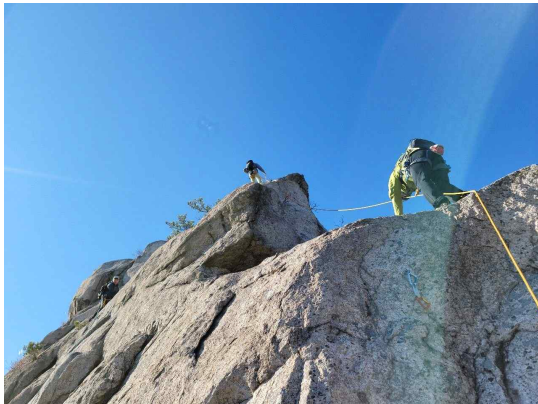


2022.01.16.-01.22 동계 등산학교 - 전남 완주군 병풍바위 인공빙벽장



■ 인제대학교

2021년 11월 28일 일요일 무명릿지



부산학생산악연맹 가맹 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정보대학교
인제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발행: 2022년 10월 18일
발행처: 부산학생산악연맹
편집집: 부산학생산악연맹 학술정보
편집위원장: 이언화
주소: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215호
전화: 070-8680-8815
팩스: 0303-3445-1968
홈페이지: <http://bsaa.kr>